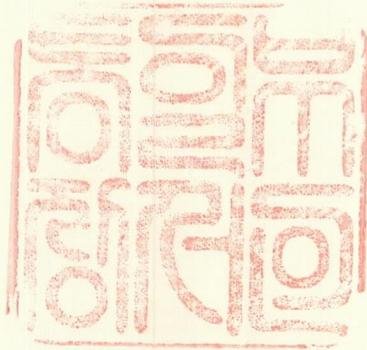


류우익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사진으로 보는 통일 준비



하나원 방문
_경기도 안성
201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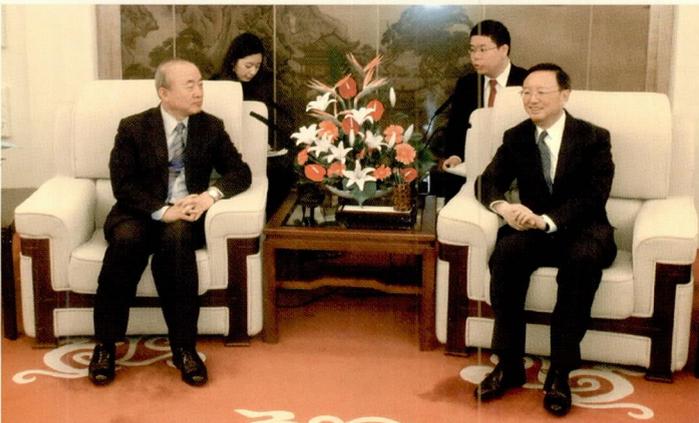
제2하나원 개원식 _강원도 화천
2012.12.5



일리아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면담 _미국 워싱턴 D.C.
2011.11.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_미국 뉴욕
2011.11.5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면담 _중국 베이징(중국 외교부)
2011.11.22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 면담 _ 독일 베를린
2012.2.28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 _ 코엑스
2012.3.27



김정일 사망 관련 정부 담화문 발표 _청와대
2011.12.20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면담
2011.12.21



원혜영 민주통합당 대표 면담
2011.12.21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면담(김정일 위원장 방북 조문 결과 청취)
2011.12.27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대통령 특강 _남북회담본부
2012.4.20



이명박 대통령, 통일 성금 기부 _청와대
2012.7.16



통일 향아리 완성 _문경 영남요
2012.6.23



강창희 국회의장 통일 성금
기부 _국회
2012.7.18



통일 생각 후원의 밤 _세종문화회관
2012.8.17



통일 향아리 국토 대장정
2012.9.20



류우익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 목차 |

서문 14

1장

류우익 장관의 『짧은 말, 깊은 뜻』

통일 준비 : 통일 향아리는 핵무기보다 강합니다. 22

분단 관리 : 통일부장관은 109 번뇌를 갖고 삽니다. 36

2장

취임사와 퇴임사

제36대 통일부장관 취임사: 통일 의지가 시대정신입니다. 48

제36대 통일부장관 퇴임사: 나머지는 통일 향아리에게 물어보십시오. 52

3장

류우익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강좌 10선

● 류통준이란 무엇인가? 58

독일외교협회 강연(12.2.28) 68

통일 정책 최고위 과정 강연(12.3.2) 73

민주평통 부산 지역 통일 공감 강연(12.3.23) 85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 강연(12.5.24)	97
무궁화 회의 강연(12.6.11)	10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12.6.21)	122
21세기 경영인 클럽 강연(12.7.24)	137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연(12.10.4)	153
북경대학교 강연(12.10.29)	174
한국방송통신대학 강연(12.12.26)	180
○ 통일 준비에 대해 말하다(12.11.30)	198

4장

주요 연설문과 기고문

통일부 홈페이지 인사말(11.9.19)	218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작품집 축사(11.10.24)	219
Korea Vision Forum 축사(11.11.18)	221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0주년 전국대회 축사(11.11.18)	224
2012년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12.1.2)	227
2012년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12.1.5)	230
J-China Forum 창립대회 축사(12.1.9)	233
통일연구원·조선일보 국제학술회의 축사(12.1.18)	235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0주년 학술회의 축사(12.2.17)	237
통일부 창설 43주년 기념식 기념사(12.3.2)	240

| 목차 |

북한 경제 글로벌 포럼 축사(12.3.21)	243
2012년 통일백서 발간사(12.3.23)	246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12.3.27)	24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대회 축사(12.4.25)	257
통일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축사(12.5.1)	260
통일 준비 대토론회 축사(12.5.3)	263
경기도 남북 교류 10년 평가 국제회의 축사(12.5.9)	267
중앙일보-CSIS 포럼 오찬사(12.5.24)	270
「남북경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12.6.1)	273
「한반도 비전과 통일」 통일 비전 선포식 축사(12.6.5)	277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제12차 한·중 지도자 포럼 만찬사(12.6.5)	280
2012년 이북 도민 청년 하계캠프 축사(12.7.26)	282
청소년 통일 백일장 전국대회 격려사(12.8.7)	284
북한이탈주민 영어 프로그램 후원의 글(12.8.13)	286
「남북 경협 24년 현안과 전망」 토론회 축사(12.8.30)	287
제4회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축사(12.9.21)	289
이산가족 자유 상봉 기원 행사 축사(12.9.13)	291
통일 향아리 국토 대장정 피날레 기념사(12.9.20)	292
제22주년 독일 통일의 날 축사(12.10.9)	294
「통일 생각」 부산·울산·경남 지부 발대식 축사(12.10.11)	296
북한이탈주민 영어 프로그램 론칭 행사 축사(12.10.16)	299
2012년 민족 통일 전국대회 격려사(12.10.18)	301

2012년 한반도 국제포럼 리셉션 만찬사(12.11.12)	303
「통일 생각」 대구·경북 지부 발대식 축사(12.11.7)	305
2012년 한반도 국제포럼 개최식 환영사(12.11.13)	309
제2하나원 개원식 기념사(12.12.5)	312
2012년 군정위·중감위 송년행사 만찬사(12.12.6)	315
2013년 통일부 사무식 신년사(13.1.2)	317
「통일 생각」 LA 지부 발대식 축사(13.1.17)	320
「통일 생각」 시카고 지부 발대식 축사(13.1.22)	322

5장

트위터 멘션

2012년 멘션	326
2013년 멘션	345

부록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1년(9.19~)	350
2012년	352
2013년	364

서문

■

통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

지금은 변혁의 시대입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부딪치면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급하고 혼란스러우며,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동아시아는 그 큰 변혁의 주 무대가 되어 있고 분단된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있거나, 어떻게 될 것 인지를 점치면서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과거와는 달리 가만히 있으면 현상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움직여서 안정을 구하고(動而能恒) 스스로 힘을 길러(自彊不息)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따로 안전한 길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까지 하던 대로 한다면 반드시 위태로워집니다. 중심을 잡고 바로 서서, 새 길을 열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르고자 하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닥쳐 올 안팎의 상황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가져올 위험과 기회를 가늠하고 우리가 가진 제약과 잠재력을 점검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치열하게 궁리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때를 맞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해법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교류 협력하고 상생공영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실용화함으로써 우리를 위협하고 굴복시키게 되는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는 북한의 변화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주민들을 먹여 살릴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편적 가치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건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사는 길이고 모두가 상생공영(相生共榮)하는 길입니다. 변화를 향한 선택은 북한 당국의 몫입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거듭해서 ‘좋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나쁜 선택’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장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북한 하자는 대로 해주자는 주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얼른 듣기에 관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위협에 굴복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옳지도 않거니와 누구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눈앞의 일시적인 무사안일(無事安逸)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외면하고 도발의 잘못을 덮으면 훗날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 때 가서 후회해 보았자 이미 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변화하여 스스로를 돕는 길로 나선다면 우리도 함께 나서 돕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임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이 막무가내로 반발하면서 3차 핵실험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설득과 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탄 궁리만 하고 응해오지 않을 때에는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변해올 때까지,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리고 통일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문명사적 변혁이 통일의 기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가 그간의 경험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깨친 바를 유념하면서 여러분께 중요한 명제를 상기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남북관계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 때문에 교류 협력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리의 통일정책은 자칫 북한의 대남 전략에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통과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따로 노력하지 않으면 설령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분단 관리는 분단의 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하 북한의 핵개발이 마지막 실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에 생각이 이르면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일정책의 선후·주종(主從) 관계에 관한 인식의 전환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정 통일을 이루려 한다면 먼저 통일을 추진하는 정책을 바로 세우고 나서, 분단 관리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단 관리도 통일 지향적인 것

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정책이 실제에 있어 분단 관리, 특히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을 위주로 이루어져 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정상적 토대 위에 올려놓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만 대화와 교류 협력이 통일을 위하여 의미를 갖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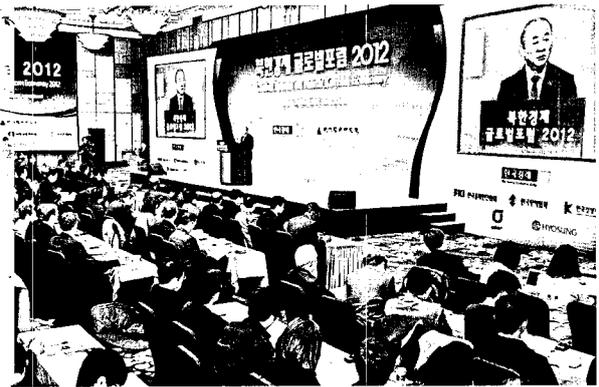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우리가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지만 통일을 바랄직한 모양새로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과정을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통일 준비(統一準備)’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더하여 실질적 통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통일 준비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통일 의지를 고양하고,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통일 외교를 펼치는 일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을 건강한 이웃으로 감싸안고, 통일 후 북한 주민과 함께 살아갈 제도적 대비를 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는 이 다섯 가지 통일 준비의 핵심 정책 과제를 이끌어가는 상징으로 ‘통일 향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명장과 함

께 만든 커다란 백자 달항아리에 ‘평화통일’이라고 써 넣어 국민의 통일 염원을 형상화했습니다. 통일에는 돈이 들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통일 성금과 함께 통일 의지가 결집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에서부터 농어촌의 필부필부(匹夫匹婦)와 산골 학교의 어린이, 하나원의 탈북민까지 줄을 이어 통일 열정을 모아 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교민들도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이제 이 대열을 잇고 늘려가서 통일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국내외 한국인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는 일이고,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이며,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의결되어야 합니다.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일관되게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회에 이 법안을 신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도 변함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1.30. 한반도선진화재단·헤리티지재단·조선일보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





66 류우익 장관의 99
『짧은 말, 깊은 뜻』

통일 준비 : “통일 항아리는 핵무기보다 강합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으며,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상생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찾아나서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인사말씀, '11.9.19.)

내가 흔들리는 판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명사적 변화와 그에 연유한 세계 질서 및 그 작동 원리의 개편을 의미합니다.

(독일 Kiel 대학 강연, '12.2.24.)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강대한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그 안정된 유로존이 재정 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강건하던 중동에서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13억 인구의 중국이 세계의 수출기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바람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북한에게 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일 준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 강연, '12.6.28.)

❖ **“통일을 도대체 왜 하는가? 왜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나?
이 3개에 대한 물음에 yes가 나오면 통일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3가지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는가? 둘째, 왜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셋째, 지금 해야 되나? 이 3개에 다 yes가 나오면 일을 합니다.

통일도 그렇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1,300년 동안 단일국가로 살아온 한국인의 삶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동포를 구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는 변혁의 시기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일본도, 누구도 통일을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특강, '12.11.21.)

❖ **“우리의 통일 의지가 곧 이땅의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분단과 통일은 현대 한국인의 삶에 피해갈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7천만 겨레의 소원이자 세계 지리와 역사, 문명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통일 의지가 곧 이땅의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취임사, '11.9.19.)

통일은 한국인의 삶의 양식의 총체적 통합이자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6주년 기념학술대회 축사, '12.4.25.)

통일은 우리가 노래를 불렀듯이 민족의 염원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숭고한 책무입니다. 여기엔 이데올로기도 필요 없고, 좌우도 없고, 지역도 없고, 노소도 없는 거예요.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당연히 자유민주 체제 하의,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능력을

발휘하고, 세계와 더불어 인류 공통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체제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헌법에도 명시된 것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특강, '12.9.14.)

❖ **“통일은 우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실천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차가운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무엇으로 하는가? 통일은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같은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사랑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돼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이성, 냉철한 이성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2012년 2월 직원 월례조회, '12.2.1.)

❖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되는 한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두 개의 독일’이 ‘두 개의 유럽’을 의미했듯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의 분단’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되는 한 20세기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코리아 비전 포럼 축사, '11.11.18.)

❖ **“보다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능동적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미래를 향한 ‘좋은 선택’을 하도록 견인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 '12.1.5.)

능동적이라는 것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 북한에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주고, 선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좋은 선택'이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과의 대화, '12.1.31.)

뭔가 한 발 앞에서 내다보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봉하거나 또는 피해가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12.3.2.)

보다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겁니다.

(민주평통 대전 지역 통일 공감 강연회, '12.3.15.)

경향신문

2011년 09월 20일
09면 (정치)

류우익 장관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

북한 “말로만 떠들지 마라”

류우익 신임 통일부장관(61)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밝힌 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통일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 절감했다. 국민 각 계각층의 말씀을 많이 듣고, 특히 인접국이나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도 잘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법론적) 유연성에 대해 말이 많은데 통일부의 행동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다만 “대북정책은 가시적으로 금방 성과가 나는 것도 있지만 교육이나 산림녹화처럼 오랫동안 안 드러나는 것도 있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장관 바뀌었다고 금방 바뀌진

않아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취임식에서 류 장관은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남북관계가 불안정하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의사를 밝힌 류 장관을 겨냥한 듯 이날 “남조선 당국이 말로만 상봉을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제라도 오늘도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포함해 대화와 협상, 접촉과 교류로 북남관계 개선과 그 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자세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통일 준비에도 때가 있습니다. 세계의 판이 흔들리고, 북한이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고,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이 시점을 놓치면 안됩니다.”

통일 준비도 시간이 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올지 몰라. 지금 세계의 판이 흔들리고, 북한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이 시점을 하루도 놓치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거다.

(21세기 경영인 클럽 강연, '12.7.24.)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겪고 있는 이 진통은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진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통이 끝나는 즈음 남북관계는 정상적 발전을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으로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재외동포언론인 대상 강연, '12.3.16.)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올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야 합니다.

(경남 통일·안보 교육 포럼 강연, '12.6.22.)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기만을 기다리고, 핵무기 견어치우고 교류 협력만 하면 통일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통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통일정책을 두 가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두 가닥, 하나는 평화적인 분단 관리, 다른 하나는 통일 준비. 해서 두 가닥의 통일정책을 해나가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것이 '통일 항아리'를 만들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대학생 안보토론회 특강, '12.10.18.)

“통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더하여 실질적 통일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통일 준비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통일 의지를 고양하고,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통일 외교를 펼치는 일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을 건강한 이웃으로 감싸안고, 통일 후 북한 주민과 함께 살아갈 제도적 대비를 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헤리티지재단·조선일보 주최 국제심포지엄, '13.1.30.)

우리 정부는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했던 그간의 '분단 관리'를 넘어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실질적 통일 준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12 한민족 한마음 운동 한마당 격려사, '12.3.23.)

매일경제 2012년 03월 09일 (월) 4면 (종합)

北 내부권력 불안정·연평도 포격 등 분단비용 커

柳통일 “지금부터 통일준비 들어가야”

“역사를 뒤 살피지 못해서 나란할 때나 는 상황을 놓고, 체제 당국자들이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야기 할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부드러운 대북정책과 대화의 우산이던 류유 의 통일부 장관이 마음먹고 북한에 손소리 쳤다. 류 장관은 8일 북한정책포럼 참석·응답시간 만에 중이 발언을 지칭해 남북자 문제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매경·정책금융공사 ‘북한정책포럼’
“식량이란 경험이란 만나서 얘기하자”

류 장관은 지난달 17일 남북 기 본합에서 20주년 환송회에서 “북한에 대한비평은 남북 기본합 의서 위반”이라고 북한의 비난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는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 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 다. 7일 연평도 포격은 강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한 10 배 응징하라”고 발언한 것과 맞먹 리 관심을 촉시한다.

그러나 류 장관은 이러한 남산 대북 비판과는 별개로 통일의 필요 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 다. 류 장관은 먼저 한반도를 분치 고 있는 현재의 정세에 대해 “통일 의 남북관계 변화상성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분단 상황을 인정적으로 관리하 라는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안보와 리가 한층어려지는 것이다. 북한 이 걸음로는 김정일 사망 후에 안 보적인 유권통치가 어려워지고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1994년 김 일성 주석 사망 뒤 강연에 의해 더 뉴얼을 따르는데 병과한 것이라고 류 장관은 밝혔다. 그는 북한이 중 요한 정치적 결정이나 대외관계를 최소화하고 있다. 점을 근거로 들 며 “내부의 권력관계가 완전히 정 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우리가 이제껏 업 청난 ‘분단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는 점을 언급하며 통일 준비가 배 우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전 안합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으로 인한 인명 손실은 물론이고 ‘외라이 인스카우팅’ 같은 경제의 손실과 국유 기업들이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남북한 모두에 ‘점 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는 서대 중 일부에서 이러한 분단 상 황이 이른폭과 위기를 놓치지 못하고 있을지 언젠가쯤과 놀라움을 나타 냈다.

남북관계가 경색돼 정책 실행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지만 류 장관은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류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선 가나 장관의 임기를 고려해서 지대 약속되거나 혹은 과욕을 부리는 는 안된다”며 “북한 통일이 어느 남 감지가 될 것이 아닌 꾸준한 노력 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취임 후 소나무 병충 해 방지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심부 검측을 제안했다. 이번주에 는 개성공단을 방문한대 북외교의 협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산품에 반 송과 대외간직(참고·평의시성 등 의 중측)을 허용하는 등 지속적인 ‘유연’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는 총리자문과 집의응답에서 “내외의 협력한 상호주의가 아니 리 신장지언이든 긍정신에 걸침 이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 내 영유권-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내외 여러 제안을 받아들여놓고 논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이, 한-유엔협력(HEU) 지원 무역협정(FTA)에서 정하는 지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 정 분배에 대해서는 “EU 집행부 와 외회 협상자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해 받지 않았다고 당부했 고

그쪽도 공란한 것으로 본다”고 밝 혔다.

8일 사회를 맡은 이산한 북한정 책포럼 운영위원장인 “10년 전 북 한경제 건분가의 대북사업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포럼이 화고한 경제 총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에 자부 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통일정책 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간담회말 중은 주한 김영욱 정 책금융공사 사장은 “통일금융사 는 앞으로 다양한 대외 지원방안 을 연구해 북한개발 이후 개성공단 수상을 위한 역량을 키워 나가게 다”고 밝혔다. 김정은-권재욱 기자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최로 8일 서울 중구자호호텔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에서 류유 의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경제 의 통일정책 및 무역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산한 북한정책포럼 운영위원장, 류 장관, 신영호 정책금융공사 사장, 김지영 매일경제주필, 박은성남부.

남북관계가 경색돼 정책 실행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지만 류 장관은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류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선 가나 장관의 임기를 고려해서 지대 약속되거나 혹은 과욕을 부리는 는 안된다”며 “북한 통일이 어느 남 감지가 될 것이 아닌 꾸준한 노력 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취임 후 소나무 병충 해 방지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심부 검측을 제안했다. 이번주에 는 개성공단을 방문한대 북외교의 협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산품에 반 송과 대외간직(참고·평의시성 등 의 중측)을 허용하는 등 지속적인 ‘유연’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는 총리자문과 집의응답에서 “내외의 협력한 상호주의가 아니 리 신장지언이든 긍정신에 걸침 이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 내 영유권-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내외 여러 제안을 받아들여놓고 논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이, 한-유엔협력(HEU) 지원 무역협정(FTA)에서 정하는 지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 정 분배에 대해서는 “EU 집행부 와 외회 협상자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해 받지 않았다고 당부했 고

그쪽도 공란한 것으로 본다”고 밝 혔다.

8일 사회를 맡은 이산한 북한정 책포럼 운영위원장인 “10년 전 북 한경제 건분가의 대북사업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포럼이 화고한 경제 총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에 자부 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통일정책 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간담회말 중은 주한 김영욱 정 책금융공사 사장은 “통일금융사 는 앞으로 다양한 대외 지원방안 을 연구해 북한개발 이후 개성공단 수상을 위한 역량을 키워 나가게 다”고 밝혔다. 김정은-권재욱 기자

“통일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통일 항아리’를 굽고, 그 구운 ‘통일 항아리’에 국민의 통일 의지를 모아서 넣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항아리가 아주 단단하게 채워지면, 꼭 채워지면, 저는 핵무기보다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통일을 못 시키지만, 국민의 의지로 결집된 항아리는 통일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 '12.6.21.)

통일 비용은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 대대 영원토록 통일 비용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의 혜택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통일 재원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일 재원을 모으는 계정, 그 계정을 제가 알기 쉽게 ‘통일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국민화합대법회, '12.6.29.)

우리의 통일 의지를 결집시켜서 항아리에 담을 때, 그 항아리가 단단하게 이천만, 삼천만, 오천만의 의지로 다져질 때, 그때 이 항아리는 핵무기보다 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핵무기는 사람과 물자를 살상하는 무기이지만, 항아리는 음식을 담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쇠로 만든 무기는 세월이 가면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지만, 항아리는 수천 년을 땅속에서 견디고 견디고도 항아리로 남습니다. 항아리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지만, 핵무기에는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을 담습니다. 어느 것이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어느 것이 평화통일을 만들겠습니까?

(나라미래준비 모임 초청 강연, '12.7.3.)

남북 상징하는 반달 그릇 두 쪽 합쳐 류우익·김정옥이 빛은 '통일 달항아리'

(통일장관) (도예장인)

새도 쉬어간다는 백두대간의 즐기 문경새재. 그 아래 공방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12일 통일 항아리를 빚었다. 중요무형문화재 105호인 백산 김정옥(71) 선생의 영남요(窯)에서다. 류 장관은 김정옥 선생이 발 물레를 돌려 빚어놓은 반달 모양의 그릇 두 쪽을 합쳤다. 마시토와 진주 백토로 만든 달항아리엔 '평화통일' 네 글자를 새겨넣었다. 류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12일 경북 문경 영남요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왼쪽)이 백산 김정옥 선생과 백자 통일 달항아리를 빚은 후 '평화통일'이란 글자를 새넣고 있다. [사진 통일부]

민간 참여로 모으는 통일기금 상징 행사 지켜본 캐나다 도예가 앨런 문 "감동 스토리 ~ 외국인도 기부할 것"

이후 통일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일 항아리'에 비유해왔다. 이날 행사는 류 장관이 기획한 '상징'의 '현실' 승화 이벤트였다.

도예 인생 54년, 8대째 요를 구워온 김정옥 선생도 익숙지 않은 '이벤트'에 흔쾌히 응했다. "예(藝)에는 늘 요변(窯變)이 있다(가마 속에서 구워지면서 예기치 않은 오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는 김 선생은 백자 달항아리의 의미를 강조했다. 옛날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 쌀 한 줍씩 떨어 보관하는 밀천으로 항아리를 닦았고 '통일 밀천'의 의미로 달항아리가 제작이라는 얘기다. 제작된 항아리는 정중 양 지름이 50cm. 전 세계에 16개 남아 있다는 조선 백자 달항아리 중 품이 가장 녀석하다. "달항아리는 똑같은 형태의 반달 그릇 두 개를 합쳐 그 이음매가 보이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달이 이지러지고 차오르듯 남북관계에 수많은 질곡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견

댈대며 '영원한 하나'가 되자는 뜻입니다."

류 장관은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제사회에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돈을 걷지는 않고 필요성만 일깨울 뿐 나머지는 민간이 모여서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캐나다의 도예가 앨런 문(Alan Moon·77)도 참가했다. 인터넷을 통해 행사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찌감치 방한해 김 선생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 문은 7년 전 김 선생의 요를 찾아와 한 수 배운 뒤 프랑스·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한국 백자의 우수성을 알려왔다고 한다.

그는 "항아리 스토리를 알게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기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듣게 된다면) 매우 기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아이디어란 설명이다. 문경=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 **“통일 향아리는 핵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듭니다. 핵무기는 인명을 살상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부는 향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향아리는 사람을 살리고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통일을 하지 못합니다. 민족을, 사람들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향아리는 사람을 살리고 통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향아리가 국민이 사랑하게 되는 이 향아리가 핵보다 강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2기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12.9.13.)

북한 핵은 북한 주민의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든 ‘통일 향아리’는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은 통일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통일 향아리’는 그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IGE 국제회의 기조연설, '12.10.22.)

‘통일 향아리’는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 더 강해진다. 핵무기는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는 데 쓰이지만, 도자기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거다. 핵무기는 통일 못 하지만, 이 도자기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핵폭탄보다 ‘통일 향아리’가 더 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남대 최고위 과정 특강, '12.11.20.)

❖ **“통일 자원 마련은 통일 준비의 핵심입니다.”**

통일 자원 마련은 통일 준비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한국인들의 통일 의지를 세계에 널리 각인시키며,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 인사말씀, '12.10.8.)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 총리 헬무트 콜이 이야기했어요. 기회가 왔는데 돈 없다고 회피한다면 역사적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특강, '12.12.26.)

❖ **“대한민국은 분단 이재민의 따뜻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이재민’의 따뜻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 등 ‘분단 이재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남북자 가족, 그리고 이산가족과 같은 ‘분단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2012 한민족 한마음 운동 한마당 격려사, '12.3.23.)

❖ **“2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2천 4백만의 북한 주민을 끌어안고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2만 4천 명 이상이 있습니다. 2만 4천 명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면서 2천 4백만 명을 어떻게 합니까? 통일 연습이라 생각하고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먼저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감싸안아야 합니다.

(민족통일 전라남도 협의회 강연, '12.5.25.)

2만 4천의 북한이탈주민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2천 4백만의 북한 주민을 끌어안고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을 끌어안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고, 통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무궁화 회의 강연, '12.6.11.)

북한이탈주민, 탈북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돕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탈북민이 2만 4천 명입니다. 2만 4천 명의 탈북민을 끌어안지 못하면 2천 4백만의 북한 주민을 끌어안을 길이 없습니다.

(인천경영포럼 강연, '12.7.26.)

“통일의 열쇠는 남북한이 쥐고 있지만, 보조 열쇠는 주변국들이 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일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열쇠’는 물론 남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2012 한민족 한마음 운동 한마당 격려사, '12.3.23.)

‘통일의 열쇠’는 남북한이 쥐고 있지만, ‘보조 열쇠’는 주변국들이 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 열쇠를 작동하려면 보조 열쇠를 같이 돌려야 합니다.

(현정희 강연, '12.3.9.)

통일 외교를 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동남아, 유엔을 설득시켜 나가야 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 번영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한국적 가치와 새로운 문화의 발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세계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특강, '12.9.14.)

통일된 한국은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네 나라를 포함해서 이웃 나라에 부담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남의 나라에 가서 쪽박 하나를 훔쳐서 뺏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도 못 믿는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대상 특강, '12.9.25.)

“분단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족쇄입니다.”

분단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족쇄’입니다. 이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일은 시대정신입니다. 단절된 국토를 통일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통일 준비 대토론회 축사, '12.5.3.)

분단은 '족쇄'이고, 우리는 '족쇄'를 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정회 강연, '12.3.9.)

분단의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단은 우리의 자유와 발전을 옥죄고 있는 '족쇄'다. 이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것을 편하게 느끼면 안된다.

(민주평통 대전 지역 통일 공감 강연회, '12.3.15.)

❖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장관, 한국에 돌아가거든 한국 국민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시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혼란이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나는 한국민들이 독일 국민보다 더 통일 준비를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일 통일을 지켜본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한국의 통일부장관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그 축복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2 세계한인회장 대회 강연, '12.6.28.)

❖ “국민이 한마음으로 꿈을 꾸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가 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은 그 사람을 키워줍니다.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한마음으로 꿈을 꾸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꿈은 오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미래에 있습니다. 1,300년 이상을 하나의 나라로 지켜온 우리 조상들을 우리러 보면서,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나라가 분단되어 '족쇄'를 차고 있는 현실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국민화합대법회, '12.6.29.)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된 미래를 꿈꿔나갈 때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11회 청소년 통일 백일장 전국대회 격려사, '12.8.7.)

❖ **“도전하니까 청춘입니다.”**

젊은이들은 도전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전하니까 청춘입니다. 도전해야 청년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체 한다면 그거 청년이 아니에요.

(청주대 특강, '12.3.15.)

❖ **“상책(上策)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정책은 ‘하책’이고,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책’이고, ‘상책’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재외 동포 언론인 대상 강연, '12.3.16.)

❖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큰 것이 통일 편익입니다.”**

통일 비용은 많습니다. 그러나 훨씬 큰 것이 우리가 지금 지불하는 분단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것이 통일 후 우리가 받게 될 통일 편익입니다.

(민주평통 간부진 대상 강연, '12.4.30.)

❖ **“Unitiative,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통일 준비를 해나가

는 것, 통일부의 분단 관리와 함께 가는 또 하나의 통일정책, (그것이) ‘uninitiative’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 열린 강좌, '12.11.8.)

통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unification. 통일은 한국이 주도한다, 그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의 initiative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을 결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unification initiative, 조합하면 뭐가 되죠? ‘uninitiativ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준비는 영어로, 통일부장관이 만든 영어로 ‘uninitiative’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 열린 강좌, '12.11.8.)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정책, 통일 준비를 영어로 uninitiative라고 합니다.

(국방부·합참 직원 대상 특강, '12.11.26.)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의 시작은 다 할 줄 알 것입니다. 그 노래를 67년간 불러왔습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보면 통일이 되겠지, 앞으로 67년을 더 그렇게 해도 통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막연하고 확신이 없고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통일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특강, '12.10.4.)

돈을 내는 마음, 돈을 내는 행동, 그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통일, 통일 해도 통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67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60년이 넘게 노래를 불러 봐도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는 통일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까운 자기 것을 내어놓는 행동을 해야 통일이 됩니다. 통일은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 통일·안보 교육 포럼 강연, '12.6.22.)

분단 관리 : “통일부장관은 109 번뇌를 갖고 삽니다.”

“통일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분단 관리는 분단의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노력하지 않으면 설령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분단 관리는 분단의 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하 북한의 핵개발이 마지막 실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에 생각이 이르면 더욱 그러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헤리티지재단·조선일보 주최 국제 심포지엄, '13.1.30.)

“통일부장관은 109 번뇌를 갖고 삽니다.”

불가에서는 108번뇌를 안고 산다고 말합니다. 이북 5도민과 통일부장관은 109 번뇌를 갖고 삽니다.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습니다.

(이북 5도민 대상 특강, '12.9.5, 연합뉴스 「2012 말·말·말」, '12.12.21)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고 묻지 말고 우리가 어떤 북한, 어떤 한반도를 보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으나, 앞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가는 거냐, 하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느냐고 묻지 말고 어떤 북한, 어떤 한반도를 보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어떤 북한, 어떤 한반도가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하고 힘을 합칩시다.

(인천경영포럼, '12.7.26.)

❖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 군부의 최고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영호 총참모장이 모든 직책으로부터 해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권력 승계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부의 권력 투쟁 요소를 안고 있는지, 또는 이것이 선군정치가 선민정치로 넘어가는 징후인지, 또는 이것이 북한 권력 기반의 약화를 의미하는지, 개혁 개방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도부가 다 모인 자리에서 미키 마우스 공연이 이루어지고 여차여차 하는 음악들이 연주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개혁 개방의 신호탄이나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 쪽으로는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한 쪽으로는 그것이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 않듯이 북한에서 이러저러한 그림이 몇 장 보여졌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 경영인클럽 강연, '12.7.24.)

❖ **“북한이 할 일은 먼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Feed your people first.”)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보다는 먼저 백성을 먹여 살려라. 민생을 먼저 돌

❖ “식량을 벌어야 할 북한이 「매」를 벌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는 것은) 몇 년치 식량 부족한 부분을 매꿀 수 있는 돈을 그냥 하늘로 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거 자초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있으면 될 걸, 또는 우선 그 주민들 먹여 살리고 국제사회와 잘 지내면 될 걸, 그걸 굳이 쏘고, 그래서 또 제재를 자초하고, 주민들은 더 어렵게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이거 우리 일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 ‘매’를 벌고 있다. 양식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매’를 벌면 되겠어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대상 특강, '13.1.24.)

매일경제

2013년 1월 24일
05면 (중지)

北 “미국 겨냥한 핵실험 준비” 한달내에 강행 가능성 높아
류우의 “北 매를 벌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권위에 반발해 24일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당장 엇고제 출범한 미국 버락 오바마 2기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임기인 시차부터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난재에 본격화해 왔다.

▶관련기사 A33면
간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에서도 전면적인 급속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최고 주권기관인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위협과 장거

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양국간 관계를 생존법칙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는 방호벽이 아니라 오히려 총대로 걸려나야 한다”고 미국에 거침없는 비난을 가했다.

실험 핵실험을 했던 2006년과 2009년 당시 북한이 내놓은 발표와 이날 국방위의 성명을 비교해보면 이 같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북한은 2009년 4월 29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사흘이지 앞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ICBM) 방사능 저위력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 내용을 담은 위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5월 함경북도 김주

군 총계리에서 실험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에도 북한은 10월 9일 1차 핵실험 6일 전에 위무성 성명용 총리 국제사회에 핵도발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움직임으로 미뤄 볼때 때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핵실험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국방위의 발표는 3차 핵실험을 최고위 수준에서 공식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3차 핵실험을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한반도 평화협정, 핵

군축 협상 등을 통 크게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이날 성명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핵실험의 이유로 명시한 것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통적 장문(強辯) 양면전술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을 찾은 굴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상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지금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데가 아니다”며 “한국 세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적 허브를 찾는 일에 항상 관심이 있는 미국 대통령과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북한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대북, 한반도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정부 내 한반도 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23일 방한했다.

류우의 등임부 장관은 이날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며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류 장관은 수주출입은행 임직원 대상 특강에서 “(북한이) 나쁜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쁜 길로 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볼 때마다 스스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 북한이 매를 벌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성훈 기자

❖ “북한의 핵 도발→제재→고립→보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 간 북한과 한국, 국제사회는 마치 고장난 영사기 필름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듯이 사실상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발하고 제재하고 고립되고 보상받고, 다시 도발하고 제재하고 고립되고 보상받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악순환이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외교사절 대상 정책설명회, '12.4.17.)

류우의 “북한 도발→보상 악순환의 흐름 끊어야”

5·24조치 2년 - 오찬 연설
대학생·외신기자 200명 참석



클린턴 선임연구원은 토론자가 아닌데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은 흥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의 개회사와 존 햄리 CSIS 소장·CEO의 축사로 시작했다. 흥 회장은 “김정은 세습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미묘하고 중대한 시점에는 어느 때보다 한반도 주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해안과 슬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3개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주요 국가의 리더십 변화와 북한의 미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는 이흥구 전 총리와 윤영관 서울대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김태지 전 주일대사·이호진 CSIS 초빙연구원(전 주핀란드대사)·신봉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임성남 한

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배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비롯한 전·현직 외교관들도 참석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브루스

젯고 어떤 목적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소셜컨설팅그룹(SCG) 및 대학생재능포럼 소속 대학생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이코노미스트,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을 비롯한 한국 주재 주요 외신 특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일보-CSIS포럼=중앙일보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한·미의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주변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연례 포럼. 올해로 2회를 맞았다. CSIS는 초당적 입장에서 전략 자문을 제공하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일했던 정책 전문가들이 다수 활약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즈비그뉴 브래진스키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거물급 인사기 이사 또는 자문위원으로 포진해 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외교·안보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이남 포럼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대북 제재조치(5·24 조치)를 단행한 지 만 2년이 된 시점에 열려 더욱 관심을 끌었다. 특별 초청을 받은 류우의(사진) 통일부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으며, 과거와 같이 북한의 도발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져 온 남북관계 악순환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제할 것이 아니다”라며 “2년을 맞아 이 조치가 왜 취해

“북한 핵에 대해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도식적인 과거의 생각, 북한 핵에 대한 만성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통일부 간부회의, '13.1.28.)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민생 경제를 챙기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이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개혁 개방을 통해 민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통일연구원, 조선일보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 축사, '12.1.18.)

새해 대북정책 키워드는 '기회'

MB 이어 류우익 통일도

"北에 기회의 창 열어줄 것"

정부가 신년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손을 내밀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가 끝난 직후 북한 당국은 연일 이명박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긴장 수위를 높이지 말자는 정부

대화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일 시무식에서 "한반도에 위협과 기회가 빠르게 교차하고 있다"며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은 실망스러웠으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볍게 접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한 정책운영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두고 북한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며 "대통령 신년사처럼 기회의 창을 열

어두겠다"고 말했다.

또 류 장관은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한은 충격과 어려움에 빠졌다"며 "장례식이 순조롭게 치러진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김 위원장의 장례식을 평가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남과 북이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며 "그것이 오늘 대통령 연설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조승호 기자 shcho@donga.com

세계일보

2012년 01월 19일
06면 (종합)

"北 기회의 창 아직 열려 있다"

류우익 통일, 김정은 결단 촉구 대북 유연화 조치 확대는 유보



다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유연화 조치를 더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국제사회의 만류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향해 류우익(사진) 통일부 장관이 "아직 북에 대한 기회의 창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김정은 체제의 '용기'를 강조하기도 해 북의 반응이 주목된다.

류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기 남북관계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고, 다소 기복이 오더라도 대화 채널은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아직 확고한 대화 채널이 구축되지는 않았으나 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취임 이후 일련의 대북 유연화 조치를 취한 류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제의한 대화 제의는 유효하다"며 "민간부분과 정부나 국제기구 등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변화를 위한 용기와 의지만 갖는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변화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을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군·정 권력승계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에 대해 류 장관은 "나쁜 신호(로켓 발사)로 출범했으나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전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복구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기회란 북한이 폐쇄적인, 그리고 무력도발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화해하고 교류 협력 하면서 남북이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 는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민화협 조찬 특강, '12.2.1.)

“저를 미스터 유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일련의 ‘유연화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책임 있는 남북 고위 당국자 간에 안정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유연화 조치에는 다음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확대, 문화·예술·체육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민간 교류 확대, 개성공단 등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2012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 '12.3.27.)

경색된 긴장 관계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 보자, 해서 몇 가지 유연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시중 언론들이 저를 미스터 유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 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Mr. Flexibility라고,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유연화 조치에는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군사적·정치적 관계 문제에 연관되지 않는 선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돕겠다, 하는 것이 유연화 조치입니다.

(경남 통일·안보 교육 포럼 강연, '12.6.22.)

한국경제
2011년 12월 29일
02면 (주말)

‘Mr. 유연’ 류우익의 주도... 김성환·천영우 지원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외교인보수석)

대북정책 변화 누가 이끄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연하게 바뀐 데는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민간 조문단 선별 허용, 전방성 단거리 점등 보류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류 장관이 주도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류 장관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 입장을 처음으로 정리한 지난 20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좌장’ 역할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사망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류우익 김성환 천영우

최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김 위원장 사망은 남북관계를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류 장관의 견해에 동조하며 분위기가 기울었다고 한다. 결국 3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이 대통령도 류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 장관은 지난 9월 통일부 장관 취임 때부터 대북 정책의 조달 바늘 사람으로 주목돼 왔다. 전임한 인태 장관이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 반면

류 장관은 은연과였기 때문이다. 류 장관은 지난 16일 정방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용인정책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조화시켜야만 성과를 지고 용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북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해서 별명이 ‘미스터 유연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21일 민주통합당을 찾았을 때 김동철 외교통상부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20일) 정부가 진인보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류 장관이 계성기에 가능했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형일부 관계자는 “류 장관 취임 이후 대북정책 추는 유연한 대응 쪽으로 기울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유연화 조치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최근의 유연한 대응도 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서기자chab@hankyung.com

(23.2·10.8)cm

“북한은 폐쇄와 낙후에 빠지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폐쇄와 낙후에 빠지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 자신에게 좋은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좋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 화해와 협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12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 '12.1.2.)

‘좋은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핵개발과 무력 도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닫힌 문을 열고 세계와 교류 협력 하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독일외교협회 조찬 강연, '12.2.28.)

“체제 부정하는 사람에게 체제 파괴할 기회 못 준다.”

(중북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당권과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민감한 대북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가정해 미리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다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되고, 국가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위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겠느냐.

(JTBC 신예리·강찬호의 직격토크, '12.5.27.)

중앙일보

2012년 05월 23일 10면 (종합)

“체제 부정하는 사람에게 체제 파괴할 기회 못 준다”

류우익, JTBC 직격토크 출연 중북 의원에게 정보제공 반대



든 걸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경향이 부족하고 민생을 살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류우익(사진) 통일부 장관은 24일로 2년을 맞는 5·24 남북경제 조차와 관련해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 마당에 해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1일 JTBC 시사토크쇼 ‘신예리 강찬호의 직격토크-나는 누구냐’의 녹화(방송은 27일 오전 7시 40분에 출연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5·24 조차의 해체불가 방침과 함께 대외의 여지는 남겨줬다. 그는 “우리 국민이 그런 참변(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다시 당하지는 않을 정도로 보장이 된다면 미흡하더라도 서로 길을 찾아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천안함 희생자들의 주검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고, 민사소송 하듯이 손해를 안 보지만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난 연말 평양 당국과 물밑 대화 끝에 올 1월 방북하기로 합의했다가 김정일의 사망으로 무산됐다는 설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정부는 대화체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북한도 그런 수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출범 6개월이 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권력승계는 상당 부분 예정대로 돼 가고 있으나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며 “지나해 생선장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요즘 식량 비축량이 계속 줄고 있고 해외에서 도입되는 식량도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이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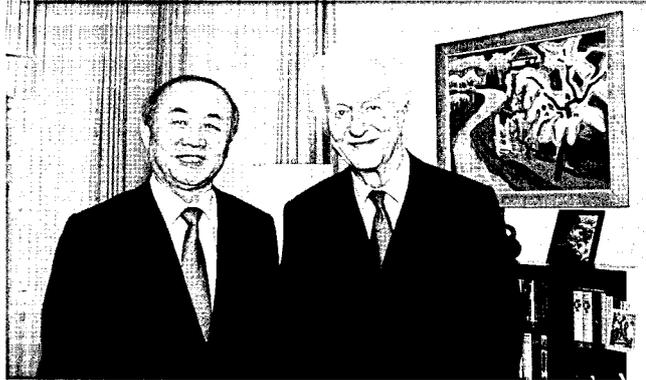
자녀 관련 남북(從北)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당권과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민감한 대북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는 “상황을 가정에 미리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다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되고, 국가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위해를 당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찬호 기자
stonckid@joongang.co.kr

❖ “북한이 핵개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이 막무가내로 반발하면서 3차 핵 실험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설득과 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헤리티지재단·조선일보 주최 국제 심포지엄, '13.1.30.)





66 취임사와 퇴임사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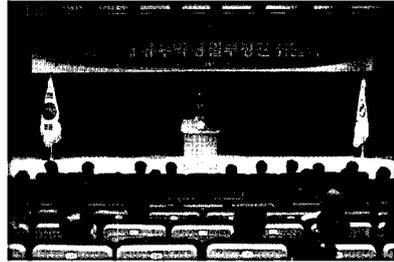
제36대 통일부장관 취임사

- 통일 의지가 시대정신입니다. -

일시 : 2011. 9. 19(월)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통일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무거운 責任感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온 전임 현인택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며 통일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분단과 통일은 현대 한국인의 삶에 피해갈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나, 우리 통일가족에게는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나 자신 먼 길을 돌아 결국 와야 할 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명사적 변혁기에 여러분과 나는 함께 분단 조국의 통일과업 일선에 섰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7천만 겨레의 소원이자 세계 지리와 역사, 문명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그 엄중하고도 숭고한 사명을 위임받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부의 임무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면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토와 민족의 단절을 극복하고 무너진 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상생공영의 장을 열어 선진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실로 그 책무가 엄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국회청문회 과정을 통해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요점만 다시 강조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평화통일을 지향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주적 노력, 상호 존중과 화해협력의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불안정하지만, 우리는 이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거듭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과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고 남북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그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남과 북이 다 같이 고통스러운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통일부는 정책의 기초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실천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내보이고 나라 안팎에서 통일을 위한 행동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나라와도 협의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꾸준히 북측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 나갈 작정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 협력이 줄어들면서 ‘통일부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있었던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며칠 동안의 관찰만으로도 여러분이 묵묵히 일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일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에 차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합시다. 마음을 합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합시다. 이를 위해 나는 직원 여러분께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일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만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 모아주길 당부합니다. 그러려면 일하는 방식부터 손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목표 지향적으로 일합시다. 멀고 험한 길을 가야합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빠져 일희일비하거나, 문제만 따라다니다가는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실용적으로 일합시다. 통일은 사변적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입니다. 추상적 관념이나 교조적 원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실질을 꿰뚫어 보고 옳은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긴장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민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창의적으로 일합시다.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이든 평화통일의 과정이든 우리가 열어가려는 길은 이전에 가본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궁리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창조적인 발상과 창의적인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관건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넷째, 능동적으로 일합시다.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앞장서서 여건을 만들고 일머리를 이끌어갑시다. 각계각층의 국민과 소통하는 데에 힘씁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고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립시다.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어야 일이 됩니다. 그래야 인접국들도 손을 내밀고, 북한도 움직입니다.

다섯째, 헌신적으로 일합시다. 나는 상해에서 충칭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발자취를 직접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군이 싸우던 만주 별판도 걸어보았습니다. 우리의 통일 과업은 이분들의 뒤를 잇고 아직 태

어나지 않은 한국인들의 삶을 온전하게 닦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북한주민을 포함하여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찌 헌신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친애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우리의 진의가 왜곡되거나 벽에 부딪칠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참아달라고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협조를 구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가 가파른 고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이 시대 최대의 현안 과제입니다. 통일부는 그 존재 자체가 통일을 하겠다는 국가의지의 표현이고, 우리는 앞장서서 그 의지를 실천해 갈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통일의지가 곧 이 땅의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그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고 묻거든, ‘그 때 우리는 통일의 최전선에 있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제36대 통일부장관 퇴임사

- 나머지는 통일 향아리에게 물어보십시오. -

일시 : 2012.3.

장소 : 정부서울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통일부 직원 여러분! 이제 저는 장관직을 떠나 33년 공직 생활을 마감합니다. 뒤돌아보니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꽤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나라로부터 입은 은혜가 크고 깊은 데 비해, 이룬 공은 변변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본시 우둔한 데에다 스스로 갖고 닦은 學德이 부족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큰 허물을 짓지 않고 물러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늘이 돕고 여러분이 밀어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저는 나라와 집안이 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운 좋게도 일찌감치 독일까지 유학하고 모교 서울대에서 學而報國의 길에 들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 일생의 주제인 統一政策을 총괄하는 자리까지 왔다가 여기서 공직을 마감하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참으로 과분한 영광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시골로 돌아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못 다한 일을 찾아 報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일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國運은 隆盛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孤立無援의 처지에서 주민들이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相生共榮의 길을 가고자 하였지만, 북한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주민들을 학대하고 핵실험을

일삼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돕는 길로 나오면 우리도 기꺼이 돕겠지만,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갈수록 어렵고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사정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은 나라 안팎에서 ‘실질적 통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일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통의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운동의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원 조회에서 “통일정책은 사랑과 理性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존의 한계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천 5백만 북한주민을 포용할 수 있게끔, 이 땅에 와 있는 2만 5천 탈북민부터 따듯이 감싸 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물려줄 통일조국의 모습을 늘 그리기 바랍니다.

在職中에 했던 말 가운데 몇 마디를 추려서 傍點을 찍어 남겨두고자 합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충정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는 ‘原則과 柔軟性’을, 북한 당국에게는 ‘좋은 선택’을, 그리고 여러분께는 ‘통일 준비’ 한마디를 각각 남겨 놓겠습니다. 이웃 나라에는 ‘Unitiative’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詩人은 ‘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 하였구나’라고 탄식하였지만, 제게는 따로 錦囊에 넣어 남겨줄 지혜 자체가 없습니다. 훗날 후시라도 그럴 필요가 생기거든 내가 남겨둔 이 말들을 기억해 보시고, 나머지는 청사 북도에 서 있는 통일 향아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田園歸路에 오릅니다. 통일 향아리 한 점이 스스로 빛은 짐으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동행했던 동지들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말 대신에 이젠 좀 더 자주 만나고 정답게 지낼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지난 일 년 반 동안 엄중한 상황에서 성심을 다해 일하고 잘 따라주고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통일을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통일부 통일교육원



미래의 대한민국, 우리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제57기 신임관리자과정





66 류우익과 함께 하는 99
통일 준비 강좌 10선

류통준이란 무엇인가?*

류통준은 ‘류우익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의 줄임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부딪힌 문제는 류통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를 류통준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류우익 장관이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최소한 15~20분 이상 통일 준비의 필요성과 과제를 역설한 기회”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의 장관 축사는 모두 빠졌고,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 강연,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도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류통준은 재임 초기 통일 준비의 개념 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2~3차례의 기조연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2011년 11월 4일,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통일 향아리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래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3년 2월 18일까지 총 62회의 류통준을 추진했습니다. 류우익 장관이 취임한 것이 2011년 9월 17일인데, 류통준이 그해 11월에 와서야 시작된 것은 취임 후 약 50여 일 간 대북정책 및 전략 구상, 국정감사 수감 등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류통준에 참여한 청중은 총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총 2만 2천여 명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강연을 들은 사람의 숫자이고 KTV, OUN 등을 통해 시청한 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글은 편집자가 작성하였습니다.

류통준의 대상은 대학생, 여론 지도층, 군인, 민주평통 자문위원, 민족 통일협의회 회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류우익 장관은 대학생, 청소년과 같은 통일 세대에 대한 류통준에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류통준이 시작된 것도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 약화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류우익 장관은 2012년 6월 19일 영남대 류통준에서 “우리 통일부에서 통일 의식에 관한 조사를 해보니 우리 국민의 70~80%가 통일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의 국민들은 통일이 꼭 돼야 하는지 모르겠고 또 통일이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대학생들이 통일을 의심하거나 또는 통일이 될 가능성을 회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통일의 주역이 돼서 통일을 해내야 할 세대가 어떡하다가 다른 세대들보다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일 수 있는가? 이러한 놀라움으로, 장관실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내가 가서 말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강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육해공 각 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생도들이 모두 강연을 듣게 된 것입니다. 초급장교들이 확고한 통일안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류우익 장관의 신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초급 지휘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해군사관학교에 갔을 때에는 강연에 몰두하여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는 바람에 돌아오는 기차를 놓치게 되

어 밀양을 거쳐서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육사 교관 시절 1년 동안 경북 영천의 3사관학교에 파견되어 3사관학교의 초급대학 인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3사관학교 류통준 때에는 류우익 장관이 젊은 시절 3사관학교를 위해 아침마다 커피를 쏟을 만큼 열정적으로 일한 경험을 들은 생도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류통준은 전국 방방곡곡 순회 강연회 방식을 택했습니다. 서울과 영호남, 제주, 충청, 강원까지 류우익 장관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류통준의 진행은 강연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토크쇼를 하거나,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지만 류우익 장관은 줄기차게 전통적인 강연 방식을 고집하였습니다. “강의라는 것이 지루한 방법일 수 있지만 잘만 하면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 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류우익 장관의 소신이었습니다. “시의성 있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했습니다.

류통준 강연은 청중들이 절대 줄 수 없게 만드는 도입부로 시작됩니다. 강연자와 청중들의 벽이 허물어지고 강연자는 청중들에게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가갑니다.

부산에 갔을 때입니다. “부산은 우리 세계화의 최전선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사는 꿈같은 곳입니다. 제가 1975년에 결혼을 했는데 금년까지 외국에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봄이 오기 전에 부산에 왔습니다. 한 번도 뻥 적이 없습니다. 2월에 부산에 와서 봄기운을 맞이하고 가면 3월부터 운수가 잘 풀려갑니다.” 이 정도 했는데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장관이 부산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냐 그러거든, 통일이 되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곳이 부산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말 믿어도 됩니다. 제가 서울대학에서 지리학만 30년을 가르쳤거든요. 본래 부산항의 배후지는 한반도 전체와 지금 중국의 동북 지역이라고 부르는 만주 지역을 다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우리 동북아시아 최대의 항구이고 최대의 배후지를 갖는 최고의 항구입니다. 그런 큰 항구의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오늘 부산이 한반도의 반쪽만 가지고 이만큼 견디고 있는 것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본래 부산이 가져야 했던 만큼의 큰 배후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때 부산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항구가 될 것입니다.” 재치 있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로 땅 사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봐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강연의 정점은 왜 통일해야 하느냐, 왜 지금 통일을 준비해야 하느냐, 왜 내가 해야 하느냐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통일 항아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류우익 장관은 ‘통일 세대’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지금의 젊은 세대라는 의미와 함께 지금 젊은 세대들이 꼭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절실한 기대를 젊은 세대가 이루어주기를 바랐기에 통일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호리명탕한 생각’에 빠져 있다, ‘안이하고 허황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다소 격한 표현까지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흐려져 가는 통일 의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깨움이자, 통일에 대한 간절한 희망의 표명이며, 젊은 통일 세대에 대한 강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통일 세대의 입장에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인식이 부족하기에 통일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연에서든지 우리가, 한국인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60번째 류통준이었던 중앙경찰학교 특강에서는 그동안 제시하였던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집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갈 우리 민족이 그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일하면 여러분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블루오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통일이 도탄에 빠진 북한 동포들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통일만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안전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류우익 장관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다섯 가지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필코 도달해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지향이기도 합니다. 류우익 장관은 비단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서 도전하지 않는 젊은 이들을 일깨우고, 꿈을 가지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도전하라고 격려했습

니다.

류우익 장관이 류통준을 진행할 때마다 통일부 직원들도 항상 같이 했습니다. 보통은 같은 주제로 반복되는 강연에 지루해질 법도 하지만, 언제 들어도 항상 안일해진 정신이 번쩍 들게 내리치는 죽비처럼 들렸으며,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가슴 뭉클한 교훈을 느꼈다는 것이 함께 한 직원들의 한결같은 소회였습니다. 통일부는 평화로운 분단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를 발신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류우익 장관의 신념은 통일부 직원 모두에게 아로새겨졌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현 정세를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로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폭과 범위가 커질수록 통일의 기회가 가까이 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 그 어떤 나라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nification과 initiative의 합성어인 Unitiative란 말은 이런 취지에서 류우익 장관이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류우익 장관의 강연은 대부분 2012년 2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 들은 바이체커 전 독일 연방 대통령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독일 국민보다 통일 준비를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라는 마지막 멘트로 끝이 납니다.

에피소드 하나 소개합니다. 2012년 4월, 북한이 한창 대남 위협을 가중시킬 때 통일부장관에게 경호관이 따라 붙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경호관들이 행사장을 감시하다가 3~4차례 류우익 장관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에 크게 공감하여 장관 경호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받은 격려금을 모두 통일 항아리에 넣고 갔습니다.

류우익 장관의 퇴임으로 통일부 차원의 류통준은 끝났지만, 통일을 이를 그날까지 류통준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류통준의 수혜자들과 통일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김통준, 이통준, 박통준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반 세기 이상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 온 분단 질서를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통일을 축복 속에 맞이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류통준 일정

일련 번호	일시	장소	주요내용	인원
1	2011.11.4.	미국 뉴욕	뉴욕 평통 자문위원 정책설명회	90
2	2011.11.17.	롯데호텔	한국-독일 정책자문위원회 기초연설	120
3	2012.1.17.	조선호텔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 강연	40
4	2012.1.31.	AW컨벤션센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과의 대화	60
5	2012.2.1.	세종문화회관	민화협 조찬 특강	150
6	2012.2.20.	정부서울청사	재외공관장회의 특강	118
7	2012.2.24.	독일 키일대학	독일 키일대학 강연	250
8	2012.2.28.	독일 외교협회	독일 외교협회 강연	80
9	2012.3.2.	남북회담본부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특강	39
10	2012.3.8.	프라자호텔	매일경제 포럼 기초강연	30
11	2012.3.9.	렉싱턴호텔	헌정회 강연	200
12	2012.3.15.	대전시청	대전 지역 통일 공감 강연회	400
13	2012.3.15.	청주대	청주대 특강	500
14	2012.3.16.	프레지던트호텔	재외 동포 언론인 강연	60
15	2012.3.23.	울산대	울산대 특강	150
16	2012.3.23.	부산시청	부산 지역 통일 공감 강연회	1,100
17	2012.3.28.	전북대	전북대 특강	200
18	2012.4.17.	프라자호텔	주한 외교사절 정책설명회	70
19	2012.4.26.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 클럽 강연	20

20	2012.4.30.	그랜드힐튼호텔	민주평통 강연	750
21	2012.5.8.	쉐라톤워커히호텔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강연	830
22	2012.5.24.	SETEC	여성가족부 주최 1020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 강연	300
23	2012.5.25.	고려대	동아시아 공동체 포럼 기조연설	40
24	2012.5.25.	순천시청	전남 지역 민주평통 강연	1,200
25	2012.5.30.	쉐라톤워커히호텔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강연	460
26	2012.5.31.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강연	300
27	2012.6.11.	육군사관학교	무궁화 회의 강연	90
28	2012.6.13.	강원대	강원대 특강	270
29	2012.6.18.	프라자호텔	전직 장성 대상 강연	54
30	2012.6.19.	영남대	영남대 특강	300
31	2012.6.19.	대구	대구 지역 민주평통 강연	350
32	2012.6.21.	로얄호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	80
33	2012.6.22.	마산MBC홀	경남 통일 교육 관계자 강연	1,200
34	2012.6.28.	쉐라톤워커히호텔	해외 한인 강연	340
35	2012.6.29.	부산 벅스코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강연	2,000
36	2012.7.3.	건설회관	나라미래준비모임 강연	150
37	2012.7.6.	경호처	대통령실 경호처 강연	150
38	2012.7.12.	통일교육원	통일 향아리 토크 콘서트	350
39	2012.7.23.	제주 갈호텔	제주 지역 민주평통 강연	120
40	2012.7.24.	제주 롯데호텔	21세기 경영인 클럽 강연	50

일련 번호	일시	장소	주제	인원수
41	2012.7.26.	송도 라마다호텔	인천경영포럼 강연	150
42	2012.9.13.	남북회담본부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특강	30
43	2012.9.14.	국방대학교	국방대 안보 과정 특강	210
44	2012.9.25.	워커히호텔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강연	450
45	2012.10.4.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습 사무관 대상 강연	320
46	2012.10.18.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특강	1,330
47	2012.10.22.	롯데호텔	세계경제연구원 기초연설	150
48	2012.10.30.	중국 북경대	북경대 특강	200
49	2012.10.30.	중국 베이징	한반도 국제포럼 기초연설	100
50	2012.11.7.	계명대	계명대 특강	350
51	2012.11.8.	이화여대	이화여대 특강	200
52	2012.11.15.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강연	160
53	2012.11.20.	충남대	충남대 특강	180
54	2012.11.21.	육군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특강	1,000
55	2012.11.26.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특강	500
56	2012.12.7.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특강	1,561
57	2012.12.12.	농협	농협 임직원 특강	160
58	2012.12.26.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OUN 테마 특강	200
59	2013.1.24.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임직원 강연	350
60	2013.2.4.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 특강	550
61	2013.2.7.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특강	800
62	2013.2.18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정영포럼 강연	120
	계			22,132

독일외교협회 강연

일시 : 2012. 2. 28(화)

장소 : 독일외교협회(DGAP)

대상 : 독일외교협회

주제 : 한국, 분단이나 통일이냐(Korea, geteilt oder wiedervereinigt?)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영예스런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저에게 한국의 통일 정책을 말씀드릴 소중한 기회를 주신 '독일외교협회' 측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른 아침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일 간의 독일 체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독일 외교를 이끌고 계신 분들께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함께 한국의 통일정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대'입니다. 문명사의 변혁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길을 선택하기를 강요 받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래로의 선택 앞에서 너나 없이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 질서 변혁의 시기에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은 더욱 절박하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매우 어렵고 국제 사회의 제재는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나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가 권력을 승계하였습니다. 변화를 향해 북한이 받는 압박과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불

안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북한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고 도발을 야기해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고립과 빈곤일 것입니다. 북한은 폐쇄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구태에 머무른다면 이는 북한 자신에게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핵개발과 무력 도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닫힌 문을 열고 세계와 교류 협력하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역사는 중동의 봄을 통해 민심이 움직이면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해서 변화에 나서면 기꺼이 같이 나서서 세계를 설득하고 함께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계와 함께 우리가 보고 싶은 북한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전복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상생 공영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화 통일의 길을 일구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북한이 상황을 이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할 차례에서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과 강경 자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취임 후 정책의 기초를 지키는 토대 위에서 다양한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 부문의 교류를 열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재개했습니다. 최근에는 고구려 고분군 주변의 소나무 병충해 방제를 지원하겠다고 제의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사 실무회담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으로부터는 아직 긍정적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남 비방과 중상을 늘리고 부적절한 선전 선동으로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있습니다. 딱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마냥 시간을 허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늦기 전에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오판하여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을 위한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시기에 서 있다고 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택입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진화와 통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처럼 통일 이후에 민주주의와 세계 경제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실질적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독일 통일이 한국에게 준 많은 교훈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하나는 분단국은 분단 상황의 관리에 머무르지 말고 형편이 닿는 대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비용을 줄이고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이 중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교류 협력을 분단 관리와 통일 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통일 후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일이 때

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통일 향아리’로 이름 붙인 이 계정이 마련되면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자발적인 통일 기부금이 모금될 것입니다. 잠정적인 목표는 향후 20년 동안 50 billion US dollar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 입각한 것이지만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20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후 첫 일 년 동안에 추가로 들어갈 재정 부담이 최소한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예측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금 활동은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을 상대로 한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으로 추진될 것이고 기업이나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벌였던 ‘금모으기 운동’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나의 관심은 통일 향아리에 모아질 돈의 액수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열망의 뜨거움에 있습니다. 즉 통일 의지가 결집되고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 통일에 상당히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통일 향아리가 국내외 한국인들이 스스로 통일 의지를 확인하고 고양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성 세대가 통일 비용의 부담을 나누어지겠다고 함으로써 통일 시대를 책임질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주변국 사람들도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의 주도적 의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의 통일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유수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 돈이 대부분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재건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도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혼란스러운 선거 분위기에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초별구가 통일 향아리가 잘 구워져 빛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아름다운 통일 향아리를 들고 세계를 돌아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를린에도 다시 찾아오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독일외교협회의 발전과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 정책 최고위 과정 강연

일시 : 2012. 3. 2(금)

장소 : 남북회담본부

대상 : 통일 정책 최고위 과정 CEO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 통일 정책 최고위 과정에 1기로 입교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둘러 보니까 저하고 자리를 바꿔 앉으면 좋을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강의를 받기보다는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책상 여러분께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 좀 마땅치 않더라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자문을 해봅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정말 꼭 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이 일을 안 해도 괜찮을 일 같으면 안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옆에 딴 장관이 하거나, 실장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어딘가 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남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빠득 빠득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다음에 하면 안 되느냐, 이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을 지금 꼭 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는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꼭 내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대학 총장님이나 기업 CEO, 연구소 소장, 언론계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학생을 꼭 해야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예스'라고 할만하다. 학생의 입장이 돼서 앉는 것이 좀 궁색스럽기는 하나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지도자이신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앉아서 함께 듣고 토론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의 생각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수해 가면서 확인을 하시겠고, 이 과정이 끝날 때쯤은 '그렇다, 이게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다음에라도 오라고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기가 아주 막중하고 또 그런 막중한 시기에 정부 의사결정이나 또는 국민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생각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공유한 생각을 서로 안팎으로 드러내서 그 생각이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에는 사실은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앞장을 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의 의미를 우리가 과소평가한 채 또는 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놓쳐버리는 수가 있고,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막중한 시기에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거나 필요하다면 바꾸어 놓거나 또 필요하다면 가속하거나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시기를 그렇게 보는가?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의미와 그 장소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한반도에 살고 있고, 또 거기서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면 여러분이나 저나 특정한 존재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기본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판이 옛날에는 전쟁으로 흔들리곤 했는데 지금은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이나 그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유럽에서 총소리 없이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외부 세계가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던 중동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제학자들과 경제인들이 모인 포럼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를 진단하는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진단을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을 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는데 제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류 교수도 한 마디 하지 그러냐 해서, 무식이 장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그 자체, 금융 그 자체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발생시키는 이유 또는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금융에서 제일 먼저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생활 여러 부문 중에서 금융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터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은 재정으로 가고 재정은 실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실물은 정치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한 말은 어떤 책에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여다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문명의 판이 흔들리면서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특히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큰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는 전체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구조 자체에도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상당히 증대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포럼과 다이얼로그와 심포지엄과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도 정확한 답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곳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100%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국가 지도자들도 G7, G8, G20 그리고 이런저런 정상회의를 해보지만 그렇게 뾰족한 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데 합의만 할 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어떻게 협력하자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이고 특히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변화의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격이 높은 국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해외에 나가보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는 과거에 일찍이 누리보지 못했던 그런 높은 지위입니다.

국민은 생활의 이런저런 면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아직 대단히 부족하다고 비판을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무력 도발을 하고 민생 경제는 피폐해 있는데 지도자가 사망해서 새로운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에서의 남북한 위상의 격차와 또 당면한 문제의 차이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북한의 불확실성은 가까운 장래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질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상태로 판의 흔들림이 종결될지,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맞고 있는데, 이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분단 관리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떻게 남북한 간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게 하느냐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노력은 성공적이긴 하나 계속 가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분단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분단은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게 살고 있다, 이것을 흔드는 것은, 분단 상황에 무슨 변화가 오는 것은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어려움에 적응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를 갖지 않게 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예는 자신에게 채워진 족쇄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계속 살면 그런대로 살만 하고, 나중에는 족쇄가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불안해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분단은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족쇄가 분명하다, 여러 가지 삶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삶을 왜곡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발전의 장애가 되게 한다, 통일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는 해야 하는데 우선은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분단에 익숙해 가는 게 아니냐, 분단 상황에서 살만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냐, 나중에는 이거 분단이 없어지면 우리 괜찮은거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과 같은 유동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통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몇 사람이 모이면 특히 북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마지막에 헤어질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확인한 것은 60년 동안 불러봤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통일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논의가 적어서, 노래를 적게 불러서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이 된 뒤로 국내외에서 사람들 만나면 중국이 한국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당신은 대사도 했으니 잘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은 통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통일부장관의 일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일이 아니라, 중국의 일이거나 미국의 일이 아니냐 생각할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두 시정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일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주기를 기다려봐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통일이 옳은 통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남의 손에 열쇠를 맡겨 놓은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남과 북이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열쇠를 꺼내들고 이거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딴 소리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통일 어떻게 되는거지, 이진참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통일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걸 확인시켜야겠는데 말로 확인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변화의 물결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 후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으로 위협도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이러면서 체제를 유지해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은 뭔가. 국제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나설 공리를 하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보살필 공리를 하고 그리고 도발 보다는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체제의 유지를 넘어서 발전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야 남북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 선택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 매일의 아젠다만 따라다니면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젠다를 따라다니면 어느 날 한국은 갈 길을 놓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의 역할, 중국의 역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면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늦은 주변국들도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좇아서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역사에 뒤처지거나 역사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갈 길을, 선택을,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선택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우리가 주변국과 당당하게 의논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족쇄가 되어있는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백한 과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단 관리에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듣기에는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역사에 추월당하고 만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2012년도 정책 목표를 능동적 통일정책이라고 정했습니다. 뭔가 한 발 앞에서 내다보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봉하거나 또는 피해가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몇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긴장이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상생 공영을 위해서든 그리고 궁극적 통일을 위해서든 남북 간에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간 대화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화채널은 상황에 따라 닫았다, 열었다, 부셨다, 다시 붙였다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대화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통일정책은 거기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이러한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보자, 대화만으로 모든 것이 되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통일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해서 이른바 유연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유엔을 통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예술·종교 분야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도 생산 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하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과를 냈으면 좋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할 때 북쪽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해서 상황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치·비군사적인, 인도적인 그런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신뢰를 축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얼마 전에 고구려 고분군 주위의 소나무숲에 병충해 방제하는 것을 지원해 보겠다 제안을 했고 뒤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일전에 비핵화 사전 조치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해서 북미회담이 열렸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남북회담과 6자회담을 시계열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 마치 이 두 관계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굴러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퀴 하나가 굴러가면 다른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고 둘이 같이 굴렀다가 어느 쪽이 걸리면 다른 쪽이 안 굴러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6자회담의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면 남북회담 쪽에도 가능한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또 물론 그 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북측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에 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거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안 오느냐

하면 이 정부가 친절하지 못하고 이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관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책임하나 하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북한은 그렇게 1, 2년 적당히 기다려도 될 만큼 느긋한 상황이 아닙니다. 또 남북 간에도 상호간에 대화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가야지, 적당한 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런 것은 아주 무책임한 생각이다, 그리고 1년이 남았는데 뭘 하겠느냐 하는데 100년도 1년이 100번 모여서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전날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1년은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같이 지도자가 바뀌고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국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형편에서 1년은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공연히 허비할 게 아니라 남북 간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 가면 그 고통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중국이 도와주니까 미국이 영양 지원 한다니까 굳이 한국에 그럴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희생시켜 낼 수 있는 봄을 일으킬 수 있는 측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 부르던 상황에서 경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을 위해서라면, 같은 민족을 위해서라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한국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할 돈의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 개방을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것도 우리 기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홍콩 자본, 싱가포르 자본도 망설일 때 뛰어 들어가서 승부를 걸었던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하물며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서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 한국 기업이 그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도와준다는 것은 중국과의 호혜적인 입장 또한 동맹국으로 북한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주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뒤지고 산업화·경제화에 뒤진 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씩 원조를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해나가야 합니다. 한국만이 의지와 돈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북한 지도부는 선택을 잘못하는 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1년 뒤면 어떻고, 5년 뒤면 어떠냐? 세상이 가만히 있어주지 않고요, 이미 두 세대 뒤졌다면 세 세대, 네 세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에 나설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를 흔들어서 정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선택을 한다면 관민이 나서서 돕고 나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이웃나라들과 함께 설득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 뭘 하느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일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분단 이재민들, 그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이 사회에 와서 건강하게 뿌리내리도록 도와줘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통일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근년에 1년에 2,500에서 3,0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계로 23,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납북자 가족들과 국군 포로 가족들도 포함해서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가 포용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통일의 희망을 크게 하고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통일의 작은 열쇠를 쥐고 있는 이웃 나라 주변국과의 '통일 외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공조를 다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 중요한 메시지는 통일 한국이 당신들에게 이롭다, 절대로 해롭지 않다, 통일 한국은 한국민들에게만 도움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과 공동의 번영이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통일 항아리’를 만들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통일이 되고 나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비축하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얻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은 이 계정에 돈을 넣으면서 통일 염원, 의지를 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금융 위기를 맞아서 IMF 극복 할 때 국민의 금모으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돈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때 열화와 같았던 국민의 의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돈을 낸다면 모이는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국민의 통일 의지가 결집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통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웃 나라는 한국인의 통일 의지를 확인할 겁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통일 부담을 나누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 국민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성을 쏟았느냐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앞으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 속의 아픈 돈을 댄으로써 행동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은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강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의지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외에 대단한 호응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경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S&P, Fitch 같은 경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바이체크 전 독일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깐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준비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에 국토 및 안보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저보고 ‘아, 희망을 주는 일이다,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했고, 중국의 고위 관료는

‘당신의 열정이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하늘을 감동시키기 전에 중국을 좀 감동시키고 싶다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런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어서 정신 없는 면이 있지만 국회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시의성을 보고 이 법안을 18대 국회 안에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가 이 시대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통일 의지가 결집되는 그걸 통해서 국론 통합되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의 스케치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민주평통 부산 지역 통일 공감 강연

일시 : 2012. 3. 23(금) 15:00

장소 : 부산시청

대상 : 부산지역 민주평통 회원

존경하는 평통 자문회의 회원, 자문위원 여러분 부산에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제가 장관 취임하고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부산 오고 싶어서 몸살이 났습니다. 드디어 평통 자문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나도 좀 끼워달라고 우리 남성욱 처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부산은 우리 세계화의 최전선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사는 꿈같은 곳입니다. 제가 '7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금년까지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봄이 오기 전에 부산에 왔습니다. 한 번도 뺨 적이 없습니다.

2월에 부산에 와서 봄 기운을 맞이하고 가면 3월부터 운수가 잘 풀려갑니다. 제가 부산에 한 며칠 다녀가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는데 부산에 사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통일부장관이 부산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거든 통일이 되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곳이 부산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말 믿어도 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만 30년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세계지리학회 175개국의 지리학회를 이끄는 수장 노릇을 6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항구가 있으면 그 항구의 배후에는 물자를 집산시키는 배후지가 있습니다. 본래 부산항의 배후지는 한반도 전체와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동북지역이라고 부르는 만주 지역을 다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우리 동북아시아 최대의 항구이고 최대의 배후지를 갖는 최고의 항구입니다.

그런 큰 항구의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오늘 부산이 한반도 그것의 반쪽만 가지고 이만큼 견디고 있는 것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본래 부산이 가져야 했던 만큼의 큰 배후지를 확보하게 될 거고 그때 부산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항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로 땅 사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봐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긴장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이른바 유연성을 좀 발휘해 보겠다 해서 유연화 조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제 이름을 ‘류연성’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이 ‘Welcome, Mr. Flexibility, 유연성 장관 어서 오시오’ 이렇게 얘길 합니다. 이 높은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북한의 취약 계층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은 재개해야 되겠다 해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열었습니다. 민간만 하느냐 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다시 재개했습니다.

‘남북 교류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교류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최소한의 문화적 동질성은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종교, 예술, 문화 부문의 교류를 다

시 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불편한 게 있다고 해서 병원도 짓고, 소방서도 짓고, 축구장도 만들고, 그리고 공단과 개성시를 잇는 도로도 포장하기로 해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단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을 아주 튼튼하고 좋은 도로로 포장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우리 도로보다 더 좋은 도로라고 할 만큼의 도로로 포장하고 있다고 얘길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유연화 조치를 취하는 동안 ‘혹시 이러다가 원칙도 팽개치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대북정책에서 지키고 있는 원칙은 확고히 지키면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남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7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독재국가가 최고 지도자를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도 남북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 해서 지금도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는 계속 하고 있어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긴장이 고조될 때도 있고 또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못 먹어서 출산도 잘 못하고 태어난 아기가 잘 크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민간단체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대화를 해보자, ‘대화의 창구를 열고 그것을 유지시켜가는 것이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고구려 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큰 무덤이예요. 그게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그 주위에 소나무들이 병충해가 들어서 자꾸 죽어간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좀 방재하는 걸 도와줄

테니 실무자끼리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나무 죽는 거 고치는 데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우리 소나무가 많이 죽은 적이 있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실무자들이 그걸 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이거 뭐 겨울이라고 잘 안 번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 빨리 가서 소나무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산가족들이 남북한 사이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통일부에 신청한 건만 해도 13만 건이에요. 13만 가족이죠. 그 사이에 5만의 이산가족 신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언제 헤어졌는데, 그때 연세가 얼마인데 생각하면 해마다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지금 8만이 좀 안 되는 이산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어느 날 국토가 분단되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가 생이별을 하고 60여 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만난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남은 이들은 80세가 넘는 노인이 절반입니다. 이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혈육 한번이라도 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적십자사 총재하고 얘길 해서 정치고 군사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인륜지도(人倫之道)다, 만나게 하자, 사람이 어떻게 부모자식을 갈라놓고 부부를 갈라놓고 무슨 정치를 하는 거냐? 이거 만나게 하는 게 옳다’해서 실무접촉 제안을 또 했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지도자를 잃고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최소한 형편이 되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사람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호응해 오기를 지금도 우리 정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이 행여 왔다가 문 잠겼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실향민의 많은 분들이 저녁에 대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올까봐. 왔다가 그냥 갈까봐. 정부도 그런 심정으로 대문을 열어 놓고 응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느닷없이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왜 앞뒤가 맞질 않는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쏠 정신이 있으면 오늘날 내일만 하는 노인들부터 만나게 해야지요. 그 정도 정신이 있으면, 또 그럴 돈이 있으면 먹고 살지 못해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탈북자부터 보살펴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이 0도, 영상 몇 도 할 때, 압록강·두만강가는 영하 20도를 내려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하 20도의 추위에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낙들이 아이를 안고 그 아이라도 먹이려고 그러고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강을 건너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모셔서 초기 교육을 하는 ‘하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길 찾아갔어요. 가서 아무런 사전 약속 없이 몇 분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허리가 약간 굽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40대 초의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고 ‘아이고 장관님 장관이면 부장인데 내가 부장님 손을 잡아보다니…’ 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뭐 부장이 별거냐’며 ‘다 사람이고 다 같이 일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냐?’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경도 어디에 살았는데 근 10년을 친정을 못 가서 늘 궁금하고 그러던 차에 아이를 외가에 가서 외할아버지한테 보여줘야겠다, 외손자가 나왔는데 보여주지도 못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찾아간 겁니다. 결혼하고 근 10년이 되어서. 찾아갔는데 가 보니까 집이 폐가예요, 폐가. 폐가 뭔지 아시죠? 사람 안 살고 무너진 집. 이웃집에 가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습니까?’ 이웃집 사람 말이 ‘굶어 죽어서 산에 갔다 묻었다,’ ‘어디다 갔다 묻었냐?’ 해서 애를 데리고 산에 가서 봤더니 온전하게 묻었겠습니까? 적당히 묻은 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데 가서 실컷 울고 일어서서 돌아오는데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을 굶고 두만강을 건넜다’ 이렇게 애길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 대륙을 헤매던 끝에 여러 달을 보내고 몇 년이 걸려서 돌고 돌아서 그분 말대로 제2의 조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장관

을 만난 겁니다. 이가 다 빠졌어요, 이가 없어. 영양실조 상태에서 출산을 하느라고 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져 버린 거예요. 이가 없이 이것저것 풀뿌리고 뭐고 먹다 보니까 위장이 다 상한 거예요. 위염이 극도로 진행된 거예요. 먹어도 소화가 안돼.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이제 이를 치료해서 해 넣어주고, 위장을 고쳐주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전화는 이렇게 건다, 이런 거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을 가르쳐서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취직시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보살핍니다.

저는 이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다가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우린 뭘 그렇게 잘해서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일 뿐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40대 초에 이미 이가 다 빠지고 허리가 굽고 남편도 버리고 이웃도 다 버리고 정말로 낯선 조국으로 제2의 조국으로 와서 서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 좀 벌어서 따뜻한 방에 살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또 이런저런 못마땅한 일도 있고 해서 짜증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 자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포인 우리 한 핏줄인 북한 주민들, 특히 탈북해서 살 길을 찾아서 온 사람들을 외면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 예산의 60%가 이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북한이탈주민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만나거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시지 마시고 말소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힐끗힐끗 쳐다보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되고 60여 년이 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을 달래가면서 살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주민들을 버려두고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을 쏘아 올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데 드는 돈이면, 어떤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는데 옥수수 250만 톤을 산다는 겁니다. 쌀로 치면 140만 톤을 산다는 거예요. 북한이 2006년, 2009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쏘아올리면 매 3년마다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짓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 만큼인가? 북한에 부족한 양식을 다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북한에 연간 부족한 식량이 칠팔십만 톤입니다. 삼년이면 이백만 톤이 조금 넘어요. 이 돈이면 그 미사일 한방 쏘는 돈이면, 이번에 이거 안 했으면, 옥수수 250만 톤이 생긴다니까요.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된다, 다른 어떤 명분으로도 백성을 굶겨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분단 관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 보고 좀 변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정책을 ‘분단 관리’를 넘어서 ‘통일 준비’를 하는 것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통일 준비해야 되겠다.’ 폰바이체크 전 독일 대통령을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만나 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한국 국민이 통일 준비에 함께 나선다면 한국 통일은 순풍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에 나서게 맞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나서서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노래를 부르면 되는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60년 간 불러봤는데 통일이 안 오더라고요. 그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가만 나면 불러 봤거든요. 축구장에서든 부르르고,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부르르고, KBS 만남의 광장에서도 부르르고 계속 불렀는데도 통일이 안 와요. 그리고 학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잡지도 만들고, 그런데 통일이 안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통일이 소원이라고, 그런데도 통일이 안돼요. 통일은 말로 하거나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역대 대통령들 통일 휘호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만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양아들을 부르더니 ‘요새 서울에서는 누가 통일 일을 좀 하느냐?’ 그래서 아들이 거 뭐 이런저런, 아무 생각 없이 느닷없이 받은 질문이라 그렇다고 안한다고 하면 어른이 화를 낼 거고 해서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이 통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길 하니까 언성을 높여서 그러셨대요. ‘통일은 그거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한다고 통일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라고 해라. 그리고 잘될 거라는 말 자꾸 하지 마라.’ 이리시더라는 거예요. 노 대통령께서 남기시고 간 우리 통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자꾸 그러지 마라,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다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에서는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행동하기로. 첫째는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화해서 잘 살게 해주자. 북한이탈주민들, 2만 3천 명이 됐습니다 이제. 매년 2천 5백 내지 3천 명이 자유 대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만 3천 명에 이르러 하나원이 부족해서 하나원 분원을 지었습니다. 하나원 분원이 가득 차서 제2하나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지 못해서 또 다른 조국으로 넘어온 이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건강한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통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이 다 해야 하는데 제가 다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주위를 좀 살펴봐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끌어안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국경

을 넘어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야 어떻게 통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자. 지난 연말에 설에 장·차관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설 쇠는데 찾아갔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합니다. 어떤 주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고맙다는 말을 저는 남조선 와서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 몰랐습니다.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통일을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국들을 설득하러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하려고 한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통일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해 나서기로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당신네 나라에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득이 되면 됐지. 결코 해롭지 않다. 우리는 5,000년 역사를 두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5,000년 역사를 두고 한 번도 남의 나라에 가서 물건을 훔쳐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오면 극진으로 대접해서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고, G20도 했고, 이제 핵안보정상회의도 한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롭게 하는 일이면 뭐든지 찬성한다.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는 일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한다. 그러니 믿어라.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설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저는 ‘통일 외교’라고 부릅니다. 통일 외교를 하기로 했어요.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일본 갑니다. 일본 가서도 얘기하려고 해요. 통일하려고 하는데 돕고 나서라. 통일의 열쇠는 남북한 한국인들이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작동하게 하는 보조 열쇠는 이웃 나라들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열쇠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외교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통일 비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독일 통일이 되는 걸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철도에 기차가 제대로 가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기차가 제대로 달러 가지 못합니다. 우리 KTX가 시속 삼백 몇 십 km 달리지만 북한에서 시속 40km를 제대로 달리는 기차가 없어요. 제대로 달리게 하려면 돈 들어가죠. 항구에 배 들어가려면 돈 들어가죠. 학교 지어야지, 병원 지어야지, 공장 지어야지, 다 돈 들어가요. 남북한에 이렇게 저렇게 맞출 것도 있지, 다 돈 들어가요. 북한이 남한과 다른 것을 다 극복하고 북한이 뒤떨어진 것을 극복하려면 다 돈이에요.

독일 통일할 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이게 온 세상에 과장이 됐어요. ‘통일 무지하게 비싸다. 한국 통일 잘못하면 죽는다.’ 제가 며칠 전에 독일 갔다 왔거든요. 20년이 됐는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전 유럽 경제의 사분의 일을 독일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럽에 그리스, 이태리 등등에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가 한 군데밖에 쳐다보는 데가 없어요. 독일 총리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어요. 생사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난리 중에도 독일이 작년에 3% 경제 성장을 했어요. 통일 비용을 놓고 한국이 통일 하면 큰일난다는 사람들 통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예요, 아니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돈이 들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드는데 뇌똥다가 우리 자식들 세대에 통일이 될 거 같은데 자식들 그냥 바가지 쓰도록 놔두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면 될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일도 많이 했고, 오버타임하고, 특근하고,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좀 해라’ 뇌똥도 됩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래요? 저 아이들이 다 바가지 쓸 텐데, 우리가 있는 거 조금씩 모아서 준비를 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기성 세대 부모 보고 불평하는 거 이해한다.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못 놀아주고 너희들 고민 다 들어주지 못하고 너희들 희망 함께 의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죽기 살기로 일했다. 너무 바빠서 너희들 잠들었을 때 나가고 잠들었을 때 돌아왔다. 그러느라 못했다. 이해 좀 해주면 안되겠냐?’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 생각엔 말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자식세대들 위해서 그래도 기성 세대가 욕을 먹긴 하지만 돈을 조금씩 모아나가야 되겠다, 자식세대가 바가지 쓰면 안되니까.

모은 돈을 보여주면서 이만큼 해서 넘겨주니, ‘너희도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가 하다가 다 못하거나 통일했는데 돈이 모자라면 너희 아들·딸 보고 그래라. 이거 할아버지 대부터 해오던 일인데 너희가 마무리 지어라, 그래도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한 법적인 계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정부의 다른 부처들과 의논을 해서 국회에 법안을 갖다 냈어요. ‘이 법을 좀 만들어 주시오.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서 통일 재원으로 할 수 있게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오.’ 갖다 냈는데 이 분들이 딴 일에 바빠서 쳐다보지도 않아. 속은 타지만 그 사람들 속이 내 속보다 더 탈 테니까 기다려보자. 기다렸다가 20일 있으면 선거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국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안 좀 통과시켜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시거든, 선거 끝나고 가거든 ‘통일부장관이 하는 법안 좀 통과시켜주라’ 얘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계정이 만들어지면 법적인 계정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법에 의하지 않고는 손을 못 대는 계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국민 각자가 세금 낸 돈으로 아픈 땀 흘려 번 돈으로 형편껏 넣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저 같은 월급쟁이는 조금 내고, 사업하는 분들은 조금 더 내고 이렇게 시작해서 모으기 시작하면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 모으는 계정을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통일 향아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향아리에는 온 국민이 국내외에서 조금씩 넣는 돈이 모여 갈 겁니다. 돈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모입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염원, 통일을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 통일을 향한 열정, 이것이 향아리에 모입니다. 천만 명이 모이고 이천만 명이 모이고 삼천만 명의 통일 의지가 모이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의지를 굳게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한국인들이 진짜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되면 탄 소리 안하는 거죠. 삼천만이 돈을 냈다는데 어떻게 탄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통일의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곧 구워집니다. 제가 초벌은 잘 구워놨어요. 제대로 굽기만 하면 좋은 항아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통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주면 이 항아리는 단단해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자명한 겁니다. 평통 자문위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누가 하겠어요? 평통에서 해야지.

저 뒤에서 따라서 박수친 분들 큰 약속한 겁니다. 평통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앞장서요? 통일 되면 제일 득 많이 보는 부산 지역 평통 자문위원들이 앞장서야 돼. 그 부탁을 하려고 제가 부산 오고 싶어서 안달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봄비도 내리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봄이 와 있을 겁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그 추위를 견디고 나면 이렇게 비 한번 오고 나면 봄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퐁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머지않은 때에 봄비가 올 것이고, 봄비 다음에 축복처럼 통일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부산 지역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정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 통일 준비에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음에 통일부장관이 통일 항아리 메고 오거든 같이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 강연

일시 : 2012. 5. 24(목) 16:00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

대상 : 청소년 300여 명



장 관 :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자 : 장관님의 청소년 시절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장 관 : 나는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많은 경험은 없었지만 부모님, 선생님들, 이웃 어른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선생님께 불러가서 환경 미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때 유엔 사무총장이 비행기를 타고 불 타는 증동으로 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환갑이 되었을 때 호주 브리스번에서 내가 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총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유엔 사무총장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와 번영에 대해 논의하는 사무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꿈이 가슴 속에 있을 때 삶이 윤택해집니다. 지금 꿈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속에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슴 속에 넣어놓고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 바랍니다.

사회자 : 장관님께서 여러분께 ‘통일 한반도의 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하셨습니다.

장 관 : 나는 장관이 되기 전 서울대학에서 30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나는 강의를 제법 잘합니다. 졸지 말고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 조금 불공평합니다. 여러분은 티셔츠를 입고 있고, 나는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풀려고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낼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는 무엇입니까? 태평양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은 무엇입니까? 아시아 대륙입니다. 태평양과 아시아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캄차카 반도에서 내려와서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 연안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로 해서 저 아래 호주까지 내려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와 제일 큰 대륙이 만나는 땅이 최고의 땅입니다. 인류 문명의 무대는 대륙이거나 또는 바다입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이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가장 좋은 땅입니다. 제일 좋은 땅이 너무 길어서, 캄차카 반도에서 호주까지 쪽 놓았을 때 온대지역인 한국, 일본, 중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일본은 걸어서 대륙으로 갈 수 없습니다. 중국은 저 안 내륙은 사막이고 고산지대입니다. 바다에 면한 면이 전체 국토에서 작습니다. 아시아에서 대륙과 해양을 제일 잘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땅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인류는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동쪽으로, 동쪽으로 더 살기 좋은 땅을 향해 끝까지 간 사람들, 모래 바람을 뚫고 사자의 밤이 되지 않고, 풍토병도 걸러가면서 끊임없이 이상을 찾아 동으로, 동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보니 바다였습니다. 너무나 큰 바다였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기후도 좋고 살 만한 땅에, 많은 그의 동료들이 이만하면 살만하다 중간에서 주저 앉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의 피가 여러분들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참고 극복하고 쉽 없이 가는 그 피가 말입니다.

그 땅이 1,400년 동안 통일된 나라로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20세기까지 계속해서 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민지를 거쳐 해방될 때 분단된 것입니다. 이제 한 70년 가까이 분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 사람들은 걸어서 대륙에 갈 수 없습니다. 일본과 같은 섬이 되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분단은 그래서 족쇄입니다. 이 좋은 땅, 우리 조상이 100만 년 전에 걸어서 횡단한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바다로 나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훨씬 잘 살아야 하고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고 훨씬 신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입니다.

작은 편안함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꿈을 꾸든지 통일에 기여하겠다, 통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가슴 속 꿈에 통일이라는 색깔을 입히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겠다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개성 지나 평양에서 자고 천진, 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베를린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북경에 자동차 배달하러 서울역을 출발해서 개성, 신의주를 지나 심양, 천진, 북경에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언제 한번 초대해서 남해안 해수욕장에 같이 가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우리 세대, 기성 세대는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들 할 말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몰라주고, 어려움을 몰라주고, 헤아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불평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저도 기성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밤새 이야기하고 같이 놀러가고 취직은, 애인은, 성적은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해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아저씨,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통일입니다.

여러분을 몰라준다는 기성 세대는 그동안 민주화, 산업화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잠들었을 때 직장에 나가고 잠든 여러분을 보며 일했습니다. 다들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휴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통일의 기초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일의 기초가 뭐냐? 통일 하면 돈이 드니까, 북한에 병원도, 학교도 짓고, 공항도, 항구도, 공장도, 농로도, 수도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지금부터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보겠다 해서 내가,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 돈을 모아놓은 계정이 통일 향아리입니다. 통일에 필요한 돈을 채우는 일을, 우리 기성 세대가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일 세대 주역이므로, 빈 손으로 통일 하라고 내몰지 않으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돈을 담을 때 염원이 담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자신감을, 북한 친구들은 희망을, 외국은 한국의 통일을 도울 생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힘들지만 아껴 모아서 통일 향아리 채워나갈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꿈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일 준비해야 합니다. 내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질문은 통일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무엇이 궁금하고, 고민이고, 불만이고, 희망인지 듣고자 합니다.

【 질문 】

장관님 개인적으로 통일에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 답변 】

내가 통일에 찬성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를 쳐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의 정의는 통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성해야지요. 여러분 중에 통일을 의심하는 사람은 오늘 나 만나서 통일 꼭 됩니다, 왜인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일 돼야 기차를 타고 베를린 갑니다. 배달 하러 북경도 갑니다. 북한 친구들 초청해서 남해안 해수욕 같이 갑니다. 통일 돼야 한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빨리 됩니다. 통일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여니 할아버지가 서 있는데, 내가 너 삼촌이다, 동독의 문을 여니 통일이 된 것입니다. 통일은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빨리 옵니다. 준비할수록 축복된 모습을, 준비 안 할수록 혼란스런 모습일 것입니다.

【 질문 】

이번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답변 】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장관으로서 미안합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이 어떤 것이냐, 이 정부에서는 남북한이 상생공영하여, 함께 잘 살아서 통일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공영을 위해 뭘 하나?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평화롭게 살고 통일을 향해 함께 일하겠다고 하면 돕겠다, 있는 힘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런데 과거의 북한은 그리 하질 않고 천안함에 어뢰 쏘고 연평도에 대포 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와 잘 지내고 번영하고 통일 해서 잘 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생공영의 통일입니다.

지금도 장관 이름으로 북한에 제의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자, 문제 있는 것은 얘기해서 풀어가자, 주민들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하면 돕겠다, 우리 한민족이므로 어렵더라도 도울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를 10대 무역국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용으로 돈을 투자할 힘이 있습니다. 도와 줄 마음이 있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고, 그리고 돈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답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비전은 있으나 답이 안 온 것
입니다. 남북이 함께 잘 살아야 하고, 그 길을 함께 의논해서 가야 한다
는 것이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 질문 】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왜 통일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 경
제 지원하는 것은 손해같고, 이산가족은 점점 없어지고, 그 질문에 어떻
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 답변 】

좋은 질문입니다. 잘 듣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한민족이고 오랜 세
월 한나라로 살아왔고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분단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순리는 같은 민족이
한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더구나 1,400년 동안 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은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습니
다. 이산가족 상봉 노력,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당위입니다.

둘째는 헤어져 살아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군대에 2년을 잡니
다. 통일 되면 휴전선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단 돼서 무기 사
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너무
큽니다. 익숙해져서 모르는 것입니다. 통일 되면 이 분단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이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통일 되는 그
날부터 통일 혜택은 누적됩니다. 나라가 더 커지고, 북한 노동력이 일자
리를 얻고 남한 자본은 노동력과 자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나라, 인
구 8천만의 큰 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과 당당하게 함께 하는 큰
나라가 됩니다.

셋째,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해 작은 나라에서 민족끼리의
전쟁으로 고통 받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인정을 주고 받는 항구적인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평화 속에서 민족국가

를 이루면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 존엄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 중남미의 여러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통일 되면 더 잘 도울 수 있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습니다.

무궁화 회의 강연

일시 : 2012. 6. 11(월) 15:30

장소 : 육군사관학교 생도회관

대상 : 육·해·공군 장성 90명

대학원을 마치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2년 간(R.O.T.C. 복무 기간) 복무하였습니다. 그 2년 중에 열 달 정도는 제3사관학교에 파견되어서 제3사관학교가 초급 대학으로 인가받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3사관학교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천에 단기사관학교의 목적으로 세워져서 중대 단위의 수업을 창고에서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중대 단위의 수업을 하고, 남은 시간에 출제, 채점을 하고, 밤에는 제3사관학교 초급대학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 와서 당시 문교부, 국방부, 육군본부 쫓아다니면서 인가받는 일을 열 달 동안 했는데 나중에는 젊은 시절에 아침마다 세숫대야에 커피를 쏟은 결과 인가가 나왔고 육군사관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복귀해서 당시 교수부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접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장가를 안가고 홀몸이어서 보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장가를 빨리 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와서 육군 중위로 지형, 기상, 천문, 온갖 것 다 가르치고 급하면 생존학도 가르치고, 중위가 교수 중 제일 줄병이라서 대령한테 ‘경례 잘 안 한다’고 야단맞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와서 그 때의 생도들이 장군이 되고 지휘관이 된 여러분들을 뵈게 돼서 감개무량하고 남다른 애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통일부 정책실에서 잔뜩 써줬습니다. 이걸 다 읽어 드리면 여러분들은 줄거나 아는 얘기 또 한다고 할까봐 제가 처음으로 정책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스스로 그동안 받은 질문을 내놓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열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것은 아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첫째,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을 북한과의 대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통일정책의 기초가 북한과 맞서 대결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있는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명박 정부의 기초는 갈등과 대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공영’을 통한 ‘평화통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 저에게 붓글씨를 써서 보내주신 걸 제가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명필도 아닌데 뭘 써서 보내주셨는가 봤더니 ‘相生共榮 平和統一’이라고 쓴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부 초기에 제가 대통령 실장으로서 정책의 기초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통일정책 기초가 ‘상생공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굳이 글씨를 보내주신 것은 그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넘어서 화해와 교류, 협력으로 간다.’ 그리고 ‘상생공영해서 발전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이것이 정책의 기초입니다.

②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었는가?’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든 또 다른 정부이든 간에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는,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상대와 하는 게임이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잘 지내려면 상대에게 굽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는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하자는 대로 따라 주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토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이 하자는 대로 따라한다면 국방부와 통일부는 왜 있겠습니까? 하자는 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도발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경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진통을 겪는 것이고 이 진통 끝에는 정상적 남북관계 위에서 대화와 교류, 협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북한은 늘 그런 집단 아니냐? 그걸 데리고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 사건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닌가? 북한은 그러려니 하고 해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니 한다는 것은 북한을 용인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전의 정부에서도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현금도 주고 여러 편익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99년, 02년, 06년 서해에서 도발하고 핵실험을 하고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정부는 식량도 제공하고 현금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맘에 안 들게 해서 도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도발하는가? 그들의 전략, 전술적 필요에 따라서 도발을 합니다. 그 필요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걸로 위협해서 체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전략과 거기에 필요한 전술들을 원만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발을 때로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북한이 대화를 하면 남북관계가 잘 유지되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남북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면 남북관계가 북한 하기에 달렸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북한에 맡길 수 없는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에 식량을 보내주고 천안함 묻지 말고 5·24 조치도 해제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원칙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일이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생을 제복을 입고 일생을 나라에 바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어떤 정치인이 물었습니다. ‘5·24 조치 해제해야지, 그러면 되냐.’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 주무장관으로서 제복을 입고 우리 영해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꽃다운 나이에 바다 밑으로 숨겨간 우리 병사들을 두고 그 죽음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어떻게 국가가 젊은이들을 제복을 입혀 군함에 실어 영해에서 활동하게 하다가 그들이 포탄을 맞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모른 척할 수 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제복 입은 병사들이 바다로 가라앉을, 그런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5·24를 해제하지 못한다. 이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안보는 돈이 들어가는지,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안보는 나라를 지키는 목적 이외에 아무 것도 필요가 없다.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제복을 입은 채 근무를 하다가 북의 도발에 그 총탄을 맞고 바다 밑으로 숨겨갔는데 시간이 적당히 지났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무엇을 위해서 없던 걸로 하느냐?’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입장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④ 그러니까 묻는 말이 네 번째 질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냐?’ 장관님 말하는 거 보니까 북한을 그렇게 적대시해서 통일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총칼을 마주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끌어안고 통일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민족입니다. 어느 한 쪽만 보는 것은 현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나머지 절반이 아니었다면 이런 도발을 당하고 참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군이 적이 아니면 우리 군사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어력을 쏘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자 우리의 반쪽인 이 사람들과 우리는 상생공영하고 통일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모순된 과제입니다.

통일은 모순입니다. 적대세력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순입니다. 두 개의 정권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그걸 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논하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때로는 감싸 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명분에 맞게, 논리에 맞게 하느냐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⑤ 다섯 번째. 이 질문은 제가 대사로 중국 장춘의 길림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 학생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가지고 한편이 되어 있으면서 중국과 잘 지내자고 하고 북한과 통일하자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나 중국과 잘 지내고 북한과 통일하려면 한미동맹부터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대사 신분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갈등을 생산할 말을 해서도 안되고 국가 위신을 손상시켜도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림대가 명문대인 줄 알고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인 줄 알고 여기에 왔는데 질문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공부를 더 해야겠다. 냉전 시대는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실상 fade out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어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두 가지 점을 얘기하겠는데,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었다면, 실제로 전쟁이 없었다면 꼭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이것은 한국 안보의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랑 친할 수 없다는 인식은 어리석고 옛날식, 6·25 직후의 생각이다.’

세상은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던 시대를 훨씬 넘어섰다. 미국과 군사동맹은 하지만 중국과는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를 하고 심지어는 군사 교류도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적이다. 실제로 한중 교역은 대한민국 교역의 1위, 중국은 대한민국 제1의 무역 상대국이

다. 2010년 통계로 이미 교역액이 2000억 불을 넘어섰었다. 당시 대미, 대일 합쳐도 1500억불이 안되었다. 2, 3위 교역량을 합해도 1위 국가의 교역량이 안된다. 하루에 한중 간에 비행기 120대가 뜬다. 한미동맹을 한다고 해서 미국하고 놀고 우리하고 놀지 말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당신들이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내가 서울대 교수 30년 했는데 당신들이 서울대 학생들 따라가려면 공부 더 해야겠다. 오늘 이 강의 들은 이후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⑥ 여섯 번째 질문은, ‘분단 관리만 하고 있으면 통일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분단 관리는 하나고 통일은 둘입니다. 다시 말해 분단 관리를 잘 하면 통일에 도움은 되지만 통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의 통일 정책을 분단 관리 플러스 통일 준비로 바뀌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지 않고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는 도발을 계속하고 지금처럼 청와대와 정부 청사와 각 방송국과 신문사에 좌표를 들이대면서 도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통일 준비의 다섯 가지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를 고양해 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비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일 재원 마련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통일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항아리에 모아나가자.

세 번째는 통일 외교를 해야 한다. 외교는 외교부에서 하는데 통일부에서 외교를 왜 하나 하는데 통일에 대한 기본 열쇠는 남북이 갖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하려면 인접국 미, 중, 러가 함께 보조 열쇠를 돌려나가야 하는 것인데 주변에서 하나의 한국보다는 두 개의 한국이 훨씬 좋다고 한다면? 옛날에 유럽에서 연합국이 독일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의 독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개의 독일로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의 한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개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이런 농담 속에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의 통일과 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냉전 체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모택동 주석의 참전, 미군 참전 당시의 상황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 또는 적화통일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주변국에 영향을 줘서 한국이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들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린 아닙니다. 그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 한국이 당신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당신들에게 절대 마이너스,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했음 기여했지,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고 통일 한국이 세계 문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국 통일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누군가 농담 삼아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한국 통일은 핵 무기를 보유하며, 남북한이 합친 군대는 세계 순위를 다룰 텐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내전을 치르고, 그 황폐한 토대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아서 연명하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유일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오천년 역사에 다른 국가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았을지언정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웃 나라와 잘 지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외교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탈북자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포용하는 것은 북한에서 못 살아서, 자유와 삶을 찾아서 또 다른 조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이며, 한국인으로서의 책무이며, 통일의 첫 단계입니다. 2만 4천여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감싸 안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 사회의 건강

한 시민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의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책무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여 교육시키고 정착시키고 돌보는 일에 통일부 예산의 60%가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통일부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북한이탈주민을 안전하게 이 나라에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근자에 이 북한이탈주민을 놓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발언이 있는데 참으로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2만 4천의 북한이탈주민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2천 4백만의 북한주민을 끌어안고 통일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을 끌어안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고, 통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북한의 2천 4백만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따뜻하게 보듬어지는 것을 보며 통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없어도 이역만리를 떠도는 우리 동포를 따뜻이 안아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원에 가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하루 종일 만난 적이 있습니다. 40대의 아주머니가 할머니 같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실조에 아이를 낳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도 몇 백 명씩 들어옵니다. 하나원에서 한밤중에 차를 타고 편안히 앉아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어찌다가 남한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저 아주머니, 아저씨, 아들 같은 청년들은 북한 땅에 태어나 젊은 날에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고, 공포심에 질려 있습니다. 또 각종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오는 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인데 그 중 70%가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웰빙을 얘기하면서 우리 동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야까 말했듯이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우리의 반쪽입니다. 싸울 때는 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용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이 가지는 큰 아픔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일 후의 과정을 원만히 관리하기 위해 제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

교와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의 다섯 가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를 고양하는 것,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것, 통일 외교를 확장하는 것, 탈북자들을 끌어안는 것,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사업이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동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관이 통일 향아리를 구우러 갔습니다. 큰 달향아리를 통일 향아리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래쪽, 위쪽을 따로 만들어 붙여서 굽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을 붙여서 구우면 달덩어리 같이 환한 백색의, 완만하고 아름다운 통일 향아리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시골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부엌에 가면 향아리가 있을 겁니다. 부엌에서 밥 짓다가 한줌씩 절약을 합니다. 또 방 안에 있는 향아리에 는 귀한 것이 있으면 거기 넣어둡니다. 그랬다가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그 향아리를 비워서 그 위험을 막는 겁니다. 이것은 보험, 계, 저축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지만, 다만 그 모을 때의 정신은 앞으로 일어나는 큰일을 대비해 마음부터 낱알이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옵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향아리에 돈을 모아나간다는 것은 통일에 대비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한참 떠들고 다녔더니 대통령이 5월 월급을 내놓으셔서 장관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제일 교포, 민단 간부들이 통일 성금을 모으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일 동포가 어떤 분들입니까? 일제 식민 치하에서 갖은 굴욕을 당하며 어쩔 수 없이 일본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해방 후에도 남아서 참정권도 없이 이런저런 놀림을 당하며 그 사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은 돈을 모아서 통일 향아리에 넣겠다고 합니다. 고흥의 어느 촌로는 커피 값, 장사하고 남은 잔돈을 모아 이천 여 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통일을 위한 저축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지에서 조금씩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항아리에 돈을 넣는 대열이 줄을 잇게 될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국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항아리는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력을 모아 대응으로써 통일의 여건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는 모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단지 분단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 준비까지 나서는 이유입니다.

⑦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통일은 꼭 해야 합니까? 사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통일은 왜 해야 합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편안함에 안주하면 큰 것을 잃는다. 눈앞의 편함에 익숙해지면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일제 말기에 일본 하에서도 선생도 되고 군수도 시켜주고 중국, 미국 눈치 안 봐도 되고 적당히 일본과 지내도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저명한 문인도 나중에는 청년들에게 학도병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친일파라고 부르죠. 지금 분단 상황에서 살 만하다고 해서 통일을 외면한다면 훗날 어떻게 불릴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청춘이 아프다고? 청춘이면 다 아프지 안 아픈 사람들이 어디 있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 청춘인 것이다. 통일 안 하고 적당히 살고 싶다고? 니들이 젊은 놈들 맞아?’ 하고 말하게 됩니다.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첫째는 민족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일 신라 이후 1,300년을 한반도에서 하나의 역사로 유지해 왔던 것을 우리 대에서, 분단을 후손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고 하면서 가난했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의 국가로 넘겨준 것을 그대로 후손에게 넘겨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민족국가를 완성시키고 통일을 완성시켜서 형제 간에 싸우고 적대하는 흉측스러운 꼴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세대는 근로 현장에서 밤을 새우고 아스팔트 위에서 총탄을 맞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통일 한국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 7천만이 넘는 큰 나라가 됩니다. 주변에 미, 일,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있지만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국가가 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자원과 기술이 우리 땅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석유와 기계 좀 모자란다고 혈값에 넘어가는 북한의 자원들이 우리 산업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통일의 기회를 잘 활용하면 명실공히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

셋째, 통일이 되면 한류가 힘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과 개발 모델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선진 문화를 과시하는 선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안고 있는 질곡을 넘어서서 중심 국가가 되고 새 성장을 이룩해서 세계 동력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 일본 모 신문의 주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도와야 한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근본적인 위기가 있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안한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통일을 돕고 나서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과거의 불편한 인연을 씻고 일어서서 한반도의 통일을 돕는다면, 이것이 새로운 역사적 화해가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와 한·중·일이 아시아적 가치, 즉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열어 가야 합니다. 이걸 일본의 지성을 대표하는 당신이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양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일본이 침략했던, 중국이 참전해서 분단의 고통을 만들어 낸 한반도의 통일을 도와 한·중·일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⑧ ‘이것을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이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뭘 봐서 그 때인가? 문명의 변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 재정 위기가 실물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성실함과 대통령의 탁월한 경영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혼란, 위기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세계 질서를 개편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통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대학 다닐 때 동승동에 가려면 서울 역에서 72번 좌석버스를 탑니다. 타면 45명 정원에 145명이 타는데 차 문이 안 닫힙니다. 그럼 차장이 차 문에 매달려서 ‘오라이’ 그럼 버스 기사가 버스를 흔들어서 사람들이 안으로 몰렸을 때 문 닫고 출발합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흔들어 놓아야 빈틈이 생기는 것이고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가 한국이 통일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주변국들이 전부 정권을 교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지도자가 사망했고 미국, 중국도 복잡하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날 친구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리고 일본은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것도 찬스입니다. 기존 질서가 굳건하게 버티면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전 대한민국의 토대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예전부터 그걸 믿지 않았습시다. 20년 동안 해온 짓을 어느 날 갑자기 왜 안하겠습니까? 북한 주민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황해도 등지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가 굶주려 죽고 있는데 시간 봐서 천천히 통일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⑨ 아홉 번째 질문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부터 철학을 배워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답이 있습니다만 말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묻지 말고 먼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라, 어떤 북한을 보고 싶은가? 김정은 체제

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묻지 말고 북한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라. 그렇게 되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을 때, 변화를 위한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부디 이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고 역사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북한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대신 욕만 하고 있습니다. 욕도 하도 들으니까 여간해서는 욕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땐 사람들이 좀 욕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했더니 요 며칠 전에는 욕이 도가 넘어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답은 우리가 한반도 정세와 통일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⑩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일이 될 것 같은지? 언제쯤 될 것 같은지?’ 그래서 제 답은 통일부장관에게 그런 걸 묻는 건 걸레라는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된다. 언제쯤이라는 질문에는 가급적 빨리 할수록 좋다.’ 통일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될 뿐만 아니라 가급적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통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절약해서 돈 모으고 젊은 애들 통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도록 하고, 통일 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웃 나라와도 통일하면 잘 지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국민이 만듭니다. 절대로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주는 통일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로, 돈도 있고 경험도 있는 나라로 반듯이 서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 한국이 앞장서서 도울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도 말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금강산 개발 다 해놓고, 지금도 여러 기업들이 준

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는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황폐한 국토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나라에서 기적이라고 불리는 성장을 이룩해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지리학, 지역 개발 전공입니다. 이 전공으로 세계지리학회를 이끈 사람입니다. 우린 노하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신용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 포기하고 평화, 상생, 공영의 길로 나오면 우리는 의지, 경험, 돈을 가지고 도울 것입니다.

통일정책의 기초는 상생공영 위에서 평화통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일정책의 기초는 안보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튼튼한 안보 없이는 작동이 안됩니다. 튼튼한 안보만이 대한민국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을 확보해 줍니다. 장관 취임 초기에 유연화 정책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를 Mr. Flexibility라고 불렀습니다. 유연하다 하니까 뼈도 없는 줄 압니다. 유연하려면 뼈가 있어야 합니다. 뼈가 없으면 무너지지 유연해지지 않습니다. 통일정책, 안보정책 행동반경을 넓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통일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 두어 개만 받겠습니다.

【 질문 】

아까 오전에 합참 정보국에서 교육을 했는데 북한의 공장 중 30%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에 달리는 다 말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기름도 못 사고 공장도 운영 안 돼서 농업국가일 것 같은데 30%가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어디서 달리를 구하고 어디서 기름을 구해서 공장을 가동시킵니까?

【 답변 】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정권, 또는 지도부의 어려움으로 가게 되겠지만 완충 역할을 북한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합니다. 북한이 어렵더라도 지도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곧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북한은 인민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유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유 대금을 결제할 캐시가 모자라기 때문에 석탄이라든지 이런 원료로 하는데 이걸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농지 개혁을 해서 밥 먹는 걸 해결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특구가 들어오고 노력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이 외국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북한이 동족인 남한의 현대가 금강산 개발을 다 해줘서 이룩한 사업도 저렇게 몰수하고 망가뜨리고 하는데 어떤 자본가가 현금으로 투자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북한은 국제사회의 투자나 교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받아들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전에는 지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신뢰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북한은 안으로는 경제, 밖으로는 국제 신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그동안 빌려간 식량을 상환할 때가 되었으니 상환하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답을 해야 남북 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6월 7일에 만기가 지나갔는데 육만 죽어라고 하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신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기가 되었다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계약과 국제 관행과 규칙에 따라서 독촉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갚으면서 경제 운영이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무슨 방법을 서로 찾아야 할 텐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육만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북한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북한이 이를 인식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 회복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질문 】

장관님 현실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북한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인데 개성공단을 현 상태 유지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

‘개성공단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통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아주 잘 결합되어 매년 생산량이 증가되고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매출도 신장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3개 기업에서 약 5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모두가 소중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연평도 도발이 있을 때도 이를 닫지 않고 운영했습니다. 이후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도 개성공단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국제 제재 가동 시에도 우리는 개성공단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신뢰를 쌓아가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봤기 때문입니다. 취임한 후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책적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 필요한 소방서, 병원 등을 짓고 시내로 이어지는 도로, 운동 시설, 설비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과 근로자들이 최소한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우리 기업과 관리 책임자들은 더 많은 북한 주민을 고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임할 때 남북이 협력을 잘 한다면 제2개성공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통령과 정부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비난하고 좌표를 들어가며 포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도발 행태가 중지되어 남북 간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어렵다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소나무 병충해 방제 작업 등 많은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지역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제공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이 적어도 실무적 위치에서 노력하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북한이 저렇게 변화된 것은 정부 정책이 자주 변화되다 보니까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장치나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답변 】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폄하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잃어버린 몇 년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서로 화해 협력해서 이런 길로 가자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한 가지 트집을 잡는 것은 6·15, 10·4 선언을 남한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때 정치적 선언을 했던 것을 이행하려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당장 시행 가능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남북 간의 시비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문제,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6·15, 10·4 선언 등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먼저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의 배경에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일관된 전략, 합

의를 파기하며 미사일 쏘고 남한 정부 비난하고, 도발에 따른 보상을 받는 악순환을 통해 일관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점진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기본합의서대로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북한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난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해가면서 통일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아닌 무력으로 하겠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9월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발을 포기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도와주겠다, 이를 넘어설 통일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가 통일을 포기하고 도발에 대해, 굽어죽는 북한 주민을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모순적이고 복잡적이지만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40년 만에 한 제 강의를 듣고, ‘아,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대비는 대비대로 해야겠구나, 정부를 back-up 해야겠구나,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응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고한 자세를 가져주시면 제가 강연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

일시 : 2012. 6. 21(목) 09:30

장소 : 서울 로얄호텔 행사장

대상 : 해외동포 및 민화협 회원 총 80명

주제 : 한반도 정세와 통일 정책

먼저 2012년 민화협 해외본부 전체회의를 이렇게 가지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김덕룡 의장님과 임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제가 바쁜 중에 왔다고 하셨는데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 기꺼이 왔습니다. 민화협은 우리 남북의 화해 협력과 통일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이 통일부로서는 동지이자 동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되면 한 분 한 분 다 따로 찾아뵈어야 하는데 서울 한복판에 앉아서 한 자리에서 다 뵈 수 있는데 제가 안 올 리가 있겠습니까?



만나뵈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 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여러 지역 여러 국가에서 오셨습니다. 뭐 하러 그 먼 길을 오셔서 밤새워 토론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셨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조국을 떠나 있어도 일념으로 생각하는 바가 '조국의 발전'과 그리고 '통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비교적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엔 독일에서 살았고, 그 뒤에 교환 교수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살았고, 또 대사로 중국 가서도 살아보았습니다. 고국을 떠나면 고국의 문제가 더 잘 보이고 또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저도 잠시지만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번은 제가 독일에 살 때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에 갔어요.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학회가 쉬는 하루를 택해서 고물차를 끌고 이태리를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알프스 산지를 넘어서 이태리로 가는데 아무도 없는 산골에 차량 통행을 막는 봉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섰더니 한 영감이 줄면서 눈을 비비면서 나와 가지고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서 ‘내 이태리에 좀 놀러간다.’ 이랬더니, ‘너 어디서 왔냐?’ 귀찮은 거예요. ‘코리아에서 왔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 보는 게 너 ‘West Korea에서 왔냐? East Korea에서 왔냐?’ 저도 심심하던 차에 영감하고 얘기가 좀 해볼 요량으로 ‘코리아는 하나 밖에 없다. west도 없고 east도 없다.’ 이랬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 내가 하는데 ‘east인지, west인지 대지 않으면 여길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East Korea, West Korea는 없다. 당신 다시 전화 걸어서 본부에 물어봐라.’ 이러니까 그러면 ‘north, south로는 갈라져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희가 갈라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 잠시 갈라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빨리 이거나 올려라.’ 이랬더니, 근데 ‘너희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 알기 전에는 못 보내준다.’ 이래서 ‘코리아는 전부 다 너희 편이다.’ 한참 그 영감하고 시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로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대사로서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다녔지만 우리는 South Korea와 North Korea가 어떻게 다른지 North Korea가 어떻게 이 황당한 짓을 하는지, South Korea가 얼마나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들을 때 그래봤자 South Korea 이승만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아마 자동차도 만들지. 이런데 인제 얘기하고 나서 돌아서면 east라고 했는지 west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Korean이 하나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당한 놈이 지나갔거나, 무얼 좀 아는 놈이, 그래도 상대를 할 만한 놈이 지나갔거

나, 상관이 없어요. 잠시 후면 ‘Korean이 하나 지나갔다. Japanese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나, 중국인인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요새 조금 나아져 ‘South, North가 다투는데 그놈들 하는 짓이 비슷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쪽인가는 뭐 미국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고 다른 쪽은 중국하고 같이 한다는데? 하는 짓이 비슷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르다고 생각해도 뇌리에 끝까지 남아 있는 건 코리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 통치의 폐허 위에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원조를 받아서 배고픔을 달래고 멸시를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기술 배워서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한 민화협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전 세계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민주화를 이룩했고 또 많이 힘들었지만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른바 기적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 동료 교수들은 한국 때문에 교과서를 다시 쓰게 생겼다고 불평입니다. 식민지 통치를 한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그것도 반쪽이 돼가지고 자원도 없이 이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선진국이 된다면 전 세계의 역사, 지리 교수들은 책을 다시 써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무역이 1조 달러를 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56개 정상을 불러서 의장이 돼서, 밥 먹이고 재우고 회의를 하고 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를 의논하기 위해서 G20을 유치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하고 이제는 나간 분들이 UN 사무총장도 하고, 세계은행 총재도 하고, 우리 젊은 이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구촌 구석구석의 젊은이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세대가 이제는 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김덕룡 의장님도 평균으로 보면 벌써 실 때가 되셨어요. 이렇게 못 놓고 정치를 계속하시고, 이렇게 민간 운동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상적으로 일했으면 정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손을 놓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 일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중독 중에 가장 중독이 심하게 걸린 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아침 7시, 7시 반이면 사무실에 나오십니다. 밤 10시, 11시에 약속을 잡습니다. 밤 10시, 11시 끊임없이 일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시의 근로자들, 공장의 공원들, 농촌의 농부, 어부들, 해외 근로자들 모두가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렇게 일합니다. 휴일은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통일부에 가서 '휴일을 다 찾아서 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일을 안 하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까?

그러다가 저는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통일을 꼭 해야 될까. 뭐 지금도 살 만하지 않습니까? 애들 호주머니에 백만 원짜리 휴대폰이 다 들어가 있고, 애들이 살이 너무 썩어지고 이것들 운동 좀 시켜야 해서 집 밖으로 몰아내고, 젊은이들 앞으로 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살을 빼려고. 이렇게 잘 사는데 뭐 답답해서 통일을 합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면 됐지. 불평하면 뭐 좀 집어주고 이럼 됐지. 뭐 통일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강연에 쫓아다니게 된 계기는 한국인들이 우리 이웃, 우리 친척, 우리 선배, 후배 한국인들이 통일 그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을 제가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 제가 사무실을 차관한테 맡기고 강연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왜 큰일인가? 특히 젊은이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집안이 괜찮을수록 뭐 통일 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골치 아프게, 아이고, 저 북한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고? 우리 돈 벌어가지고 저저 다 먹이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지, 조금씩 보태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30% 넘어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대학을 많이 갑니다, 요새. 가서 젊은이들에게 야단 야단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교수 시절로 돌아간 느낌으로 그럼 안 된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가, 오천 년을 함께 살아온 땅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00년 이상을 단일국가로 살아왔습니다. 밥을 굶고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때로는 집안에서 싸움 짓도 했지만 그러나 1,300년을 단일국가로 이 한반도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일국가가 20세기 초에 와서 남의 나라에 식민지로 떨어졌고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해방이 됐지만 바로 분단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좀 먹고 살 만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제법 평평거리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지만 사실은 1,300년 이어온 통일 국가를 분단해 놓은 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가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태리 알프스 산 속의 영감한테 east인지 west인지 하여튼 너희들은 갈라진 놈들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가. 해외에 가 있으면서도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에 휩싸여가지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다른 민족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우리 세대는 거기에 얽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전쟁도 했고, 지금도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손자의 손자들, 태어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까지 이런 족쇄를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일시적인 작은 편안함에 안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인에게는 정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년이 있고, 삼성과 포스코에 정년이 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정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할 일은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지키고,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통일을 다 이루지 못하면, 우리 후배 자식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꼭 해야 한다고 타이르고 그리고 나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이 열심히 해서 통일하지 왜 사람 모아놓고 이러느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장관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6번째 통일부 장관인데 앞에 장관을 지낸 서른 다섯 분도 다 통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계만 하고 가신 거지요. 저도 이러다가 인계하고 갈진 모르겠지만 인계하게 되는 그날까지는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장관만 하면 되느냐? 통일부 다 해야 하지요. 정부 당연히 해야지요. 정부만 하면 되느냐? 민간도 같이 해야지요. 모든 한국인이 다 나서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만 다 나서면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만 다 나서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다 나서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에도 협조를 구하고, 일본에도 함께 하자고 하고, 러시아 손도 잡아야 그래야 통일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만의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분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지정학적 구도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통일해야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설득해서 함께 통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화협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화해와 협력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북 간의 그 일을 해서 이 시대정신을 한반도에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 그 성심을 정부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한국인과 주변국의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해온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단을 잘 관리하고 화해와 협력을 하면 통일로 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돌아보면 교류, 협력, 많은 노력을 했지만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식량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했는데 통일로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다시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단 관리를 잘하면 통일이 된다는 이 명제를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분단 관리를 아주 잘하면 분단이 고착되고 항구적으로 분단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단 관리, 화해 협력하고 반드시 통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통일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단 관리만 하면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단 관리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소원이 통일이라고 노래를 열심히 불러도 통일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통일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류와 협력은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은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하고 잘 지내도 한집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냥 잘 지내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안 된다, 또 상대가 뻔대고 탄소리 하면 교류 협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은 손 놓고 있을 거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정치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대화도 잘 안 하고 교류 협력도 안 하니까 남북정책에 실패한 거 아니냐? 통일 정책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교류 협력을 잘 해야 통일정책에 성공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류 협력은 상대가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통일정책은 상대한테 갖다 맡겨 놨습니까?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하게 욕을 퍼부어대고, 그리고 우리 방송국 언론사들의 좌표를 연일 불러대고 있습니다, 포격하겠다고. 그런데도 교류 협력만이 절대선입니까?

당연히 교류 협력해야 합니다. 화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선이 아니다, 그것만이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통일로 가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그것 말고도 우리 스스로가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준비를 하겠다고 나섰고, 여러분들께 화해 협력에다가 통일 준비까지 좀 하자고 제안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분은 냉전 시대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류 협력을 넘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일도 하는 김에 같이하면 좋겠다.

그 통일 준비하기 위해서 뭐하는가? 장관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아까 그림에 항아리 만드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아리를 만들 줄 아는 게 아니고 시늉만 한 겁니다. 가서 이거 조수 노릇한 겁니다. 명장이 항아리 만드는 데 손에 물 묻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흑칠만 좀 하고 그러고 온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온 정성을 다 넣어서 명장의 손길을 빌어서 만든 이 항아리가 통일을 가져다주는 항아리가 되길 기원하면서 빚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 그 명장을 다시 찾아가서 저녁에 불을 때려고 합니다. 명장과 함께 앉아서 장작불을 땠 겁니다. 한 2~3일 가면 항아리가 구워집니다. 단단하고 잘 생긴 달 항아리, 평화통일이라고 써놓은 글씨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그 항아리가 구워집니다.

왜, 왜 항아리냐? 통일을 얘기하면서 왜 항아리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가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것이 오래 갑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오래가는 것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항아리더라. 쇠로 만든 게 굉장히 오래갈 것 같잖아요. 칼이나 창이나, 도끼나 오래갈 것 같은데, 그거는 몇 백 년이 지나면 삭아서 못 써요, 없어요. 나무로 궁궐을 지어도 그것도 몇 백 년 지나면 없어요. 근데 흙으로 빚어서 구운 이 항아리는 땅 속에 있든 바닷 속에 들어가든 몇 천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단단한 거예요, 이게 아주.

이 항아리를 어디다 쓰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은 항아리에 음식을 담아 놔습니다. 수렵 채취 시절에 이렇듯 빗살무늬 토기, 줄무늬 토기 하던 시절에는 여기다가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 담아놔어요. 과일을 담아놔다가 며칠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 시큼한 거예요. 식초가 된 거죠. 또 달짝지근한 거예요. 계속 짹어먹어 보니 맛이 괜찮아요. 한나절 짹어먹었더니 취해서

자빠져 버렸어요. ‘야, 그거 재밌다!’ 이래가지고 과일을 일부러 이제 향아리에 넣었다가 그늘에 잘 갖다 두었더니, 이게 며칠 지나면 맛있는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근심은 잊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런 물건이 된 거예요. 그게 술입니다. 향아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향아리로 술병을 빚은 겁니다. 오늘날은 좋은 유리병, 플라스틱 병으로 많이 만들지만, 제일 좋은 술병은 역시 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마시던 그 향아리에 든 술. 향아리에 뭘 넣는가 하면 음식과 귀한 것들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시골에, 부엌에 들어가면 안방하고 부엌하고 드나드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없는 집도 있어요. 그 문 구석에 보면 향아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뭘 시골 향아리니까, 제가 빚은 근사한 백자 달향아리는 아니고요. 좀 찌그러진 옹기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사발 같은 큰 것일 수도 있고. 그 향아리 뭐하는 거냐?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나가 내주는 쌀바가지를 갖고나와 가지고 들여다보면, 여기 식구가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쌀이에요. 요거 다 밥 지으면 좀 배고플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한 줌 집어가지고 향아리에 넣습니다.

요만큼 안 먹더라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향아리에 쌀이 모아 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집안에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초상을 치를 수도 있고 시아버지 환갑을 할 수도 있고 뭐 혼례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며느리가 그 독을 비워서 큰일에 보태는 겁니다. 이게 향아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것을 할아버지 댁에 가서 많이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직원들이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계정을 준비 하겠습니까. 말이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계정을 열고, 그것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거예요. 어려우니까 쉽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통일 향아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불러줘 가지고 지금은 통일 향아리가 이 통일 후에 쓸 추가 재정 소요를 덮기 위한 법적 계정을 대표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 향아리. 좀 촌스럽지요. 제가 지어 봐도 좀 촌스럽습니다. 본래 제가 촌놈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시골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방학 되면 농사짓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농사꾼 따라다니며, 산으로 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촌티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촌사람 아닙니까? 벵타이 잘 매고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촌사람이거든요.

본심으로 돌아가서 이 향아리에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염원을 실어서 여기에 돈을 조금 모아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통일 준비입니다. 돈을 정부가 강제로 거두면 기분 나빠서 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정부가 그런 제안을 했더니, 민화협부터 앞장을 서가지고 많은 통일 관련 단체와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또 하나의 민간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단체가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나갈 겁니다. 제가 기업을 빼라고 했어요. 기업의 돈을 빼 쓰면 돈은 큰돈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이 망하거든요. 그럼 통일 못합니다. 기업이 잘 해야 통일하지요. 그래서 기업주는 돈을 좀 내도 좋겠다. 안 된다면 말구요.

국민 각자가, 한국인 개개인이 국내외에서 세금 낸 돈, 일해서 벌어서 깨끗하게 세금 내고 모은 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내면 아깝고 아픈 돈, 이것을 성의껏 내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향아리에 넣자. 향아리는 단지 상징입니다. 이 계정에 넣자. 그래서 국민이 줄을 서서 만원이고 천원이고 내기 시작하면 이 향아리는 언젠가 채워질 것이다. 향아리에 채우는 건 그러나 돈이 아니고 국민의 통일 염원이자 통일 의지입니다. 이게 차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 선배들이, 애들 말로 하면 우리 끈대들이 말도 안 통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우리 세대와 분담하겠다고, 저렇게 돈을 모으는구나. 백마디 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깨를 붙잡고 나도 너희들과 고민을 같이 한다. 통일 세대 너희들이 맞이할 그 통일 큰 역사에 돈 없어 못하면 안 되잖나, 우리가 살림 궁하지만, 살기가 팍팍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태놓을 테

니 용기를 가지고 통일해라. 이게 나는 진짜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보자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으다 보면 큰돈이 됩니다. 큰돈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 의지가 결집되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볼 겁니다, ‘야, 이거 한국 사람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통일 정말 하려고 하네.’ 중국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만날 토닥거리고 서로 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진짜 통일하려고 하네. 어물어물하다가 이거 한국인 전체한테 미움 받는 것보다 통일 거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일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통일은 더 가까이 오고, 우리 통일은 실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북한의 주민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남조선에 저것들 돈이나 아는 줄 알았더니, 요즘 돈을 모으잖아. 그 돈 어디에 쓸까? 우리를 위해 쓰겠다는 거 아냐. 우리 동네 다리 놓고 길 닦고, 병원 만들고, 학교 짓고 하는데 쓸려고 돈 모으는 거 아냐. 저것들이 돈만 아는 것들이 아니네, 이제 보니까. 통일이 되긴 되겠다. 그리고 저런 마음들이라면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통일 준비입니다.

돈을 모으지 않고는 그런 자신감도 그런 희망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항아리를 굽고 그 구운 통일 항아리에 국민의 통일 의지를 모아서 넣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항아리가 아주 단단하게 채워지면, 딱 채워지면 저는 핵무기보다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통일을 못 시키지만 국민의 의지로 결집된 항아리는 통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 말씀을 믿어주시면,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제일동포가 계신 줄 모르겠는데, 민단 간부들이 저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제가 통일 항아리 설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장관, 우리가 좀 거들겠습니다.’ 해서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 이튿날 이분들

이 대통령을 내방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민단이 앞장 서서 재일동포들이 통일 기금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구워지는 항아리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엊그제 보니까, 민단 신문 1면에 크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재일동포가 어떤 분들입니까? 식민 시절에, 그리고 어렵던 해방 공간에, 그 전쟁 통에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삶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통일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라남도 고흥에서는 노인들이 나섰습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담배 끊자, 채소를 팔거든 잔돈을 모으자 해서 지난 10년간 모은 돈이 2천 수 백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R.O.T.C.도 기별로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께서 5월달 월급을 항아리에 넣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장관 5월 월급도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러나 너무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동료 장관들이, 통일부장관만 앞장서서 그러고 우리 망신시키면 어쩌하나,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해서 내가, ‘기회는 지나간다. 기회가 지나갈 때 잡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는다. 통일이란 게 그런 거다. 기회가 왔는데도 돈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우물쭈물하면 기회는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이 질곡을 대대로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장관들, 수석들을 만나면, 맘 내킬 때, ‘호주머니에 돈 좀 있을 때 내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그런데 통일된 다음에는 못 받아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이 통일 항아리가 통일 준비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밖에 몇 가지 사업을 더 하려고 합니다. 국민에게 통일이 왜 되어야 되는지, 통일을 꼭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외교를 좀 강력하게 전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에게 또는 세계

의 여러 나라에게 국제기구에 ‘한국인이 통일을 하려고 한다.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하려고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 통일된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절대로 누구를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걱정시키거나 이렇게 안한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라. 우리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 들어가서 쪽박 하나라도 뺏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통일도 우리 손으로 할 거다. 그러나 당신이 도와준다면 통일이 더 빨리 되고,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제발 내 옆에 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협조를 구해야 된다. 그냥 있다가 적당히 지나가면 무슨 속이 그렇게 아파서 한국 통일에 지팡이 짚고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설명하고, 통일 한국이 평화로운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 새로운 문명의 가치를 발신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못 사는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내야 통일 외교가 되는 거죠.

그거 누가 하나? 대사가 합니다. 공사가 하고 참사관이 할 겁니다. 그러나 대사, 공사, 참사관보다는 현지에서 사는 교민들이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사를 해봐서 압니다. 대사의 말은 정치적 고려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민 사회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재국의 공관과 주재국의 상사와 함께 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관리들을 설득해 낸다면 통일 얘기는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탈북민을 감싸안아야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먹고 살지 못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국경을 넘고 황무지를 헤매다가 어렵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들어온 우리 형제들, 이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이 사람들의 공포를 씻어주고, 이 사람들을 이웃에 정착시키고, 일자리를 주고, 함께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우리 시대를 사는 한국

인들의 책무입니다. 이젠 인간으로서의 도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책무다 이 겁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운이 좋아서 남쪽에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북쪽에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찾아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감싸 안고, 보듬고, 정착시키는 일, 이것은 통일 작업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2만 4천을 넘어섰습니다. 통일부 총예산의 60%가 탈북민을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함께 하고, 해외 동포가 함께 해줄 때, 이 일은 훨씬 더 따뜻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2만 3천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아갈 때, 건강한 시민이 됐을 때, 그때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2만 4천 명, 제 발로 찾아온 2만 4천 명도 감싸 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2천 4백만 명을 통일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근자에 정치권에서,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탈북민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온 다른 민족들, 다른 아시아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감싸안는 판에, 우리의 형제요, 동포요 우리의 다른 반쪽인 탈북민들을 감싸안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혹시라도 주변에 탈북민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고 닦여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배급받아서 먹다가, 안 주면 굶고, 일자리 없으면 해매는 그냥 야단치면 야단맞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은 지하철을 탈 줄도 모르고, 에스컬레이터도 처음 봤고 물건 값을 깎을 줄도 모르고, 사기꾼이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말은 어눌하고, 악센트는 다릅니다. 키도 작고 병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감싸 안는 일이 통일하는 일이다. 그것이 '사람 된 도리이

다.’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감싸안고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때 통일이 가까이 온다, 저는 이것을 통일 준비라고 봅니다.

그 외에 통일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통일 후에 통합 과정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전문 학회와 여러 기관들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정리하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통일 준비의 과정에서 우리는 분단 상황을 잘 관리해내야 합니다.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또한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거나, 저것만 하고 이것을 안 해선 안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국내외에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해외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조국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내다보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에, 그러한 정성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부터는 민화협이 화해와 협력뿐만 아니라 통일 준비에도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조국은 우리 세대 내에 반드시 통일됩니다. 통일된 조국은 7천 5백만의 인구를 가진 아시아의 강국으로 태어납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의 가치,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세계에 떨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세계를 향해서 어깨를 펴고 인류 문명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당당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장관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저녁에 술 드시고 피곤한데 또 밀린 얘기 하시느라 밤새웠는데, 이렇게 모시고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장관은 원래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심부름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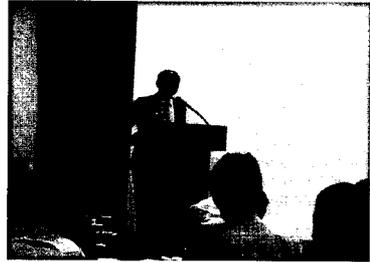
21세기 경영인 클럽 강연

일시 : 2012. 7. 24(화) 08:20

장소 : 제주 롯데호텔

대상 : 21세기 경영인클럽 회원 등 50여 명

존경하는 21세기 경영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큰 영광입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제주에 와서 휴가를 즐기실 법한데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별로 재미도 없는 통일부장관 이야기를 듣겠다고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합당한 기대에 미치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의 남북 정세 그리고 제가 내다보는 남북관계,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그렇지 않아도 경색되어 있고 어려웠던 남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일 지도자의 독재 체제 하에서 지도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카타스트로피'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전권을 장악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게 되면 어떤 조직도 당황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어려움이 남북관계의 혼란과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고 죽은 지도자의 유혼

을 새겨보면서 이 어려운 권력 승계의 과정을 잘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큰 무리 없이 권력 승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도 근본적인 권력의 안정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시다시피 현대국가에서 권력은 민심의 안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심이 흔들려서는 권력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권력 안정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의 바닥이 아주 크게 허물어져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침체와 도탄에 빠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지금도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경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자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일 만큼 크게 무너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북한은 그간의 핵무장 노력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권력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현실적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 글자 그대로 나라 안에서는 경제가 피폐해 있고 나라 밖으로는 국제관계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외형상 원만하고 비교적 순탄하기는 하나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 군부의 최고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영호 총참모장이 모든 직책으로부터 해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권력 승계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부의 권력 투쟁 요소를 안고 있는지 또는 이것이 선군정치가 선민정치로 넘어가는 징후인지 또는 이것이 북한 권력 기반의 약화를 의미하는지 개혁 개방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도부가 다 모인 자리에서 미키마우스 공연이 이루어지고 여차여차 하는 음악

들이 연주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개혁 개방의 신호탄이나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북한이 변화가 불가피하고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준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 않듯이 북한에서 이러저러한 그림이 몇 장 보여 졌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의 큰 줄기를 보면서 북한의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는 생각은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화해야 하고 또 그런 변화가 오도록 우리가 가능하면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혁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 가운데 문명사적 변화라 일컬을 만한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혁명’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같이 숲 속을 들판을 헤매고 다니던 인류가 정착해서 농경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인류는 사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지식을 축적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변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던 인류가 수 만년에 걸쳐서 큰 변화 없이 살아오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변혁을 맞이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대규모 노동 계급이 만들어지고 또 자본가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런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시장이 사회체제의 기본으로 자리 잡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개개인의 인간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 십 년 또는 백 년, 이백 년이 지나고 보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이 자리잡은 걸 알게 됐어요. 과거처럼 살면 죽거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도

저는 그런 변화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큰 소용돌이를 지나왔구나, 과거처럼 살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아주 시골에서 다녔어요.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은 소를 먹이는 친구도 있고 어물전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친구도 있고 고무신 장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찌다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한번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류 교수, 자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했고 유학 가서 박사도 하고 서울대학교수도 되고 그렇게 똑똑한 친구니까 ‘내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는 건 없지만 질문해봐라.’ 하니깐 이사람 하는 말이 ‘나는 말이지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중간 이상은 갔고 뭐 영 나쁜 짓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교통 딱지 하나도 받은 적 없이 일생을 살아왔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웃 어른에게도 인사를 잘했다’ 이 겁니다. ‘고향에 남아서 도시로 나간 일가 친척들 산소에 별초도 해줬고 상을 당해서 상여를 메는 데, 장사지내는 데 가셔도 봉사했다. 마을에서 이장도 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열심히 돕기도 했다. 정부 시책에 늘 호응했고 그리고 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부모가 앓아누웠을 때는 정말로 성의껏 봉양을 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한 건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육십 평생을 살고 보니 빛 밖에 없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 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잘 알거든요. 제가 가면 끄찍이 저를 위해주는 친구입니다. ‘술 한 잔 하자’고 했다가도 ‘너는 교수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 술 먹어서 머리 나빠지면 되겠느냐. 술 조금만 따라서 맛만 보고 내려놔야 된다. 술은 우리가 먹을게. 너는 빨리 들어가서 책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밤 늦게까지 있으면 되느냐. 인사했으니 들어가라.’ 이럴 정도로 저를 끄찍이 위해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무얼 잘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된 게 없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나라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빗박에 없고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못 가고 이 지경이 됐느냐? 그리고 고향을 떠난 친구들이 에쿠스 체어맨 타고 올 때 나는 차도 없다. 다 떨어진 경운기 저거 빗내가지고 얻은 거 밖에 없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큰 잘못을 한 거야.’ 무얼 잘못했냐면 세상이 변했는데 세상이 변하는 것을 따라잡지 못한 그 잘못이 큰 거야.’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너만 안 변하고 있으면 세상이 가버려.’

낙동강가에 집이 있어가지고 강가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그때 말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강을 헤엄쳐서 건넌습니다. 강가에 살았으니까 동네 청년들한테 이끌려 가지고 헤엄을 쳐서 건넌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하나 알아낸 게 있습니다. 강은 똑바로 못 건넌다, ‘강을 건너서 헤엄칠 때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면서 건너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해줬습니다. ‘강물은 흐른다. 너가 낙동강가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흐르는 강물을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건너면 빠져 죽는 거야. 강물은 흐르는 거야. 흐르는 변화를 타지 않으면 빠져 죽는 거야. 세상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다고 우기면 그것은 세상에 깔리는 거야. 그걸 왜 모르냐?’

철공소를 열심히 한 친구 망했습니다. IT시대에 아직도 철공소를 하면서 밤낮으로 용접을 해보야 안 되는 거예요. 빗만 늘지. 할아버지가 짓던 농사 계속 열심히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농업은 상업적 농업으로 변해 버렸고 도시 경제가 농업을 뒤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상에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났을 때 뭐 아무개 아무개가 잘못했다, 아무개 회사가 정신 나간 짓을 했다, 미 금융가 월스트리트가 이상한 도덕 불감증에 빠졌다, 뭐 단기 경영을 하는 금융인들이 못한 짓을 했다, 여러 가지 진단이 많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 사람들이 돈을 사재기만 하고 안 써가지고 이런 거

야, 중국·일본·한국 이것들이 저축만 하고 돈을 안 쓰고 남의 나라 와서 팔아먹기만 하고 그러다 빚을 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다 난데없이 미국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는데 미·중 간에 이른바 화폐전쟁, 금융전쟁이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실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다시 강의를 하고 있을 땐데 이른바 당대의 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마 내 기억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 금융 위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 금융 위기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쯤 해보자는 거예요. 할 일이 그렇게 없냐, 1년씩이나 세미나 하면 금융 위기 지나갈 텐데, 그래도 해보아야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으니 해보자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경제인이 아닌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실장 했다고 해서 끼워준 것 같은데 앉아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한참 하고 나니까 ‘미국이 잘못했다’와 ‘중국이 잘못했다’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요. M1이 어떻고 M2가 어떻고 무슨 시장 경제가 어떻고 관치 시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덕의 문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몇 달 동안. 어느 날 사회를 하는 분이 ‘류 실장도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좀 듣자.’ 이랬더니. ‘아니다, 당신은 그래도 국정 전반을 들여다 본 사람 아니냐. 그러니 얘길 한번 해라.’ 전부 다 날 쳐다보는 거야, 열 대여섯 명의 당대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금융 위기를 진단하니 답이 안나온다. ‘당신들이 일 년 내내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줄 아느냐. 금융 전문가들 눈에는 모든 것이 금융으로 보이는데 답이 나오겠냐? 당신들은 매우 정교한 이론과 전략과 데이터로 매일 토론하고 있으나 내가 보기엔 답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금융에 나타나는데 금융의

문제가 아니란 게 무슨 말이냐?’ 이래서 ‘지금 문명의 판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는 본다. 전체 판이 흔들리는데 어디가 더 높으니 어디가 더 낮으니 뭐 이런 얘기를 밤낮 해봤자 이걸 코끼리 다리다 이거는.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열나는 사람한테 해열제 먹이는 것밖에 안된다. 난 당신들 진단이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화가 벌컥 난거예요. ‘당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내가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데 왜 얘기를 시키느냐?’ 그랬더니 그 중의 한 분이 ‘애길 계속 해봐라. 헛소리라도 계속 들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럼 내가 헛소리를 계속 할 테니까 뭐 헛소리라도 참고를 해라.’ 하고 ‘지금은 문명의 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런데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마찰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 마찰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문 중에 가장 민감한 부문인 금융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덜 민감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내 말이 맞는다면 이 금융 위기는 금융 부문 중에서도 덜 민감한 재정 부문으로 넘어갈 것이다. 재정 부문에서 이게 위기가 한창 흔들림을 떨고 나면 실물 경제로 넘어갈 것이다. 실물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세계 지도자들은 모여서 정치 위기라고 떠들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당신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란다.’ 그랬더니 전부 벌레 씹은 표정으로 ‘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세미나를 다 망쳐놨다’고 했어요.

그러고도 몇 번 나갔는데 저한테 말 안 시키더라고요. 시켜봐야 도움이 안되는 잡음만 내기 때문에 안 시키더라고요. 다행이 그때 한 얘기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녹취를 해서 그 해에 책으로 냈습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어느 책에 보면 몇 줄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 뒤에 저에게 기회를 안줬거든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실물 경제의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국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고 마침내 한국은 행동 이자율을 낮추고 우리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G20 유럽정상회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만날 얘기하는데 얘기해봐야 답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아직 문제 전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요. 독일이 돈을 내야 되느냐, 이탈리아가 시인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가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무슨 헛소리냐 국민투표가, 이런 시비만 하고 있지 아직은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판에 다시 선거가 치러지게 되니까 이제 선거판 사람들은 재벌을 어찌 해야 되고, 대기업을 어찌 해야 되고, 기업들을 두들겨 패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업도 아니고 정치인들을 잡아야 해, 전 세계가 지금 정치인들 잡기에 정신이 없어요. 국민은 어디에선가 책임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EU의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부도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문명의 판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작동했던 원리가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유효했던 이론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할아버지 짓던 대로 농사지으면 됐지만, 오늘은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어제까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오늘 안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방향을 지시해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르코지도 그래서 떨어지고, 메르켈도 인기가 떨어지고, 중국 지도자, 미국 지도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그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정신 안 차려서 그럴까요? 자본주의 위기라고 막 떠들고 99대1이니 경제 민주화니 2.0이나 3.0이니 온갖 소리가 다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 실체를 문명 변화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것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중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대중이 문명의 판이 변화하는 걸 알겠습니까. 그리고 문명의 판이 흔들리는 맨 끝에는 새로 개편된 세계 질서, 새로 개편된 산업 질서, 그리고 새로 개편된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요동, 그런 흐름 속에

서 문을 짹짹 쳐박고 백성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굽는지 쳐다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집단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던 중동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에 따라서 재정을 다 장악한 그 독재 체제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나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그리고 중동을 건너서 이제는 미얀마까지, 이것도 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의 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신들의 지도자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신들의 체제를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민중의 노력, 민중의 요구 이것이 큰 흐름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달랑 있으면 벽을 높이 쌓고 막으면 되는데 그것이 금융질서와 SNS와 교육과 건강과 문화와 온갖 것이 전부 문명이라는 이름 하에 엮인 것들이 전부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배운 교과서를 들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미안하지만 안됩니다. 제가 30년간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지리학회 10여 년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80년대 유효했던 논리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90년대에 정답이었던 것이 이제 정답이 아니예요.

정답은 무엇이나? 정답을 찾아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답을 찾아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내다 봐야 된다. 사물과 현상의 실질을 꿰뚫어봐야 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자유로운 사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정부 초기에 이 대통령께서 실용주의적 접근, 실용주의적 정책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실용주의란 관념과 추상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과 현상의 실재를 꿰뚫어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 위기 왔는데 재정 위기 왔는데 교과서에 보면 있습니까? 글로벌 재정 위기 교과서에 있어요?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까? 통화량이 부족하면 통화량을 늘리고 재정 조기 집행이 필요하면 재정 조기 집행을 하고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면 통화 스와프를 하

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현상을 뚫고 나가는 게 답이에요. 물론 원칙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기본 원칙과 목표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동원할 때는 유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에 맞서면 떠내려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리막에서 위로 치면 깔리는 거예요.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유연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저게 뭐 이것저것 넣고 흐물흐물 하자는 거 아니냐, 저거 또 큰일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연화 해봐야 지가 손바닥 안이지 어디까지 가겠냐?’ 이런 얘길 해요. 유연화는 실제로는 조치로서 나타나지만 막혔던 교류를 열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또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겨레말 큰사전 사업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개성에서 만월대 발굴 사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 문화인들, 체육인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세상을 바꾸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야 된다.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북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역사의 흐름에 맞서서 주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무력 도발을 목표로 하면 죽는다. 그건 나쁜 선택이다. 좋은 선택으로 나오너라. 좋은 선택이란 먼저 백성의 아픔, 백성에게 밥을 먹여라. 다음으로 이웃 나라와 잘 지내고 국제 사회와 규범을 공유하라. 그리고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남쪽과 손을 잡고 나아가자.’ 이게 좋은 선택이다. 그런 선택을 하면, 하겠다고 말하면 돕겠다.

그러나 만약에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미사일 발사하고, 도발하고 세계 규범에 역행하는 일을 한다면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통일해서 함께 살아야 할 다른 반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충구를 맞대고 있는 우리의 적입니다. 이 모순된 두 가지 사실, 이것을 조화롭게 엮어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변화하도록 돕겠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시하고, 자꾸 도발한다면 그것을 응징하겠다. 강온이 조화를 이루고, 강하고 부드러움이 서로를 돕게 해서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남과 북이 민족이 공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발상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더니 시작이 돼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덜커덕 사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북한은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움츠리고 대외 관계를 전부 다 접고 들어앉은 꼴이 됐습니다. 남한 최고의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그저 현상 유지. 다만 가만있을 수가 없으니까 온갖 욕을 해대는 겁니다. 자기네 새로운 권력에 대하여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 남한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문사 좌표도 옮겨보고 대통령도 임종이 가까웠다고 하고 통일부장관 오늘 내일 죽인다고 하고 뭐 이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곤궁하다 보면 무슨 소리라도 한다. 적극적으로 보면 관심의 표시 아니겠느냐. 욕도 안 하게 되면 이걸 진짜 곤란한 겁니다. 욕이라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명박 정부는 ‘류 장관이란 사람은 회담도 한번 못했지 않냐? 남북회담도,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 남북관계 최악이다, 파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제가 하는 말

쓰름 잘 들어보세요, 남북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회담을 몇 번 했느냐, 물건을 얼마나 서로 팔고 샀느냐로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 이걸 성공시키고 실패시키는 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북한에서 합니다.

북한에서 회담 하기 싫으면 안하거든요. 북한이 교류 하기 싫으면 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회담 하고 싶으면 회담 하고 교류 하고 싶으면 교류 하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책의 성패에 관한 열쇠를 북한에 넘겨주는 이런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정책의 성패를 북한이 결정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담을 좀 해야 성과가 난 걸로 보일 텐데, 북한이 안 응하는데, 북한이 응하는 방법 뭐 있어요. ‘뭘 좀 주면 하지 않겠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 그래 받았으니까 한번 내가 만나줄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하다가 ‘더 안 주냐?’ 하면, ‘아까 줘줬어요.’ 그러면 ‘관 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갖다 줘야 돼요. 그럼 더 많이 갖다 줘야 해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의논할 일 있으면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을 했는데 북한이 어려우면 내가 열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하나를 내놓고 내가 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이고 정당한 관계로 만나야 일이 되는 거지, 만나기 위해서 돈 주고, 도발하지 말라고 돈 주고, 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앞에 실적만, ‘나는 다섯 번 만났다.’ 이게 성공한 남북관계입니까? 어느 날 아침에 대포 한 방이면 다 날아가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적인 남북 관계가 아니다. 그럼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교류 협력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대화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이 건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북한이 뭐라 하던 우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남북대화도 되고 교류도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대화·교류에만 매달리면 안돼. 북한이 행패만 부리지, 도발하고, 보상받으

면 대화하고, 또 도발하고, 보상받고, 대화하고, 20년간 했잖아요. 20년간 한 결과가 뭐니까? 아무 것도 없이 빈 손 털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만약 우리가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남북관계를 쌓아나가는 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멀리 와 있을 겁니다.

그럼 통일 준비는 뭘 하는 거냐? 북한이 뭐라 하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통일 의지를 굳건히 하게 하는 것. 통일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통일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을 하게 될 때, 했을 때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독일 통일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돈이 드는데 그 돈내기 아깝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그거 통일 피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피하는 게 아니라 벌고 모아야 해요.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일은 우리 통일에 관여할 수 있는 이웃 나라들을 설득해야 돼요. 우리 통일 하려고 한다, 꼭 한다, 우리가 통일 하면 이런 나라를 만들 텐데 너희들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상생공영과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 한국 만든다. ‘당신들이 염려하는 건 안할 게, 걱정 마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일 외교라고 합니다. 외교해야 돼요.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돼요. 어떤 나라가 팔을 걷어붙이고 한국 통일을 위해서 나서겠어요.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거 허황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통일하겠다고 하고, 통일의 청사진을 내보내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상하고 좋아 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통일 외교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유를 찾아서 먹고 살려고 넘어온 탈북민들 포용해야 됩니다. 왜 끌어안아? 탈북민이 2만 4천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대륙을 헤매고, 동남아시아 정글을 뚫거나, 시베리아를 건너서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2만 4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2만 4천 명을 끌어안아서 우리의 건강하고 좋은 이웃으로 만들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통일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통일은 힘든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2만 4천 명도 끌어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2천 4백만과 통일하려고 합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을 끌어안는 것은 우리 통일의 첫걸음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통일 노래만 부르고 있어선 통일이 안돼요. 통일이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체계는 어떻게 하고, 교육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철도는 어떻게 고치고, 도로는 어떻게, 항만·공항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 준비해야지, 준비 안하고 있는데 통일 하자면, 준비 안됐으니 나중에 하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느냐? 이걸 제쳐두고 만날 북한 보고 회담합시다, 안 해, 그러면 기다릴게, 돈이나 좀 갖다 줄까?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강은 또는 강함과 부드러움 이런 것을 아주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한쪽으로는 대북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쪽으로 통일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일 준비를 묵묵히 해나갈 때, 저기 갖다 놓은 통일 항아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설 때 그리고 그 줄 뒷자리 속에 어딘가에 미국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도 설 때 우리 통일은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실현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이웃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통일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힘을 보태는 게 낫겠다. 괜히 모른 척 하고 있다 가 훗날 크게 경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거 뭐 의논해서 우리한테 해가 안 되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가만 앉아가지고 이

려고 있는데 어느날 와서 통일해 드릴갑쇼,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저한테 많은 지인들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류 장관!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당신도 평소에 학자로서 나쁜 짓 안하고 잘 지냈는데 그저 마무리나 잘하지 왜 항아리를 올려메고 그러고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통일 준비도 시간이 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올지 몰라. 지금 세계의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북한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이 시점을 하루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내가 장관을 물러나게 되면 다음 장관이 계속 하는 거다, 이걸 바톤 터치다, 통일을 임기 단위로 끊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한건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통일부장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느 토막을 해내고 나면 그 다음 토막은 다음 장관이 하는 거고, 우리 실국장들이 어느 토막을 하면 그 다음 토막을 다음 실국장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언젠가 통일 이루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5년 단위로 잘라서 이벤트나 하는 걸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왜 통일 준비 하는지 통일 항아리는 왜 만들었는지 이거 만들어서 어떡하자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통일 항아리에 국민의 성금이 모여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세상을 설득시키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성금으로,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서 결집되어서 항아리에 담기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항아리가 망치로 때리면 깨지만 천년을 물어뒤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결집되어서 담길 때 이 항아리는 핵폭탄 보다 강할 수 있다, 핵은 조국을 통일시키지 못하지만 항아리에 모인 의지는 통일을 시킨다. 핵은 파괴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성이 그런 뜻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데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1세기 경영을 내다보는 경영인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미국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서민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밥술이라도 먹고, 뭔가 세상을 위해서 앞서서 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바이체커 대통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류 장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나는 한국민들이 독일 국민보다 더 통일 준비를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을 한국민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독일 통일 당시 대통령이, 지금도 가장 독일 국민의 존경을 많이 받는 92세의 노인이 지난 2월에 저를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통일 준비에 나서세요. 그래서 저는 통일 준비에 나섰다. 항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짚어지고 제주까지 온 겁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께 왜 통일 준비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의 단초라도 제공하였다면 저는 큰 영광으로 그리고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연

일시 : 10.4(목) 14:00~15:20

장소 : 파천 중앙공무원교육원

대상 : 제57기 신입관리자과정 교육생 320명

근래에 들어본 박수 중 가장 열렬한 박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서 통일정책과 북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곤하더라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지막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지도자로서 또는 당장 얼마 후부터 국가의 주요한 업무를 담당할 관료로서 혹시 막연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통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막연한 생각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 또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는 국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려는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부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통일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국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관료가 되도록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막연한 생각이란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혹시 막연한 생각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 막연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냥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뭐가 되긴 되겠지, 이런 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몸이 좀 약하긴 한데 뭐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남들도 다 집이 있으니까 나도 있다 보면 뭐 무슨 수가 나긴 나겠지, 이런 게 다 막연한 생각이예요, 막연

한 생각. 아주 대표적인 이런 것입니다. 그날 그날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지나가는 거야, 며칠 있다 사무관으로 부임하겠지만은 그럭저럭 지나다보면 그러면 과장, 국장까지 가지는 않겠어, 다음에 연금 받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대로 편안하게 지나가지 않겠어, 이런 게 막연한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이끌어갈 장관도 나오고 차관, 실·국장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장래나 국정의 과제나 또는 인류 보편의 과제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눈에 초점이 잘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뭔가 자기 하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거 확신만 갖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통일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여러분들도 노래 다 알 것입니다. 부르다 보면 중간중간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서 어물어물하지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의 시작은 다 할 줄 알 것입니다. 그 노래를 67년간 불러왔습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보면 통일이 되겠지, 앞으로 67년을 더 그렇게 해도 통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막연하고 확신이 없고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관에 취임해서 조사를 이렇게 좀 해보니까 우리 국민 중에 한 80% 정도가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20%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통일 꼭 해야 해?’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일 그거 꼭 해야 하나’. 지금 벌써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막연합니다. 또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좋지만 잘 되겠어’, ‘미국, 일본이 해줄까?’, ‘중국이 뭐 말 듣겠어, 안 될꺼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연배의 사람들 20대·30대 젊은층이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것도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잘 한 사람,

그리고 집에 먹을 게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말들 중에 나약한 지식인이란 말이 있지만 정말로 나약한 생각입니다. 일제시대에 나약한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조선 독립은 중요하다, 그런데 독립이 잘 되겠냐, 일본이 저렇게 강성하고 아시아를 다 먹고 하와이까지 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일본에게서 독립하겠는가, 잘 안될 것 같아’,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다고 헛되이 목숨을 버리는 젊은이들, 또는 일본 사람들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애를 끌어안고 학교 안 보내서 무식하게 만드는 시골의 한학자들, 이거 딱한 사람들이다, 내일 모레 내다볼 수 있는 시기에 독립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자꾸 희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지식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제 치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 문관시험도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본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일제 치하에서 열심히 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독립은 금방 안 될 것 같으니 이 체제에 순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학병도 가고 일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다. 조금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선 청년들의 실력을 길러라, 그런데 협조하는 게 낫다, 독립은 언제 될지 모른다, 안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글도 쓰고.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친일파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조선 청년들과 처녀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소수예요. 친일파라고 불리는 많은 지식인들은 조선의 독립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대 급부도 별로 없는데 그냥 안 될 것 같아, 회의에 빠져서 청년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던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 그거 꼭 해야 해?’, ‘지금도 견딜 만한데, 지금도 살 만한데, 그거 잘 되겠어?’ 이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특히 대학에서, 국립대학에서, 30년간 월급을 받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여가만 나면 사무실을 나와서 강연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강연 이름을 우리 직원들이 ‘류우익의 통일 준비’ 이래가지고 ‘류통준’이라고 불렀어요. 류통준이 지금 45번째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1년에 그만큼 했으면 많이 한 거지.

통일에 대해서 가장 막연한 생각 첫 번째는 ‘통일 잘 되겠냐? 통일 꼭 해야 되냐? 지금도 살 만하잖아.’ 여기 봐봐요. 근사한 옷 입고, 집에 가면 어머니 명품백 들고 다니고, 아버지 무슨 프랑스제 이태리제 벡타이 매고 다니고, 차, 딱 두껍고 긴 차 타고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 여권 내밀면 ‘아, 코리아’, 대접해주고, 살 만하잖아. ‘뭘 살 만한 걸 살 만하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막연한 생각.

두 번째 막연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러고 있다 보면 혹 통일 될지도 몰라’,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 통일이 될지도 몰라. 언제 될지는 몰라’, 이런 막연한 생각. 누군가 통일을 시켜줄지도 모르지, 그리고 어찌다가 통일이 될지도 모르고, 이거는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한데 당장은 안되고 누군가 해주고, 어물어물 하는 겁니다. 통일만 나오면 ‘그거 골치 아픈 주제야. 지금 이야기하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그냥 지내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정신차리고 들어야 해요. ‘북한하고 잘 지내다 보면 통일이 될 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단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언젠가 통일이 될 거야’, 분단 관리는 통일로 가는 길이 맞습니다. 분단을 잘 관리해야 해요. 평화도 관리해야하고. 그런데 분단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통일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도 막연한 생각이다. 분단을 잘 관리하면 분단이 고착되는 것이예요. 알겠어요? 말이 되요? 분단을 잘 관리해서 통일로 가는 것은 맞지만은 ‘분단만 관리하고 앉아있으면 통일이 된다’, 이렇게 믿는 생각, 이걸 막연한 맹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통일이 안돼. 통일은 노력하고 준비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분단 고착적인 사고가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다면 그럭저럭 언젠가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교류하고 협력하다 보면 뭐 동질성도 생기고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통일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안전한 통일의 길입니다. 원만한 통일의 길이에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통일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막연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 막연한 생각이지요. ‘지금까지 뭐 그럭저럭 평화가 유지되고, 가끔 사고가 터지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분단이니 통일이니 하는 주제를 우리의 현실적인 주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는 상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왜 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67년을 보냈고 그런 생각을 지난 20년을 보내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헌법 전문에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핵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지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건 상수로, ‘설마 뭐 쏘겠어’ 이런 생각, ‘설마, 그래도 그렇지 자기 민족한테 쏘겠어? 미국이 자꾸 뭐 이렇게 겁나게 하니까 그런 거 가졌겠지’, 막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후배들은 지금도 전방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사십 몇 명씩 수장이 됐어요. 그래도 막연한 생각을 할 겁니까?

통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3가지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통일은 꼭 하지 않아도 돼. 통일하기도 어려워’,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그럭저럭 하고 있다 보면은 통일이 돼’, 이런 거고. 세 번째는 ‘평화, 지금까지 그랬는데 뭐’ 하는 생각.

폭탄 돌리기 알아요? 그런 게임 알아요? 여러분 머리에 폭탄이 있는 거예요. 폭탄 대신 물바가지 같은 거. 사람이 한 열 명이 돌리는 거야. 언젠가는 이게 터져, 내 머리 위에서 안 터지고 다음 사람 머리 위로 넘어가면 깔깔대고 좋아하는 거야. 너다, 또 안 터지고 넘어가면 좋아하는 거야. 이게

나한테까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디에선가는 터져. 내 머리 위에서 안 터지면 된 거야. 물바가지는 그 사람만 뒤집어 쓰지만 폭탄은 다 죽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고 고약한 사업이 하나 오는 거야, 이거 폭탄이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터진다고 서랍 밑으로 맨 밑에 서랍에 딱 집어넣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안 터지면 되는 거야. 다음 사람에게 인계되고 터지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이런 것도 폭탄 돌리기에요. 그런데 민족의 안위가 걸리고 국가의 안위가 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폭탄 돌리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 덮어두면 안돼. ‘문제가 여기 있다.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애매한 생각으로 ‘거 뭐 별일 있을라고.’ 여러분 그런 법칙 알아요? 별 일이 있을 만한 일은 꼭 별일로 터지는 법칙. 그런 법칙이 있어요. 또 그것이 터질 확률이 50%고 다음 게 터질 확률이 50% 그 다음 게 터질 확률이 50%고 이게 한 5단계 걸쳐서 그 어려운 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설마 그 일이 터지겠느냐고,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꼭 터져.

절대로 통일 문제 그리고 더 넓게는 국정의 과제는 어물어물 애매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확실히 확실히 파악하고 신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앞으로 통일부에 올 사람이나 또는 다른 부처에 갈 사람들에게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은, 애매한 생각으로 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관 첫 부임하던 날, ‘뭐 여기서 그럭저럭 버티다보면’, 이런 애매한 생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부처를 가든 확고한 생각,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당장 오늘은 가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행동으로, 공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통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글을 썼고 많은 사람이 노래를 불렀고, 앞면 통일 이야기했지만 통일 됐어요? 왜 안 된지 아세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통일 세대인 통일 시대의 우리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져야 한다,

통일 반드시 해야 하고 꼭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두고자 합니다. 지도자란 또 내 운명뿐만 아니라 남의 운명까지도 책임져야 합니다. 공직자란 들판이나 바닷가에,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달리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미래,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나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내가 공직자로 일하면 어떤 나라 만들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나라 만들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해요. 장사하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 회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내 가게 어떻게 만들겠다.' 그러나 공직자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어디로 내가 끌고 가겠다', 확신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뭘 할거냐? 그걸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알아야 해요. 어 뭐 그거 국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바에야 여러분 사무관들이 뭐 필요해요. 주무관, 주무관도 필요 없어요. 미스 김만 있으면 돼. 미스터 리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누가 못해. '내가 무엇을 할 거냐?' 하는데 대한 자기 나름의 자기 행동 수칙이 있어야 하겠다. 이게 없이 어물어물 들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이 시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소리, 유성기 돌아가는 소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왜 통일하려고 하느냐? 통일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건 하에 있는가? 이거 정확히 알아야 해요. 경제 부처로 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제의 흐름, 한국 경제의 현 위치 또는 한국 경제의 내부, 이것을 모르고 경제정책을 한다고 앉아서 교과서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예요. 안보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안된다.

그러면 통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통일과 관련해서 3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세계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질서의 판 자체가 흔들린다.' 지질학에서는 판 구조설이라고 판이 이렇게 지구 껍데기 판이 움직입니다. 판이 부딪치면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납니다. 이 판 자체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 질서의 판이. 그러니까 중동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민주화 바람도 불고 세계 최선진국이던 미국이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복지 지역인 유럽이 재정 위기에 빠져든 겁니다.

판이 흔들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중국이 G2로 떠오르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1980년에 서울대학 교수로 와가지고 중국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돌았다', '아직도 상해 가봐라. 강가에서 위에서는 요강 씻고 아래서는 물 퍼먹는 사람들이 있고, 시골에 가봐라. 화장실도 없는데 무슨 중국이', 요새 내가 중국이 중요하다고 하면 '누가 그걸 모른대.' 그러니까. 불과 한 30년 사이에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판은 점점 더 거세게 흔들리고 있어요. 금융 위기에서 시작된 이 요동은 이제 재정 위기로 갔어요.

다음에 뭐가 올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재정 위기 다음에 뭐가 와요? 실물 경제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내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실물 경제의 위기가 오면 비로소 전 세계의 정치권이 정치적 위기라고 떠들어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몇 달 만에 끝날 성질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느냐. 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명의 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 작동했던 룰과 원칙이 내일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판이 흔들리는 이런 시기에 어딘가 그 흔들리는 초점이 되는 곳이 동아시아다. 그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는 겁니다. 상황은 이래요.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대학 다닐 때 한국 경제 곧 망한다는 사람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망했어요. 안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 경제 위기 한복판에서 전 세계에서 신용평가사에서 연달아 한국 경제의 신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국내에서만 한국 경제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 연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나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중에 가장 안정 중에 운항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한류, 내가 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K-POP, 싸이, 한류 난리가 났어요. 한국 화장품이 난리 났어요. 한국 의술이 난리가 났어요. 한국 과학 기술이, 한국 제조가, 한국 스포츠가, 축구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융성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과학기술에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약하는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몰라. 우리가 맨날 망한다고 떠들고 있으니깐. 한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국운이 융성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 물론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살피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 대한민국 그 자체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이지요. G20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서가지고 ‘다음은 덴마크 국왕입니다. 다음은 영국 총리입니다. 다음은 일본 수상입니다. 다음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접견을 짝 하는, 한 분씩 의장으로, 그런 걸 봤어요. 나는 정말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100년 전에 헤이그에서 우리 열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비록 분단국가지만은 세계를 그것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만을 모아놓고 의장을 하고, 먹이고, 재우고, 의제를 설정하고, 조정하고 레커멘드하고 프로포즈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반대쪽, 반대쪽이라

고 하니까 이상하고 북쪽,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객관적인 것만 내가 이야기할게.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그리고 교역량이나 일인당 소득이나 그런 거 보면 수십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가는 일,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베를린 장벽은 왜 만들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동베를린을 탈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 장벽이 전뒸습니까? 결국은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땅을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주민들의 생활고를 돌보지 않은 채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변해도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심지어는 수십만씩 아사자가 날 때도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은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핵안보정상회의 때 스피치를 한번 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보다는 먼저 백성들을 먹여살려라. 민생을 먼저 돌봐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발표된 시정 연설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민생을 돌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의 권력 구조가 안정되었냐고 나한테 계속 묻습니다. 외국인도 묻고 내국인도 묻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안정됐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하는 데 외형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비교적 권력 이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장악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북한 권력은 이제 안정된 거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안정된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수천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기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요. 이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생활을 돌보면 좋겠다.

그게 먼저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 민생이 흔들리고 도탄에 빠져 있어가지고는 권력이 안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대에 국가는 국제 관계 속에서 안정되는 겁니다.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는 권력이 안정되는 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북한의 정세는 외형상 권력승계가 이루어졌고 그러나 불안정 요소는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나? 이 세 가지, 세계 질서는 요동치고 있고, 대한민국은 융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은 채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안은 채로 대한민국의 국력은 신장되고 융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도 없는 세계 어떤 나라와도 교류가 없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잡히기도 하고, 때론 죽기도 하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지금도 한 달이면 수 백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탈북민이 2만 4천 명을 넘어 셧습니다. 2만 4천, 작은 것 같으세요? 절대로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이 2만 4천 명 끌어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 잡게 정착하게 하는 것 이게 통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분명히 탈북민이 있을 겁니다. 키가 좀 작고 악센트가 이상합니다. 그지요? 음식점에서도 만나고, 공장에서도 만나고, 가게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물정에 어두워 생똥맛은 소리를 가끔 해. 어떻게 생똥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체제 하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떨어진 대한민국이, 비록 말은 같지만 어떻게 생똥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있다면 팔 벌리고 그 어눌한 사람들, 그 키가 좀 작고 때로는 생똥맛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2만 4천 명을 끌어안는 것이 통일의 시작입니다. 2만 4천의 탈북민을 끌어안지 못하고는 2천 4백만의 북한 주민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왜 통일해야 하는가? 2만 4천 명은 왔지만은 2천 4백만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사

람들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어 우리 괜찮아 살만해. 죽는 거, 다 자기 잘못이지.' '자기 팔자지.' 이러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내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은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알게어요. 한반도가 통일되는 국가로 몇 년이나 있었는가? 통일 신라부터 쳐도 1,300년 이상을 단일 국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1,300년입니다. 비록 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침을 받고 그랬지만 1,300년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온 조상들입니다. 우리 세대에 와서 이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 백만 원짜리 핸드폰을 넣고 다니고 그리고 근사한 양식도 먹고 해외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꺼떡거리면서 살지만은 사실 꺼떡거리릴 일이나, 우리보다 훨씬 못 살던 우리 조상들도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때는 강대국이 없었습니까? 그땐 침략을 안 받아서 그랬겠어요? 우리가 꺼떡거리면서 사는 동안 조상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것들이 집안 하나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뭐 저렇게 꺼떡거리면서 다니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300년 단일 국가를 원형대로 복원시키고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국인들, 여러분들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분단의 굴레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서 분단의 족쇄를 풀 수 있도록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살 만하다고 적당히 살다 죽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통일된 한국은 인구 8천만의 강대국입니다. 지금도 개성공단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아주 잘 결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통일이 되어서 결합이 된다면 또 한번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항간에는 통일 비용이 들어서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 들어가지요.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대만 60만이에요. 북한 군대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160만 이게 생산력에 투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통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매일 보고 있습니까? 누적되고 있습니까? 이게 분단 비용이에요.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은 제로, 그날부터 통일 편익이 쌓여갑니다. 어떤 편익이 있습니까?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자본과 기술이 노동력과 결합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 지나서 신의주 지나서 심양으로 대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북경으로 충칭으로 인도로 터키로 갈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청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이르쿠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를린, 파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거꾸로 보면 압니다. 중국의 동북 지방, 중국의 만주라고 불리는 동북 지방은 지금 중국의 낙후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공업의 선도지역이었습니다. 왜 낙후 지역이 되었을까요? 태평양으로 나갈 항구를 못 찾아서 낙후 지역이 되었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대륙과 다시 결합할 수 있다면 한반도가 갖는 이점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지정학적 이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보면 통일 한국의 위상을 한번 상상을, 계산을 해보면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통일을 준비하자고 합니다. 통일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통일은 여러분과 같은 통일 세대, 그리고 나 같은 이제는 곧 은퇴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합니까?

통일 준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말한 애매하고 막연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통일을 해야 하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통일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인식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통일하면 돈 들잖아요. 북한의 인프라를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보면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공장 다 바뀌야 합니다. 대학 시설도 다 바뀌야 해요. 북한에 사회보장시설이 있습니까? 다 새로 해야 해요. 병원 작동합니까? 학교 작동합니까? 이거 다 다시 해야, 통합 과정에서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고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통일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통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 민간단체가 통일 계정에 통일 기부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름을 내가 ‘통일 향아리’라고 붙였습니다. 들어봤어요? 통일 향아리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통일 향아리 만들었어요. 향아리 뭐 하는 거예요? 향아리에는 술과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향아리입니다. 뭐 하려고 보관해요? 먹고 살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향아리에는 음식과 술을 보관합니다. 어머니들이 쌀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나와서 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쌀, 보리쌀, 콩, 조, 우리 식구들이 다 먹기에 넉넉지 않아. 그럼에도 그 쌀 한줌을 들어 향아리에 넣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릴 때 봤어요 직 접,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 쌀을 일껏 퍼내와 가지고는 한줌을 털어서 향아리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뭘 저렇게 할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자꾸 쌀을 향아리에 넣고 있습니까?’, ‘너도 크면 안다.’ 이러더라구요. 커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실컷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비록 우리 모두가 힘들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집안에 큰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주부는 그날에 대비해서 쌀을 털어 내놓는 겁니다. 주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식구가 이거 다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한줌을 털어내서 향아리에 넣었다가 그 향아리가 가득 차면 혼사, 장례, 사고, 질병, 이런 거 터지면 향아리를 비우는 겁니다. 나는 그런 광경에서 착상해서 이걸 향아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살기가 팍팍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통일에 대비해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정성, 도리 아니겠는가?

세 번째 통일 준비하는 일은 외교예요. 여기 앞으로 외교부 갈 사람들도

있을 텐데 통일 외교 해야 해요. 이웃 나라들, 아까 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이 4강입니다. EU, 동남아 다 우리하고 협조해야 해요. 그들에게 우리의 통일을 맡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일하는 거지만,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와 지지와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통일 외교 열심히 해야 해요. ‘우리는 통일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통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 옆에 좀 서줘라. 그러고 손을 좀 내밀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건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겠다. 통일된 한국은 절대로 이웃 나라에 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역사를 보라. 우리가 이웃 나라에 가서 뭘 훔쳐온 적이 있나? 빼앗아온 적이 있나? 세상에 선진국 된 나라 중에, 모든 선진국이 된 나라 중에 남의 나라 빼앗고 훔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린 빼앗기고 얻어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피와 땀과 눈물로 선진국이 되었다. 이 역사를 보고도 못 믿느냐? 통일 한국은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적 가치,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한류, 한국적 가치를 세계를 향해 발신을 하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휘방 놓지 않고 나아가서는 돕고 더 나아가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하도록 해야 하는 거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미국 사람들이 와서 통일을 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딴어요? 그런 바보 같은 막연한 생각이 어딴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통일시켜 줄게.’ 이라고 오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사람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한때 외교관이었어요. 한때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통일 외교 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한 탈북자를 끌어안는 일, 탈북자를 포용해서 정착시

키는 일 이게 통일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해야 하는 일인데, 사회 각 부문과 협력해서 통합 과정, 통일 이후의 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통일 준비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통일 교육을 해서 통일 의지를 확고히 한다, 통일 재원을 마련하자, 통일 외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잘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통일 후의 대한민국의 모습, 그 법·제도를 대비해야 한다.

그걸 위해 통일 항아리를 내놓았다. 왜 통일 항아리를 앞에 내놓았나. 행동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해야지 말로 입술에 발린 소리로 통일, 통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내가 당장 북한 갈 수도 없지 않느냐, 항아리에 호주머니에 든 돈 몇 푼이라도 내라. 내가 문경에 있는 도요지에 40일간 드나들면서 항아리를 빚었습니다. 조수로, 진짜로 도공이 되어서 빚은 것은 아니고, 유약 바르고 글씨 쓰고 불 때고 굽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 드렸어요. 대통령께서 한달 월급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것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관도 한달 월급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에게도 물어봤어요.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국회의장이 넣었어요. 또 총리께 보고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넣었는데...’ 총리도 넣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혹시 넣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넣어도 좋다.

그런 사이에 저 전라남도 고흥 반도라고 있어요. 고흥 반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휴전선,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섬 같은 반도입니다. 며칠 후에 나로호 쏘는 거기에요. 거기에 노인들이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담배 끊은 사람은 담배 값, 채소 판 사람은 잔돈, 이거를 10여 년을 모았어요, 통일 되면 쓰려고. 그래 가지고 이천 몇 백만 원을 모았습니

다. 돈 많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힘 세고 공부 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농어촌에 촌로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된 나라에 살아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원에 갔는데, 하나원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온 지 며칠 안 됐어, 이 사람들이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정부에서 조금 연습하라고 준 용돈을 모아가지고 60만원을 줍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앞으로 뭐가 오는지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 호주머니 속에 동전 몇 푼을 모아가지고 통일시켜 달라고 '장관님 통일시켜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의 민단도 앞장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한인회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향 각지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자고 법안을 냈습니다, 통일기금법. 공식 명칭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요새 국회의원들이 판 일 하느라고 바빠서 쳐다보지도 않아. 정말 속이 답니다. 장관 속이 답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늦출 수가 없는 일인데. 이 통일 향아리 앞에 푼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줄을 설 때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고통 받는 우리 북한 주민들도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통일 향아리가 돈을 모으자고 시작했지만 돈을 모으자는 게 아닙니다. 통일 향아리는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시켜 안팎에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정말로 바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뜻을 주위에 전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난 2월에 폰 바이체커라고 하는 독일 대통령을 만났어요. 옛날 대통령이지요. 통일 독일의 대통령이고 연임을 한 아주 존경받

는 대통령입니다. 이 분을 만났더니 이 분이 날 만나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손을 꼭 잡고 50분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한국의 통일부장관이 독일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독일 학생 아니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공부했고 독일 말을 합니다.’ 이랬더니 더 손을 잡는 거예요. 50분동안 한번도 안 놔줬어요. 내가 손을 빼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잡는 거예요.

92세 노인이, 이 노인이 마지막에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류 장관, 한국에 가거든 한국 국민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시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혼란이고 재앙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나는 한국민이 독일 국민보다 통일 준비를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을 한국 국민에게 꼭 전해주시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를 내가 동의로 생각했어요. 내가 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했다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일반행정 직렬 강○○이라고 합니다. 학부 때 교수님의 사회지리학을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특강으로 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이 강의실에 있다는 것이) 교수님께서 통일 준비에 대해서 5가지 사항을 말씀해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 준비 상황에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압박하고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

옛날에 내 강의를 들은 학생이라서 금방 내가 무엇을 빼먹었는가를 알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질문은 이거 받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충분히 설명할게. 통일 준비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통일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통일을 위해서 교류 협력에만 매달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만 매달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통일정책이 북한의 선의와 호의에 매달리게 됩니다. 북한이 응해오지 않으면 통일정책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통일은 해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북한의 선의와 호의에만 매달리게 되는 통일정책은 반쪽입니다.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이 호응해 오든 오지 않든. 또 앞에서 말한 교류 협력은 북한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북한과 함께하는 교류 협력, 분단 관리 이거 마땅히 열심히 해야 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의 통일 준비도 열심히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양자가 병행되어서 조화될 때 통일은 가까워지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 준비에 대해 북한은 내 예상과는 달리 내 기대와는 달리 재미없어 합니다. 왜 장관이 통일 향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느냐 이겁니다. 맘에 안 든다 이겁니다.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통일 향아리가 맘에 안 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가 물어봤더니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솔직히 묻습니다. 장관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북한이 싫어하면 통일 안 할 겁니까? 북한이 자극이 되든 싫어하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위, 국가적 책무입니다. 북한이 싫어하는데 왜 자꾸 통일 이야기를 꺼내느냐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통일을 원하는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교류 협력이 잘 안되는데 왜 통일 준비를 하느냐, 교류 협력부터 먼저

해야지. 교류 협력도 하고 통일 준비도 해야 합니다. 교류 협력에만 매달리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북한에게 예속되게 됩니다. 교류 협력을 안 해주면 해달라고 애원하게 되고 애원하면서 돈 갖다 주게 되고 쌀 갖다 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인도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합니다. 그러나 교류 협력으로 실적을 내기 위해 돈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한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흔들리는 거 이런 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 많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은 이 진통은 무슨 진통이냐,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한 진통이다, 힘들더라도 참아내야 합니다. 당장 뭐가 경색되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또 북한 마음에 드는 일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돕겠다 이거예요. 다만, 핵개발 중단하고 무력도발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들, 주민들 민생을 살피라, 그러면 돕겠다 이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까지 돕자고 우리가 권유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핵을 개발해서 공갈치고 무력 도발하고 주민을 학대하고 그런데도 가서 만나자고 애원이나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인도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취임한 지 1년 됐습니다. 취임한 지 1년 동안에 지난 2월과 8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2번 연달아 제의했습니다. 지난 여름과 이번 여름 연달아 수해 지원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겠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이랄도 좋으니까 만나서 협의해서 대화로 풀어가자, 안하겠다. 어떡할 겁니까?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보살피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다가 WHO에, IVI에, 유니세프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돕도록.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와 당장은 대결을 하는 듯한 위치에 있습니다. 총

구를 맞댄 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언젠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반쪽, 또 다른 반쪽,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설령 막말을 하더라도 실제 대통령, 통일부장관을 비난하고 언론사 좌표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렇더라도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좋게 해서 상생공영하는 길을 찾고 통일하자. 그리고 그래도 응해오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독자적으로 통일 준비를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언젠가는 우리가 헌법에 규정한 대로 평화적으로 자유로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고 있는 짐을 너무 큰 짐을 그냥 몽땅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라도 조금씩이라도 시작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 이거 우선적으로 해서 해나가고 다른 한쪽으로 통일 준비 이것을 병행해 나가면서 양자가 조화돼서 통일을 앞당기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게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 지원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협의나 이런 것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가 계속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후에 사무관으로 부임해서 각 부처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사무관으로 성공적으로 출발하기를 바라고 거듭 강조하거니와 막연하고 애매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자기 일과 가능하면 통일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고위 공직자가 돼서 이 나라의 통일의 최전선에 설 것임을 확신합니다. 각 분야, 어느 분야에 있든 꼭 통일 분야에 있지 않더라도 각 분야에서 통일 전선의 맨 앞줄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북경대학교 강연

- 동아시아 정세와 한·중관계의 미래 -

일시 : 2012. 10. 29(월)

장소 : 중국 북경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통일 부장관 류우익입니다. 오랜만에 북경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명문 북경대학교 강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왕지스 국제관계학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영예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북경대 학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절로서보다는, 다년간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해온 학자로서 중국 문화와 중국 인민을 좋아하고 한중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전직 중국 대사로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친애하는 북경대 학생 여러분,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면서 유구한 교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 시기에는 일시 단절과 대립을 겪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는 한중 관계가 냉전의 틀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양국은 유례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며 과거의 긴밀했던 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그 너머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선린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의 발전에 힘입어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잡았고 전 세계 무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은 북한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대한민국 군함을 침몰시킨 ‘천안함 폭침’과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의 처리를 두고 불가피하게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교 20주년 행사가 양국에서 성대히 치러지는 등 양국 간에 여전히 변함없는 우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직 주중 대사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북경대 학생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전례 없이 크고 깊습니다. 나는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흔들림의 충격은 동아시아에도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아시아는 ‘흔들리는 판’의 한가운데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근대 이후 강대국 간 치열한 세력 다툼의 장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냉전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역사의 발전은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며 G2 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양국 모두 외부의 억압으로 지체되었던 발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불행했던 과거사의 잔재와 영토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 구조를 타파하고 ‘지정학적 화해’를 이루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과 ‘화해’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 과정을 가로막고 남아 있는 장애 요인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스스로를 폐쇄하고 고립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주민을 먹여 살리는 일을 우선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서도록 이끌고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그간 한국 정부는 통일보다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계속해서 남북관계에 ‘유연화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만으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 중심의 분단 관리에 더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주된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한중 수교 이래 수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대해 일관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양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다져가야 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북경대 학생 여러분,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된 중국 동북 지방을 봅시다. 이 지방은 한때 중국 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위치의

중심성과 대륙 및 해양과의 연결성, 풍부한 부존자원과 뛰어난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그 발전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분단의 장벽, 특히 북한의 폐쇄적 고립이 이 지방에까지 사람과 물자와 자본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이러한 제약 하에서의 발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동북 발전계획이 조만간 성과를 내겠지만 이 지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발전하는 길이고 중국이 번영하는 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통해 남북한과 중국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안팎으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현대화 추진 전략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문명의 관점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 문명에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를 발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의 내용을 채우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북경대 학생 여러분, 한중 양국은 2008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래 양국 관계의 고도화를 모색 중입니다. 경제·사회·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는 제도적 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내 일각의 한반도 인식 또는 한국 내 중국에 대한 일부 인식이 한국전쟁 및 수교 이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찰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한중의 조야가 서로에 대한 인식을 성찰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개와 통일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아시아 발전과 평화·번영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극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서야

합니다. ‘완충지대’라는 개념은 재래 전쟁 시대에 설정되었던 낡은 지정학적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국과 한국은 이미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결코 중국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되고 안정된 한반도는 중국이 세계 국가로 발전하는 데에 오히려 이익이 될 것입니다. 통일을 통해 태어날 새로운 한반도는 역내의 평화 구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엄청난 잠재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양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공감대를 넓혀가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북경대 학생 여러분, 이제 중국과 한국은 기존 질서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 서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세계는 중국에게 능력에 합당한 책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태도와 행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소작위(有所作爲)’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중국 스스로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강화하는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교 이후 한중 관계 발전은 탈냉전기 동북아 정세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성과가 한반도 통일을 통한 신질서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순리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 한중 양국이 상대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진정한 선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선린의 마음으로 바탕을 크고 단단하게 다져서 그 간 성취한 양국 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발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분야의 급격한 발전상을 정치·군사 분야가 따라잡아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통일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이 중국과 평화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는 이웃이 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북경대 학생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가 언제쯤 안정될지 이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믿음’을 갖고 낡은 사고의 틀과 결별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향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해 믿음으로 손을 맞잡고 ‘흔들리는 판’이 안정된 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한중 관계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힘을 보태면 동아시아가 공동체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독일이 하고 EU가 한 것을 우리가 못할 리 없습니다.

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통일부 장관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기금 적립 운동에 언젠가 중국의 인민들도 호응해 나서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한중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 공영을 위해 명문 북경대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강연

일시 : 2012. 12. 26(수)

「OUN테마특강」 녹화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입니다. 오늘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통일정책, 특별히 통일 준비에 관해서 함께 얘기하게 되어서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늘 부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몇 년을 불렀는가? 대체로 해방 후로 치면 67년을 부른 겁니다. 건국 후로 치면 64년을. 온 국민이 열심히 소원이 통일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통일이 안 돼. 그래서 60여 년 동안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노래만 불러서는 통일이 안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을 아는데 60여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노래만 부르면 또 60년이 쉽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몇 번의 60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통일이 어려워져요. 이른바 분단이 고착됩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노래 부르지 않고 통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 준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 소원은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 것, 내 소원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 경영인이 되는 것 이렇게 소원을 아침저녁으로 이야기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이루어내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는 소원이 통일이라고 노래를 했지만은 그에 합당한 준비와 노력은 안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픈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관도 별로 안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했겠어요?

통일은 준비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진다 하는 이 명제를 가장 먼저 가슴 속에 새겨야 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일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먼저 마음 속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을 원만하게 하고 통일을 돈이 덜 들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통일부에서는 5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온 국민이 특히 젊은이들이 확고하게 갖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일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흐리멍텅한 생각을 하면 안 돼. ‘통일, 그거 꼭 해야 돼? 돈도 많이 든다 그리고 혹시 시끄러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말이야 우리 잘 사는데 통일 해가지고 일이 흐트러지면 별로 덕 볼 것 없잖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통일 잘 될까? 미국이 통일하게 놔둘까? 중국이 통일하게 놔둘까? 일본과 러시아가 협조할까? 그거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통일을 이렇게 회의하는가? 우리 통일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 국민으로 치면 한 20% 정도의 통일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통일 꼭 해야 해?, 통일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배가 돼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 회의론자들은 회개하라, 반성하라.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을 때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2차 대전 초기쯤 되면 공부한 사람, 머리에 뭐 좀 든 사람, 그리고 먹고 살 만한 사람, 젊은이들이 안주하기 시작해요.

‘독립 잘 되겠어? 또 그 중에는 지도자들도 독립,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거 아니야. 지금도 뭐 고등문관시험 치면 군수도 되고 사범학교 가면 선생도 되고, 의사, 약사도 될 수 있잖아. 거 뭐 살만하잖아, 거기다가 대 일본제국이 아시아를 다 먹고 지금 말이야. 미국하고 맞붙어 싸우려고 하와이로 쳐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무슨 놈의 독립이 되겠어.’ 그러면서 나서 가지고 젊은이들 앞에 강연에 나서는 거예요.

지금 통일부장관이 나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서는 거예요.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당분간 독립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일본 체제에 순응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다 훗날 혹 압니까? 우리가 대 일본제국의 영광을 함께 나눌지, 또는 독립할 기회가 올지 압니까?’ 이러면서 슬슬 젊은이들을 그쪽으로 이끅니다. 거기에는 내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지식인, 문인, 정치 지도자, 언론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날 우리가 친일파, 그리고 민족 반역자의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본 사람들에게 뭘 많이 얻어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예요. 협박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제 발로 나서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일을 놓고 ‘통일 그거 꼭 해야 해? 이대로도 살 만하잖아, 그거 잘 안 돼.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런데 우리 통일하도록 놔두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훗날 역사가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이대로도 살 만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갈등은 젊은이들이 남북한에서 다 군복 입고 나가서 휴전선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다 분단 비용이에요. 해외 나가서 서로 못 할 소리 하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포 쏘 가지고 어뢰 쏘 가지고 꽃다운 젊은이들을 수장시키고, 관광객 총기로 쏘 죽이고, 이거 다 분단 비용이에요. 무슨 색깔 논쟁이네 아니네, 이데올로기 갈등이네 아니네, 하면서 밤낮으로 싸우는 것도 분단 비용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손자들, 태어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까지 다 넘겨줄 겁니까?

지금 주머니 속에 100만원짜리 핸드폰 든 거 넉넉해 보이고, 카드 몇 장 든 거 푸짐해 보이고, 큰 차 타고 다니니까 어깨 펴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할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이 많은 걸 압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알아요. 취직도 잘 안되고 알아주지도 않고, 특히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잘 안되고, 그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 과제, 그 책무를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은 그거 저 하나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신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된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해요. 기성세대는 정부는 지식인은 언론인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바꿔줘야 해요. 왜 통일해야 되는지, 왜 통일할 수 있는지, 바꿔줘야 해요.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생각이 난 김에 왜 통일해야 하는가 내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왜 통일해야 해요? 통일하면 통일 비용도 들어가고, 그 뒤 총 들고 설치는 저 친구들이 내려와서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 집 저 집 미국 중국 다니면서 사정해야 하고. 왜 통일해야 해요? 내가 통일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을 먼저 할게요.

첫째는 이 한반도에서 통일해 살아가는 것은 한국인들의 삶의 원형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한반도에서 한민족으로 살아왔어요. 수천 수만년 동안.

그게 우리 삶의 원형이에요. 이거 복구해야 돼요. 깨어진 원형을,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인 양 이끌어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국가가 제대로 체제를 갖추고 통일된 국가로 살아본 날만 해도 1,300년이 넘어요.

지구상에 1,300년 이상을 단일국가로 살아온 민족이 몇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20세기 초까지 저 통일신라 시대부터 우리는 한반도의 주인으로 한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더러 침략을 받고, 더러 비바람에 고통스럽고, 더러 배고프고 추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떨어져 산 게 60 몇 년밖에 안됐다니까. 단일 국가로 살아온 것만 1,300년이 넘었어요. 이게 60년 정도 살아놓고, 통일 안 해도 돼, 그런 얼빠진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통일을 하면은 우리 민족의 블루오션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하고 있듯이, 연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주 발달된 기술과 축적된 자원, 세계 시장에서의 경영 노하우와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군대 안가고, 군대 가서 총부리를 드는 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컴퓨터를 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역 현장으로 뿔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블루오션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 자꾸 줄어들어가요. 자동화하고 국제화하면서 생산량은 늘어났는데도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저 낮은 경제와 한국의 이 발달된 경제가 결합하는 순간 새로운 경제 성장 잠재력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에고 그렇게 될까? 좋은 쪽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쇼?’ 독일을 보세요.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서독은 이제 큰일 났다, 동독 저 못사는 사람들 다 끌어안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랬어요. 두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년 지난 지금 서독 경제는 동독경제를 흡수해서 함께 발전해서 이제 독일 경제가 유럽 최고가 되었어요. 작년엔 독일 경제 성장률이 3.6%입니다, 그 큰 경제가. 지금 EU가 재정 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허덕이고 있지만 독일 경제는 튼튼합니다. EU의

모든 나라들이 독일 수상 입술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려고 있어요. 전 세계가 메르켈 수상의 입술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한 두 나라 부도나면은 그 불뚱이 우리한테까지도 온다,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게 독일 경제입니다. 그 큰 경제가 이 불황속에서도 연간 3.6% 성장하고 있다니까. 끄떡없이 잘 발전하고 있어요. 블루오션이에요.

기차는 평양을 지나서 청진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모스크바, 베를린으로 달리고, 심양으로 장춘으로 하얼빈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경으로 상해로 충칭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전 아시아 대륙이 우리의 시장으로 열려옵니다. 지금 어떡하죠, 지금 심양 가려면? 서울에서 심양 가려면 비행기 타고 북경을 가야 돼요. 물건 많이 가져가려면 어떡해야 해요? 인천이나 부산에 가서 배타고 대련 가서 또 며칠 기다렸다가 거기서 날 새는 거예요, 날 새. 장사 잘 할 수 있어요.

중국도 좋아하고 러시아도 좋아하고, 얼마 전까지 말이 있다가 요새 좀 주춤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 송유관, 가스관,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우리 에너지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호주에서 인도에서 사들이는 석탄들 이거 북한 가면 있어요. 철광석, 많이 있어요. 비철금속, 많이 있어요. 희토류, 많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딱 갈라가지고 분단해서 적대하고, 이거 해결하면은 함께 잘 사는 거지.

세 번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다.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고, 나날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 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따지고 보면 조상을 몇 대만 올라가면 우리는 다 같은 핏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산다고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몰라, 이건 아프리카나 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한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거 뭐 잘 해서 선택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서울이었지. 북한의 젊은이들, 키가 140cm도 안 커가지고 군대 들어가는 키가 135cm입니다, 135cm, 총이 끌려요. 키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임산부들 이가 다 빠져. 영양이 부족해서. 어떻게 아냐고? 우리 하나원에 한 달에 한 200명씩 계속 들어와. 이 다 빠져 가지고, 허리 다 꼬부라져 가지고, 학교 안 가서 글자도 제대로 못 익혀가지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도탄에 빠져서 삶의 한계 상황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는가?

그 젊은이들은 뭐 잘못된 게 있어서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거기가 그런 데예요.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스고 배부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데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러면 생각을 좀 해야지. ‘이거 우리 남아 쓰고 보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좀 보내주면 되지. 아, 이걸 보내줬어요, 과거에. 쌀도 보내주고 옥수수도 보내주고. 그런데 보내주니까 이거 가지고 핵무기도 만들고, 한참 핵개발을 할 때 북한에서 수백만명이 굶어죽었습니다. 보내주는 것도 안 돼. 안 나눠줘, 굶어 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도 급하니까 보내는 줘야, 보내는 주는데 궁극적인 해법은 뭐예요? 통일해야 해요. 통일하지 않고서는 해법이 없어. 통일돼야 이 북한 주민들을 이 기근에서 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구출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외면해? 그러고도 젊은 지성이 어찌고, 젊은이가 아프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네 번째는 동아시아, 다른 지역은 다 공동체, 유럽 공동체, 파스 아메리카나, 아세안, 공동체 경제를 구성하고 있어요. 뭐 장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동아시아만 안 돼. 동아시아 왜 안 돼? 많은 역사적인 질곡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다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보다 더 실질적인 원인은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갈라져 있는 분단이 해결되지 않고는 동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구도는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예요.

다섯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밤새도록 대라고 해도 다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하면 5가지, 다섯 번째는 인류의 문명이 큰 변동을 겪고 있어요. 금융 위기, 재정 위기, 정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초기에는 우리가 정보화라고 부르고, 세계화라고도 부르고 무슨 분절화라고도 부르고, 다양화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불렀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다 한 면일 뿐이고, 문명 자체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속에 그야말로 고대 시대부터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켜온 우리 한민족이 이제 새로 구성되는 문명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남 하는 거나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새로운 문명의 한 초석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국적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려면 맨날 총이나 쏘고, 미사일이나 쏘고, 울고 불고, 굶어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역량이 충분히 발휘돼서 보편적 가치의 발현에 기여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발신을 하려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 안되면 안돼.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 의식을 고양시키고 고취시키는 일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통일 준비의 두 번째 과제를 말씀드릴게요. 통일하는 데 돈이 든다. 돈이 안 들고 하면 좋지.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해보면 알겠지만, 세상의 값지고 귀한 것은 공짜가 없어요. 뭘가 보람 있고 근사한 것은 피나는 노력, 대가를 요구한다. 쉽게 배우는 건 엉터리야. 쉽게 배우는 건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이 아니야. 남의 집 물건을 슬쩍 훔치는 건 쉬워. 그러나 훔친 사과 하나 빵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남보다 먼저 남이 만들지 않은 사과, 남이 만들지 않은 빵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그게 이루어져요. 통일하려면은 돈이 든다. 돈 내야지, 돈을 벌어야지. 돈이 없는데요. 그럼 돈을 벌어야지. 없는 살림에서라도 조금씩 내서 돈을 모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차 없을 때도 살았잖아요. 우리 명품 가방 안들 때도 살았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전화 없어서 해맬 때에도 살았잖아요. 조금씩만 노력하면은 할 수 있어요. 돈을 모아야 해요.

얼마 전에 볼프라고 하는 직전 독일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독일 통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 왔는데, 장관실로 날 찾아왔어요. 전직 대통령이 의전상 아무리 전직이지만 장관실을 찾아가는 건 격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정치권이 한 치명적이고 큰 실수가 있었다. 그것은 독일 국민에게 통일을 예고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과학자도 많고, 노벨상도 뭐 많이 받고, 운동도 잘하고, 철학자도 많고 음악가도 많고. 근데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많은 정치인들이 아무도 ‘우리 통일이 곧 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세요.’ 이 말을 아무도 안 하더래요. 그것을 볼프 지금 직전 독일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독일 통일의 유일하고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합니다. 자국민들한테 ‘통일이 올 것이다. 이웃 나라들한테 독일이 통일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지금 독일이 통일 과정을 잘 관리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다, 더 적은 돈을 들고 더 빨리 희생을 줄이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대통령부터 동독 총리, 서독 뭐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덜컥 통일이 되어버렸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된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는데 저거 어떡하지.’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그래 가지고 많은 초기 갈등, 소모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지금도 그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내

가 듣자 하니 류 장관이 국민에게 통일에 돈이 든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설명을 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거다. 역시 한국이 잘한다.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고 할 때 벌써 유럽 사람들을 넘어선 게 많다. 올림픽에서도 그랬고 한류 춤추는 것도 그랬고, 빙상 경기도 그랬고, 무슨 뭐 이런저런 일에서 우리 전자 제품들도 그렇고 우리 배운다고 그려놓고 어느 날 보니까 시장에서 1등 하고, 와서 보니까 통일 준비도 이렇게 하는 거면 잘하는 거다.’ 그 칭찬에 만족하고 웃고 있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일을 먼저 해본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통일 과정을 관리해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교훈을 새겨서 들어야 해요. ‘정말 준비해야 되는구나.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돈 없어서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피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말했냐면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 총리 헬무트 콜, 키가 큰 정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기회가 왔는데 돈 없다고 회피한다면 역사적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을 모아야 해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는 통일 외교를 해야 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UN, EU, 아세안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통일을, 우리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으로 할 거고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지금 마땅치 않은데?’ ‘뭐가 못마땅하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으면 손 좀 내미세요. 통일하겠다는데 구경만 할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바로 미국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두 번 갔습니다. 중국의 수뇌부들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도 갔습니다. EU도 가고 독일도 가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다. 불만 있으면 이야기하자. 걱정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자. 언제든지 이야기하자. 해법을 찾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눈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외교가 아니에요. 맘에 드는 말을 해주는 게 외교가 아니고 우

리가 하려는 바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 설명에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통일을 위한 외교적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통일 외교예요. 그거 해야 해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감싸안는 일입니다. 탈북민을 감싸안아서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해서 건강한 우리 이웃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게 통일 준비입니다. 통일은 뭐냐 하면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는 일입니다. 이미 2만 4천 명의 북한 주민이 삶을 찾아서 우리에게 왔어요, 조국이라고. 그래서 한국 땅에서 살고 있어요, 2만 4천 명이. 온 사람도 못 끌어안으면서, 2만 4천 명도 못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북에 있는 오지도 않은 2천 4백만을 끌어안겠어요? 가당치 않은 일이지.

그럼 2만 4천 명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일자리 주고, 이런 요새 같은 명절에 위로도 해주고 떡도 같이 나눠먹고 애들 학교가면 억울하지 않게, 왕따 같은 거 안 당하게 안아주고. 말씨가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악센트가. 서울 사람이 들어보면 이상해요. 스피디하고 그래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싶지만은 그렇게 배운 걸 어떡해. 뭘 잘 몰라. 함경남도 산골에서 삼수 갑산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뭔지 체크카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면은 가르쳐야지. 안내해 줘야지. 헛소리 하면 ‘그건 헛소리다.’ 요렇게 하는 게 맞다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몇 년만 하면 잘합니다. 내가 아주 보증할게요.

왜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며칠 전까지 우리 통일부에 있는 산하에 있는 통일교육원에 원장 하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탈북민입니다. 우리 통일교육원의 교수 중에 탈북민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넘어와 가지고 공부해서 박사 받아가지고 교수됐어요. 경쟁 똑같이 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영화감독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재산도 없고 친척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없어요, 도와줘야지. 여러분들 옆에 혹시 그런 사

람이 있으면 좋은 일 하는 겁니다. 2가지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서 좋은 일이고, 통일 준비에 함께 해서 좋은 일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일해서 같이 살아가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요. 그지요? 건강보험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죠? 의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무슨 4대보험 다 해야 됩니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 정비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하는데, 통일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통일의 제도를 준비할 많은 일꾼이 나와야 해요, 각 분야에. 보건 분야에도 있어야 되고 철도 분야에도 있어야 되고 항공 분야에도 있어야 되고, 항해 분야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해요. 법률 분야, 행정 분야, 요리 분야 뭐 다 있어야 해. 제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통일에 관심을 갖고 통일 일꾼을 길러줘야 해요.

이번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통일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잘 하는 것입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며 애국적인 교육입니다.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잊어버렸어요? 통일 교육, 통일 재원 마련, 통일 외교, 탈북민 정착지원, 그리고 통일의 제도적 준비.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것을 통일 준비라고 합니다. 준비를 하려면 힘들지요. 이 다섯 가지 다 외우기도 힘든데 일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 사업을 하나 만들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은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잘 합니다. 통일부의 공무원들은 내 젊음을 내 일생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한번 바쳐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예요. 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다 자격 갖추고, 그리고 훨씬 폼 나는 그런 데 안가고 통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복잡한 것을 다 잘 해요.

그런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는 사업을 앞에 세우자, 선발대를. 그게 뭐겠어요? 통일 돈 모으는 거예요. 행동 중에 제일 힘든 게 돈 내는 거에

요. 자기 돈 내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 다 낸 돈을 내려고 하면 얼마나 아까워. 그렇잖아요? 세금 내라고 해도 기분 나쁜데, 강제도 아니고 이걸 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돈을 내야 의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아, 그거 좋은 일인데 돈 좀 내자, 돈 내자. 돈을 일단 내면은 나도 주인이니까 나도 일하니까.’ 강제로 내라 하면 통일이 기분 나빠지잖아요. 통일 때문에 강제로 돈 내라고 하면 ‘통일,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돈내라. 돈을 내면 이 돈을 잘 모았다가 통일 후에 통일이 되면 통일을 원만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쓸 것이다.

얼마나 들 것 같으나?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 당대의 전문가들을 모아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해 봤더니 통일 되는 첫 해 예산이 우리가 쓰는 평상시 예산에 더해서 최소 55조원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내 주머니에 10만원 이상 들어 있는 적이 잘 없어요. 무지하게 많은 돈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55조원은 한계가 있는 돈이에요. 우리 국민이 뜻을 합하고,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안 되면 5조 5천이라도 좋아. 국민이 뜻을 모으면 못할 게 없어요.

금모으기 한번 봐요. IMF 금융 위기, 구제금융 위기 왔을 때, 애기 돌반지, 결혼반지, 나도 거기 가서 줄 선 적 있어요, 집사람하고. 금붙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집에. 다 냈잖아요. 외국 언론들이, 외국 경제기관들이 이걸 본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상해.’ 내가 중국에 대사로 갔을 때, 중국의 어느 높은 양반이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아니다 중국 사람들도 대단해.’ 내가 이렇게 하니깐 ‘아니야, 류 대사, 정말 대단하디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온다 하면은 뒷마당을 파고 금붙이를 숨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온다니까 장롱 속의 금을 들고 나오지 않냐, 지구상에 이런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내가 듣고 보니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대사의 어깨가 딱 펴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 사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알아봤어요. 금을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

있어요. 많은 돈이긴 한데, 사실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해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붙이를 내놓는 그런 열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프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만 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본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좀 봐라. 저거 한국 사람들 한다면 한다. 저렇게까지 한다는데 우리가 뒤로 자빠져서 이자율이나 올리고 있으면 안되겠다.’ 외국의 금융기관, 신용기관, 경제기관이 전부 다 협력합니다. ‘한국 저거 되겠다. 안 끊는 게 낫겠다. 새로 퍼주는 게 낫겠다. 이자율은 낮추는 게 낫겠다.’ 아, 그래 가지고 거꾸로 돈을 막 보내줬어요.

통일 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5조가 들어요. 이거 많은 돈이에요. 물론 정부가 상당 부분을 매년 좀 넣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은 국민이 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까운 돈을. 힘들게 번, 깨끗한 돈 이걸 모아서 낼 때, 그 줄이 길어질 때, 그걸 누가 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본다니까, 우리 방송대생들이 보고, 그 동생들이 보고, 우리 국민이 봐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미국사람들이 보고, 중국사람들이 보고, ‘얼씨구, 저 한국 사람들이 통일하겠다, 저거. 우리가 모른 체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경치는 수가 생기겠다. 차라리 나서서 돕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진지하게 한국 통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저것들이 돈을 모으는데 뭐하려고 모으지? 내가 돈을 모은다니까 북한의 지도부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장관이 왜 돈을 모으냐, 저거 뭐 풍유병 환자 아니냐? 한 밤중에 일어나 왜 돈을 모으고 다니냐?’ 욕을 하고 이래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 돈을 벌어가지고 모은데.’ ‘어디다 쓰는데?’ ‘통일 되면은 북한하고 우리를 위해서 쓸 거래, 길도 닦고, 병원도 짓고 공장도 짓는 돈이래.’ ‘그래? 영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아니구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이 잘 하면 되겠는데, 저 사람들이 돈도 있고 저렇게 열성적으로 하면 통일이 되겠는데, ‘우리 힘내서 살아남

자.’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됩니다. 언론에 내가 ‘돈을 좀 내고 다 납시다.’ 이러려고 하니까 장관이 그렇잖아요. 장관이 법적으로 ‘돈 냅시다.’ 이러면 안 돼요. 법에 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장관이.

그래서 돈을 모을 필요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어느 날 아이 디어가 나왔습니다. 향아리를 하나 만들자, 향아리. 통일 향아리를 만들자.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밥 짓겠다고 쌀하고 보리쌀하고 바가지에 들고 나와서 들여다보고는 쌀을 한 줌 들어서 향아리에 넣는 거예요. ‘이상하다. 할머니가 쌀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왔나?’ 다음에 보니까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쌀을 처음부터 조금만 가지고 나오시지 매번 그렇게 떨어놓고 하시냐.’고. ‘너도 크면 안다.’ ‘그게 무슨 소릴까? 쌀을 왜 가져나와서 복잡하게 떨어놓을까?’ 내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쌀을 떨어놓는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때 어떻게 쌀밥을 먹겠어요, 보리밥이지. 쌀 조금 엮어가지고 노인들하고 애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을 떨어내려면 그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큰 일이 올 수 있을 때 보태야 된다고 저축하신 거예요. 그래 했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뭐 이웃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쓰고, 삼촌 군대 갔다 오면 쓰고, 그걸 내가 생각해서 ‘향아리를 하나 만들자, 어떤 향아리로 할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향아리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봤더니, 백자 사기장이 있습니다. 백자를 제일 잘 만드는 무형문화재 1번 백산 김정옥 선생이 계셨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어휴 장관님 합시다.’ 그래서 둘이 향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녀 달 걸렸습니다. 흙을 골라서 만들고 성형을 하고 물레를 돌려서 성형하고, 붙이고 또 말리고 글씨 쓰고 유약 바르고 또 넣고 굽고 불 때고 꺼내고해서 녀 달 걸려 향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달향아리 아세요? 보름달처럼 생긴 향아리. 높이가 한 60센티 정도. 그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거 만듭시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달향아리, 정말 보름달같이 생겼어요. 너무 커서 두 쪽으로 만들었어요. 밑에 거 일단 물레 돌려서 하나 만들고, 똑같은 지름으로 똑같은 두께로 위에 거 또 만들어요. 각자 따로 만들어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말리고 해서 글씨를 썼어요. 평화통일, 한글로. 유약을 발라서 구웠는데 잘 나왔어요. 그게 통일 향아리입니다. 그래 몇 점을 얻었어요.

내가 얻은 향아리 하나 딱 들고 어느날 대통령께 갔어요. ‘대통령님 통일 향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찌자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일하자는 게 통일정책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뭘 하셔야죠.’ 대통령께서 그달 초 월급을 내놓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찾아갔어요. ‘국회의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했더니 국회의장이 돈을 냈어요. 총리가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돈을 냈어요.

이래 가지고 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고위직 사람들만 냈느냐?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어민, 농민들, 노인들이 돈을 낸 거예요. 어느날 김갑수라는 할아버지가 돈을 싸들고 장관을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2천 몇 백만 원을 넣어 ‘장관님, 우리가 담배 안 피우고 커피 안 마시고 10년에 걸쳐서 모은 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을 겁니다. 일단 통일 향아리에 넣어주세요.’ 그 뒤로 초등학교생들도 내고, 우리 하나원의 탈북민 교육생들도 내고, 군인도 내고, 이래 가지고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액수는 내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돈입니다.

그게 그동안 선거 바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선거도 끝났고 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앞에 줄을 서는 것만으로도 거기 동전 하나를 넣는 것만으로도 통일은 그 만큼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 그걸 대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일 향아리, 법안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국회에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법적 기반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가까이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북쪽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우리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핵안보정상회의의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였을 때, 그 회의의 기자들이 한

500명쯤 왔는데, 기자들 앞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달라고 해서 내가 한 마디 했어요. 'Feed your people first.' 백성들부터 먹여라. 핵은 그만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유행어가 됐어요.

백성들 밥이나 먹여라. 그게 먼저다. 옛 성현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하늘은 먹는 것을 위주로 한다. 백성은 먹는 것이 하늘이예요. 그런데 임금에게 하늘은 뭐예요? 임금에게 하늘은 백성이예요.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지만 임금은 백성으로 하늘을 삼는다. 그러면 임금은 무엇으로 하늘을 삼아야 합니까? 임금은 백성을 먹이는 것을 하늘로 삼아야 합니다.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탄 소리 자꾸 하고 미사일 며칠 전에 또 쏘았어요. 전 세계가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한편, 통일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 북한 보고 미사일 쏘지 마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화하자, 대화하자, 미사일 쏘면서 대화하고, 대화하는 척 했다가 또 안하고, 이걸 지난 20년간 해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추구하고 교류를 추구하고 협력을 추구하지만 안 응해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만큼 살 만하고 이만큼 세계 각국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이만큼 일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역사의 흐름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이 널리 써서 이 말을 방송대 네트워크를 타고 우리 국민이 모두 쓸 수 있었으면, 또는 세계가 모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통일이 뭐예요? Unification. 우리가 주도한다는 게 뭐예요? Initiative. 이 둘을 합성해서 내가 만든 말이 Unitiative.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 준비. 이것을 Unitiative라고. 그랬더니 어떤 젊은이가 저보고 '장관님, 아무리 장관님이 높다 하지만은 말을 함부로 만드시면 됩니까?' 항의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떨떠름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 지구상에 통일부장관은 한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Unitiative라는 말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 ‘Unitiative.’ 어휴 잘하는구만. 그래 가지고 이 Unitiative가 방송대 네트워크를 타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Unitiative가 되고 Unitiative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이 오고 빨리 오고 원만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서 온다 이거예요. 안하고 놀면은 안 온다 이거예요.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60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노래는 통일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통일 독일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독일말로 리하르트,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대통령. 동서독을 통틀어서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금년으로 92세.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에 갔을 때 이분을 한번 만나 뵙자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잠깐만 만나뵙자고 했어요. 바이체커 대통령께서 여기 앉으시고 내가 가서 여기 앉고. 독일어를 하는 한국의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참으로 기쁘다, 내 손을 잡고, 그래서 두 사람이 독일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을 잡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40분, 50분이 지나갔습니다. 잠깐 인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국 통일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일어서려고 손을 빼니까 손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이 노인이. 손을 다시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류 장관, 한국에 돌아가거든 한국민에게 내가 하는 말을 꼭 전해주세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잊지 말고 이 말을 한국민에게 꼭 전해주고 한국민이 독일 국민보다 통일 준비를 더 잘하기를 바란다는 내 희망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준비에 대해 말하다

-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

(코리아 정책연구원 인터뷰)



2012년 11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통일 환경이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이끈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11월 30일 오후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 날 대담에서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원칙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통일 준비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담은 (사)코리아정책연구원의 유호열 원장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대담 내용은 코리아정책연구원 격월간지 <Korea Policy> 2012년 11/12월호에 게재되었다.

유호열 교수(사회, 이하 유호열) : 최근 <민족화해>라는 잡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또한 쓴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시 대통령 실장을 맡았고 주중 대사를 거쳐 통일부장관으로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5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류우익 장관(이하 장관) : 아무래도 현 정부와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떤 생각으로 정책에 임했느냐를 말씀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효과와 결과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객관화되었을 때 평가를 공정히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은 즉각 시장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은 10년, 20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빛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통일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중에서도 통일정책에 대하여는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정책이 유효했느냐를 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구상하였느냐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격변하는 통일 환경,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처

첫째,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 그리고 통일정책의 환경이 매우 격변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실용주의적 노선 아래에서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스케일의 문명사적 변화가 그러했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진출, 또는 북한의 핵 개발 등등이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교조적인 원리나 이념 때문에 경직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상의 실질과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정책이나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 동안 커다란 경제 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큰 소용돌이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위를 선양했고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했다는 점을 평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궤도 위에 오르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남북관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면 그 위에서 비로소 남북관계가 올바르게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성과가 아직 덜 드러나기는 했지만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훗날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 노력 시작

셋째,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동안의 통일정책은 현실적인 이유,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주로 분단의 평화적인 관리 내지는 남북의 교류협력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중시하고 추진하면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착수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국민들이 행동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통일 준비에 대해서 공표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며, 이러한 움직임들은 앞으로 통일 준비가 더더욱 성숙해져 열매를 맺게 될 때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열 :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착실히 준비하면 안정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지요.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다음 정부와 연결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분야에서 챙겨야 할 그 동안의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금강산 관광, 그리고 5·24 조치 문제입니다. 5·24 조치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5·24 조치 함부로 해제할 수 없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반드시 필요

장관 : 5·24 조치는 그 동안 진전되고 있었던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상생공영하는 발전을 해 가는 것이 좋다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선(善)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원칙을 어기고 달성할 수 있는 선을 해칠 때에는 그것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장치가 없지요.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불편하다는 이유로 완화나 해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5·24 조치를 불가피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애초의 의도를 상쇄하는 것입니다.

물론 5·24 조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류협력 업체들이나 금강산 관광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우리 기업들만 고통 받는 것이 아니냐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고 있는 정부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속에 새기고, 안보를 위해서 참아야 할 때는 참아 주어야 합니다. 화해하고 잘 풀려가면 정말 좋습니다만, 참아야 할 때 참아야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참아야 하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진통을 겪어내야 남북 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라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답을 받아 보다 더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합니다. 정부로서 최소한의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죽은 46명 목숨의 존귀함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5·24 조치를 함부로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호열 : 김정일이 사망한 뒤,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없으니 무효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진보 진영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지도부, 과거의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장관 :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해서 현 김정은 지도부에 있어서는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 제1서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행동의 자유를 가지거나 또는 적절한 변명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본 원

칙에 대해서 김정은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정리한 뒤에야 비로소 새로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유호열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는, 한국이 마치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에도 동일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논의가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통일과 급작스러운 수순을 밟는 통일에 대한 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아,
다만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장관 : 좋은 질문이고 또한 까다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북한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게끔 조언을 하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붕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급작스러운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헌법상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이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공식적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통일에 대한 원칙 하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 확률이 낮더라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라도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이 질곡에 빠지고, 국제 제재를 받아 고립에 빠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의 가능성, 이러한 만약의 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우리 사회 각계에서 하고 있지요. 정부도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의 원칙적 방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유호열 : 말씀 감사합니다. 통일이 요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눈앞에 다가온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남북한 간 사회통합의 물꼬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정착 숫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미 2만 4천 명 정도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을 구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관 :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삶을 찾아서 국경을 넘어 많은 고생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헌법상으로는, 우리 법률에 있어서는 우리의 국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의 첫 번째는, 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생활상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온 난민이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관점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우리 통일의 과정에서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잘 알고 통일 후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유호열 :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활용에 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의 자원, 교육과 취업 기회 확대할 것

장관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통일 준비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부 예산의 약 60%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착시키는 문제는 2천 5백 만의 북한 주민들을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포용하느냐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을 정착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가 가진 경험은 지난 10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와 개선을

거듭하면서 자리를 잡아온 것입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 점검도 하고, 통일부 스스로 자체평가도 해 왔습니다.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마음으로부터 포용하도록 의식이 변화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 기회, 고용 기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통일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호열 :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중 몇 명이 탈남하여 다시 재입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관 :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지하철을 타 보지 못했고,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고, 약을 먹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장경제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모르지요. 불과 몇 달 간의 교육을 거쳐 실생활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원과 하나센터에 심리상담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관계되는 기관에 보호협조를 좀더 강화하는 등 다면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입북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그 여건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립자활의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 지급율이 2007년에는 63%였다가 올해에는 40%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역시 2007년에는 10%에 달했었는데, 올해에는 3.3%까지 떨어졌지요.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내 남북한 사회통합,

확실히 진전 보이고 있어

유호열 : 북한이탈주민들의 위상과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조명철 국회의원일 것 같습니다. 조명철 의원의 보좌진들 역시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유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 : 조명철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통일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된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더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일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자유에 목마른 북한이탈주민들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돕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통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행동이 조금 집요하거나 지나치게 강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열 :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통합과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자원으로서의 활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반도 통일에 또 달리 중요한 통일 외교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변국들의 리더십 교체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나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데요. 양국의 리더십 교체와 연결 지어서 한국의 통일 외교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통일 외교의 축,
양국과의 관계를 모두 잘 관리해야**

장관 :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한미 공조의 토대가 연속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외교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 역시 그 동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역·투자 파트

너지고, 국민의 상호방문 측면에서도 매우 가까운 국가입니다. 연간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 수가 600만을 넘어섰고, 하루에 120대의 비행기가 뜹니다. 다만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다소 시차를 두고 증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과의 관계가 공고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그리고 한중 관계 모두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한미 관계와, 급속도로 가까워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중 관계는 우리 외교의 1번, 2번 축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중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결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한중 관계를 잘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통일에 기여하는 잠재력이 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한중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통일정책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지도부가 교체되는 요즘, 그리고 새 지도부가 꾸려나갈 앞으로의 5년이 통일 외교,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통일 외교 정책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류호열 : 통일 외교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국내의 이야기로 돌아와 질문 드립니다.

통일에 무관심한 세대에게 장관님께서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금년 초에 동국대와 함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남북회담을 했는데 매우 성과가 좋았고, 그 학생들이 지금도 모임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좋은 물꼬를 터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후속 세대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하여 앞으로 통일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통일의 키워드, Unitiative

장관 : 제가 통일의 후속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단어가 있습니다. Unitiative입니다. unification와 initiative의 합성어인데요, 통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일을 지칭해서 Unitiative라고 했습니다. <Korea Policy>를 통해서 Unitiative를 알리고 싶습니다. Unitiative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반도의 통일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한국이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이 그것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살기가 바쁘지요. 결국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뜻을 Unitiative로 개념화한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출범하여 일하게 되든지 Initiative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좌우나 진보, 보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책무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Initiative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통일 향아리입니다. 여기에 자발적인 국민의 통일 의지를 녹여내어 쌓이고 단단해지면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과 러시아 사람 모두가 깨닫고 우리의 행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이가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북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통일 향아리의 제1고객이 바로 통일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바로 통일을 주도할 통일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 중에서도 북한학, 통일학, 남북관계를 공부하고 그 분야에서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통일 인력들이 일할 때 다가오고 있어

저는 취임하자마자 북한학을 공부하는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사를 고려대학교에서 하였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통일부 투어도 직접 담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폐지 위기 때도 두 발로 뛰어 막아냈습니다. 통일부에서 북한학과 출신 학생들을 우대해 뽑는 특채 전형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북한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

니다. 첫째,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회의가 매우 큽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참 귀한 자원인 것입니다. 둘째, 큰 시대 그리고 남북관계의 흐름, 우리의 국운을 모두 놓고 평가할 때 통일의 시대는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감당할 만한 인력들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통일 과업에 헌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학도가 매우 중요한 과이고, 그 곳에서 공부하고 앞으로 통일과 남북 분야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통일부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모두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한국의 젊은이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호열 :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내내 통일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그리고 후속 세대에게 하는 당부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관 : 국민 여러분께 통일정책의 연속성,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 당장 장관직을 떨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통일정책이 올

바르게 추진되고 있다면 누가 이 직책을 맡게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건강한 토대 위에 올려 놓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다 하면 통일이 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통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통일 준비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작심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된 인력들이 일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열 :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 원칙의 중요성,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까다롭거나 어려운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4장

66 주요 연설문과 기고문 99

통일부 홈페이지 인사말

일시 : 2011. 9. 19(월)

통일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한반도는 그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패러다임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동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의 방향성입니다.

국민의 뜻은 대북정책이 향하는 등대와 같습니다.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 한반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정책제안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작품집 축사

※ 작품집에 실린 글

작품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제3회 북한 이탈 주민 전국 문예창작대회 수상자 분들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글 하나 하나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내일의 꿈을 일궈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험난했던 탈북과정에서의 두려움, 북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마음으로 써 내려간 이 글들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맘과 눈물, 희망과 도전의 의미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주민의 현실과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이 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우리 사회 소수자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희망을 키워 나가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의 의미있는 통일준비일 것입니다.

지면을 빌려 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대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

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제고하고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품집에 수록된 북한 이탈 주민의 작품 하나 하나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 사회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rea Vision Forum 축하

‘독일 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

일시 : 2011. 11. 18(금) 10:00

장소 : 서울 롯데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비전포럼’ 개최를 자축하며 여러 귀빈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작년 統獨 20주년을 계기로 국제 사회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포럼’을 창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창립과 그 시기를 같이해 ‘독일 통일의 주역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함께 해주신 대통령 통일 고문님들과 전·현직 고위 관료, 한스-울리히 자이트(H.U.Seidt) 대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을 이끌어주실 이흥구 前국무총리님, 호르스트 텔치(H.Teltschik) 박사님과 구본태 前실장님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과 재작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통독 20주년을 계기로, 독일통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민들은 이 시기에 발생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우리의 ‘실제적 삶’이 ‘분단’이라는 구조적 환경으로부터 직접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분단 관리를 넘어 평화 통일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져온 패러독스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분단의 역사적 구조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이 그랬듯 한반도의 분단은 ‘비정상적’ 상황이며 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통일의 유일한 발자취인 독일통일은 우리에게서 여전히 소중한 경험적 유산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함께한 인류의 공동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독일’이 ‘두 개의 유럽’을 의미했듯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의 분단’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되는 한 20세기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지역의 이념적 대립구조는 해체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은 마련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남북 간 조성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실질적인 평화 통일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폭넓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통일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국가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북한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명제와 ‘우리는 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보면서, 통일국가로 우뚝 선 독일의 위상을 새삼 주목하게 됩니다. 1990년 통일이 되던 해 태어난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 前 총리님과 이홍구 前 국무총리님, 요르크 쉐봄(Jörg Schönbohm) 前 차관께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과 통일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반도 비전포럼’이 독일통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韓·獨 양국이 합

께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의 늦가을 정취도 한번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0주년 전국대회 축사

일시 : 2011. 11. 18(금) 14:00

장소 : 광주 영주실내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추수를 끝낸 호남 들녘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가을의 끝자락에서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예향의 도시 빛고를 光州에서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이재운 의장님과 16개 시도협의회장님, 함께하신 모든 ‘민통’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주신 강운태 광주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광주 시민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지난 1981년 창설 이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통일 정책이 힘 있게 구현되는 든든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0년간의 헌신적인 활동과 노력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민통’ 회원진과 광주 시민 여러분! 남북 관계가 가야 할 길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공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길목에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과 연이은 군사적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을 바라고 북한주민들을 돕고자 했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참고, 더욱 고민하면서 남북 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멈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은 확고히 하면서도, 남북 간 높아진 긴장을 낮추고 막힌 대화의 통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현 시점에서 끊어진 남북대화 채널을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마주앉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과 공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길에 북한이 동참해 오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안으로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보듬어 안고, 통일 미래의 주역인 우리 젊은이들의 통일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을 정성껏 돕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준비해 온 ‘통일 재원’ 마련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통일 향아리’라고 명칭했습니다만, 그 향아리를 들고 다시 光州를 찾는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저를 다시 반갑게 맞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최근 미국을 다녀왔고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내적 노력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함께 번영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은 숭한 위기와 도전을 헤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역간, 세대간, 그리고 계층간 갈등을 줄여 가면서 지금부터 우리사회의 '통합능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족통일협의회'가 그 중심에 서서 큰 역할을 계속 해 주실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민족통일협의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형만 광주광역시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오늘 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민족통일협의회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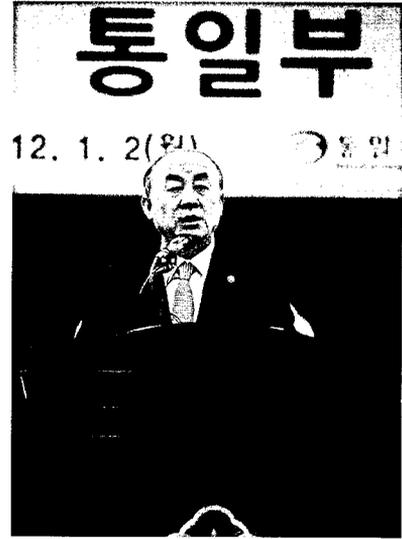
‘희망으로 같이 갑시다!’

일시 : 2012. 1. 2(월) 11:00

장소 : 통일부 대회의실

사랑하는 통일부 직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그 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건강하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모두가 합심해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왔고 통일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올 해는 특별히 변화무쌍한 용의 해가 될 것입니다. 취임당시 내가 여러분에게 세계질서의 판이 흔들린다고 말 한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그 흔들리는 판의 한복판에 서있다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까?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는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정치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져 있습니다. 그 속

에서 위험과 기회가 빠르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든 아니든 우리는 이 판을 바로잡아 평화를 지키고 번영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역사적 짐을 졌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므로 금년에 여러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더 헌신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능력과 애국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일념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내가 맨 앞에 설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한은 일시에 충격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장례식이 순조롭게 치러진 것을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의연한 자세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하여 남북 관계의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미덥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북한 당국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은 솔직히 말해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볍게 접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연한 정책 운영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두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대로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폐쇄와 낙후에 빠지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 자신에게 좋은 것은 물론 남북 관계에도 좋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 화해와 협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사적 당위이자 시대 흐름의 대세입니다. 바로 남과 북이 같이 가야 할 '상생공영 평화통일'의 길입니다. 북한이 그 길로 나서면 우리는 기꺼이 돕고 나설 것입니다. 주변국들도 마땅히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이제 2012년 임진년의 막이 올랐습니다. 420년 전의 바로 그 임진년입니다. 판이 흔들릴 때에는 멀리 내다보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이 급할 때일수록 침착하고 인내해야 합니

다.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임진년 새아침을 희망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 함께 힘껏 외칩시다. ‘같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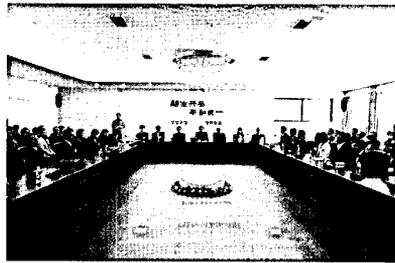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통일부 연두 업무 보고 브리핑

일시 : 2012. 1. 5(목) 15:00

장소 : 합동브리핑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첫 만남입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통일부와 함께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일해 온 기자단 여러분께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올 해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와 함께 힘차게 헤쳐 나가자는 말씀으로 새해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통일부는 금일 오전 삼청동 회담본부에서 대통령님께 ‘2012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통일부가 올 한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능동적 통일 정책’으로 요약하였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북한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 지도부의 안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변화된 북한상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그리고 북한 스스로에게 있어 발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전환기에서 안팎으로부터 밀려오는 변화와 도전을 더 큰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미래를 향한 ‘좋은 선택’을 하도록 견인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대 정책목표’와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운 ‘3대 정책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관리, 남북 관계의 정상적 발전, 그리고 실질적 통일 미래 준비입니다. 여기에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미래 준비 노력을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책을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를 위한 두 축은 ‘한반도 정세 주도’와 ‘남북 간 대화 채널 구축’입니다. 기민한 상황 관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이 ‘한반도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현안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둘째, ‘남북 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인도적 문제 해결’과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즉,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정치·군사적 신뢰 증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간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셋째,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통일항아리, 즉 ‘통일재원 적립’을 올해부터 개시하고 사회 지도층 대상 ‘고위 통일 정책 과정’을 신설·운영하고자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 통

일 의지' 고양을 위해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 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취임 후 강조해 왔던 '통일 외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이 '2012년 통일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정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오늘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 업무계획을 올 한 해 동안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좋은 선택'을 통해 '기회의 창'을 열 수 있길 기대하면서 북한 당국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그 길로 나서면 우리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기꺼히 나서서, 전폭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China Forum 창립대회 축사

일시 : 2012. 1. 9(월) 12:00~

장소 : 프레스센터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먼저 'J-China Forum'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 앞으로 'Forum'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한분 한분께 새해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J-China Forum'의 초대회장을 맡아주신 정중욱 前 대사님, 포럼을 이끌어주실 이홍구 前 총리님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며 불확실성이 커져 있습니다. 한중협력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중국대사이자 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J-China Forum'이 닦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국관계는 수교 20년 만에 정치와 안보, 그리고 경제에 있어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양 국민 간 교류 협력 역시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지금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G2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부담인지 기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런 질문에 대해 저는 늘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어떤 중국을 보고 싶은가?' 많은 부분이 우리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듯이 과대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보고, 우리가 설정하는 바람직한 관계로 이끄는 노력을 해 나가

야 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은 큼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중국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관계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중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당부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중 간의 1.5트랙 중심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J-China Forum'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권력 교체기입니다. 한중수교 20년을 맞아 지난 남북 관계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역사를 생각할 때입니다. 긴 안목과 호흡, 전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도록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J-China Forum'이 그 과정에서 한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J-China Forum' 창립을 축하드리며, 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조선일보 국제학술회의 축사

일시 : 2012. 1. 18(수) 13:00

장소 : 프라자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 상황에서 오늘 여러 전문가들께서 북한정세를 진단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통일연구원과 조선일보 측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한분 한분께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따뜻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북한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변화된 상황에서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지향합니다.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과 기회 요인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비난과 선동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남북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문제’를 의제로 삼아 논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협력 구조’를 창출해 나갈 때 주변국들은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 구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의 주체는 ‘남북’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과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이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개혁·개방’을 통해 ‘민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북한의 진정한 발전’과 ‘북한주민의 민생’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이 길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시기’입니다. 북한이 또 한번의 기로에서 ‘미래를 향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과거의 길을 되밟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 발전된 미래를 향한 ‘좋은 선택’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가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되새기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0주년 학술회의 축사

- 남북기본합의서 20년, 역사적 의미 재조명 -

일시 : 2012. 2. 17(금) 14:00

장소 : 프라자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회의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원식 前 국무총리님,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주역 여러분,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김태우 통일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고위급회담 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 벌써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남북기본합의서가 잊혀지지 않고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년 전 당시에는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였습니다. 동서 냉전이 와해되었고,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주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물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변화에 소극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

에 이르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치·군사·교류 협력 등을 총망라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기본 장전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지난 20년의 남북 관계에서 남·북한이 지켜야 할 기본지침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의 모든 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정신과 체계 하에서 체결되고 이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와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지금, 20년 전 남과 북이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야 합니다. 남북 간 상대방을 인정·존중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과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과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방·중상하고 우리 선거와 관련된 언동을 계속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합의서의 정신과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남북 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호존중의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남북 관계의 기본입니다. 14일에 우리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 적십자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관계 상황이 어떠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과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여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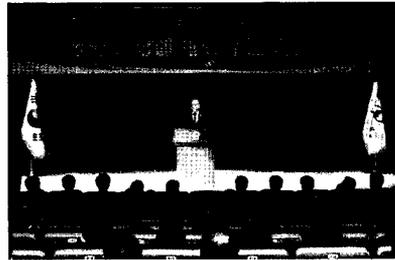
내외 귀빈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지난 20여 년간 남북 관계는 많은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또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오랜기간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원로분들과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지난 20년의 남북 관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남북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남북 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통일 준비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학술회의를 준비한 통일연구원과 발표와 토론에 참가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창설 43주년 기념식 기념사

일시 : 2012. 3. 2(금)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통일 가족 여러분! 유럽 출장을 마치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니 집에 돌아온 듯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모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창설 43주년을 맞이하였고, 25년간 통일부에 재직하며 통일의 장도에 함께 해 온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직원들과 통일부에서 새롭게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길에 새롭게 합류한 이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난 지 50년이 된 1969년 3월 1일 통일부는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국민적 통일 열망을 바탕으로 범국민적·초당적 합의 하에 우리 통일부는 출범하였습니다. 냉전과 치열한 체제 경쟁이 자리했던 한반도에서 통일부의 창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3년간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분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쉬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걸어온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의 와중에도 북한의 군사적 침투와 도발은 계속되었으며, '90년대 본격화한 북핵 문제는 국제 문제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자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와 아울러 국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남북 관계 격동의 한복판에 서서 바람직한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 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흐름에서 통일부가 추구해온 통일의 길은 역사와 시대의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중심에는 통일부가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의 미래에도 그 중심에는 통일부가 자리할 것입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가는 길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43년이 그러했듯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다층적이며 국내적으로는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증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가 이끌어 나간다는 무거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지난 달 우리는 북한에 고구려 고분군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당국간 실무 협의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사간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북한은 지금까지도 호응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방과 선전선동을 지속하며 남북 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남과 북은 이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관계 상황이 어떠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과제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이해타산도 고려될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선택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불화와 주변국과의 긴장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호 위협을 낮추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비핵화와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의 방향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남과 북이 만나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 관계의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와 통일의 길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위한 제3차 미북회담 합의에 이어 우리의 남북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창설 43주년을 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걸어온 이 길에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갖고 임해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무거운 희생과 시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경제 글로벌 포럼 축사

일시 : 2012. 3. 21(수) 09:30

장소 : 밀레니엄 힐튼 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 경제 글로벌 포럼'이 날로 발전하여 세 번째 학술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님과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술회의를 이끌어주실 운영관 교수님, 김영수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은 문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이 흔들림이 재정 부문으로 확대되고 지금은 실물 경제에 이어 정치 부문에까지 파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뚜렷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판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하는 이 시기, 우리 문명은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북한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은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 비난과 위협으로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나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면서 민생을 돌보고, 피폐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게 지난 주 북한은 '장거리 로

켓 발사 계획'을 발표해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적 행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주민들이 정치적 박해로, 굶주림으로 국경을 넘어 이국땅에서 난민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 정권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행동은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정부는 그러나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더 인내할 것을 요청하면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식량문제 해결의 다급함을 인정하면서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의 생산력 확대를 강조하는 등 경제난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고유의 '자력갱생', '노력동원' 등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를 등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화한 세계경제 체제에서 이미 산업화에 뒤지고, 정보화에 뒤진 북한이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자체의 기술과 노력 동원으로 고질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북한 역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 시기 북한 체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발전뿐입니다. 또한 낙후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남긴 절망과 폐허 위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북한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을 위해서라

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서서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 빨리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포럼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이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동북아 질서라는 큰 틀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북한경제 글로벌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통일백서 발간사

※ 2012년 3월 발행

통일은 시대정신이자, 선진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이루어나가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 한반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문명의 판이 흔들리며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도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핵무기 개발, 무력 도발 위협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주변국들은 정치 지도부의 교체를 앞두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고한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상호존중과 내부 불안정,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남북 간 상생공영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 간 안정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예술·종교 부문 등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에도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

다. 비정치적·비군사적·인도적 부문에서부터 남북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남북 간 상호신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구려 고분군 솔잎 병충해 방제 지원 제안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 진정성있는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외교의 기치 아래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이 상대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소극적인 분단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필요한 여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고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 등은 분단으로 고통 받는 분단이재민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북한 주민과 우리 사회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평화적 통일 과정 관리에 착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준비 일환으로 통일 자원 마련을 핵심적인 국정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통일비용 모금운동을 통해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비용 마련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통일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분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들에게 한국인의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통해 통일을 관념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

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남북한은 스스로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2012 통일백서’는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을 향한 지난 1년 반 동안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통일백서 발간이 남북 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통일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

일시 : 2012. 3. 27(화)

장소 : 코엑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아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나 장구한 통일 민족 국가의 역사에 비해 분단의 역사는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2차 대전 후 일제의 36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이 땅에 두 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 한반도는 1,300여 년 동안 통일국가로 존속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 '신라'가 통일을 한 676년은 유럽에는 비잔틴 제국과 프랑크 왕국이, 아시아에는 사라센 제국과 당나라가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실로 오랜 통일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직후 남북은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고 식민지 수탈로 가뜩이나 피폐했던 삶의 터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남쪽의 대한민국이 당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 비해 북한은 실패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 채워진 민족 분단이라는 족쇄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530만의 인명피해를 불러오고 1천만 이산가족을 남겼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26회에 걸쳐 21,891명, 4,386가족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3만 신청자에 비하여 극히 작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올해 초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만, 북측은 아직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이산'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치적 박해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도 국경을 넘어 떠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한 '고향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기한 난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을 밟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현재 2만 3,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제3국에서 난민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북송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규범입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은 지난 시기에도 쉽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1970년대 세계적인 '데탕트'의 분위기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노력은 현재까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600여 차례의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에 체결한 합의서만도 2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까지 남북대화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건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 온 주된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이 6자회담을 열어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실효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무장공

비 청와대 습격,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잠수함 침투 등에 이어 2006년과 2009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을 북한 어뢰가 공격해서 침몰했고 46명의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 서해안 남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한 섬 '연평도'를 포격하였습니다. UN과 국제 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를 비난하였고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중단하는 5·24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고조시켰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세계 각국은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에 이어 피폐한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새 지도부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능동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구해 온 포용 정책의 일관성을 계승하여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의 비핵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남북 관계의 발전,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정색된 것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남북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을 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설정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일련의 '유연화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책임 있는 남북 고위 당국자 간에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새로운 남북 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 '유연화 조치'에는 다음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확대, 문화·예술·체육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민간 교류 확대,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시설·설비 확충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경색을 완화하고자 의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비군사 부문의 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구려 고분군’ 일대 소나무 숲에 병충해가 심각하게 퍼짐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사간의 실무접촉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 아직까지 호응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발표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계획은 국내 외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UN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통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분단 관리’를 넘어 ‘실질적 통일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실향민들과 납북자·국군 포로 가족, 이산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통일 외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물론 남한과 북한이며, 통일의 열쇠 역시 남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일 또한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작년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독일과 EU 등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대한민

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일본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통일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고 개별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보탬을 줄 것입니다. 한반도 오천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웅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며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공동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국가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통일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일 직후 1년 이내에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의 통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우선 적립해야 할 상징적인 목표액으로 정하고 통일 대비 재원 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재원을 공식적으로 적립하기 위한 ‘통일 계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통일 항아리’라고 부릅니다. 나는 특히 ‘통일 항아리’의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일 시점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미리 대비하고, 세대 간에 분담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한국민의 통일 의지를 세계에 널리 각인시켜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융위기 때 한국인들의 금모으기 행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을 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역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 대열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대한민국에, 나아가 세계에 20세기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체된 발전 과정을 압축적·건설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역사적 회복’에 이어 ‘지정학적 화해’를 완성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공생발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질서의 판이 안정되었을 때 그리고 동아시아에 지속 가능한 평화 구도가 정착되었을 때 세계는 한반도가 통일되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가

발전한다는 인류의 믿음을 증명하는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였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기근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옥수수 250만 톤 상당의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금번 발사계획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큰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위성으로 주장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운반체 발사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핵개발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하여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이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북한에 로켓 발사 중단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북한 새 지도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작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장례 절차 등 사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남북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유해를 유일한 지침으로 권력 변동기의 혼란을 미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새 지도부가 변화의 계기를 맞았음에도 이를 실행할 의지와 힘이 약한 것입니다.

북한 정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불확실한 상황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안고 가야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제재, 경제난, 남북 관계 악화 등 북한이 안고 있는 난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 - 폐쇄 - 궁핍'의 '나쁜 선택'을 할 징후가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평화와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남북 대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남북이 주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 채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간 안정적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은 단계의 실무적 차원 통신만 가동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성실하게 호응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가끔 남한 정부가 대화를 회피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북한에 당국간 대화를 제의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구려 고분 병충해 방제 및 이산가족 상봉 관련 대화 등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고 비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응해 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북한 이탈 주민 관련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복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생존권적 인권과 민생 차원에서 관계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단,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굶주림과 박해로 국경을 넘게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도발을 포기하고 경제 성장과 주민 우선의 정책으로 돌아서기를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큰 고통을 안고 이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2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왔고, 지금도 연 2,5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입국 후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건강 회복 프로그램과 적응·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취업·취학 등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통일부 예산의 60%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민간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가가 통일 후 남북 주민 통합의 척도라고 보며,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통일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대회 축사

-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일시 : 2012. 4. 25(수)

장소 : 서울대학교

존경하는 오연천 총장님, 박명규 연구원장님과 교수,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창립 6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성심어린 노력으로 이 연구원이 단기간에 큰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봄꽃이 만개한 관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귀중한 지적 자산이고 미래를 향한 잠재력이자 비전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기찬 젊은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오랜 유람 끝에 고향에 돌아와서 비로소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였다'는 옛 시인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또 여기서 30년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오늘 잠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다시 관악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서울대 구성원들이 '서울대학교는 연구중심 종합대학이다'라는 명제를 놓고 대학의 발전 방안을 열심히 궁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한마디 말 속에 서울대나 특히 통일평화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단과대학과 학과의 수를 들먹일 것도 없이 서울대학교는 모든 학문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연구 인력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놀랍고도 소중한 사실입니다. 유능한 전문가들이 가능한 모든 사고의 지평을 열어 놓고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비길 데 없이 큰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저는 그 토론과 연구의 핵심 주제로 ‘통일’이 선정되어 있고 또 학내에서 연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 동문 교수로서 그리고 관련업무의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한 한없는 자부심과 신뢰를 가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 기대를 피력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일은 한국인의 삶의 양식의 총체적 통합이자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학문 분야가 다 직접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기초 학문에서 응용 분야, 의약학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학내 모든 연구 분야를 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학 부설 연구소는 그 존재의 형식상 당연히 학술적, 이론적 연구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결코 상아탑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이자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이념의 울타리에 갇히거나 관념적, 추상적 논리에 머무르지 말고,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 서울대는 서울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 대학 사회의 학문적 역량을 증진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관련 연구 역량을 제고하며 이를 결집시키는 데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통일연구에 있어서도 서울대의 위상에 걸맞게 국내·외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연구소들 간에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연구 및

관련활동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관련 후속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교수와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남북 관계가 격랑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대사로 부임하면서 이 대학을 떠날 때 ‘지정학적 화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지정학적 구조와 작동원리의 변화로 요동치는 역사의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혼란과 진통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뜻과 지혜를 합쳐 이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난 후에 우리는 갈등과 대립이 협력과 통합으로 변해 있는 것을 기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 즉 통일이라는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에도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유지하고 ‘기회의 창’을 닫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변화의 끝에서 맞게 될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미담의 길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노력하십시오.

다시 한 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창립 6주년을 축하드리며 연구원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축사

일시 : 2012. 5. 1(화)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조명철 前 통일교육원장님,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님, 그리고 통일교육원 개원 4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기자단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일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서 통일교육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오늘을 계기로 통일교육원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의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통일교육원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통일 환경이 변화해 온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인 1970년대에는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반공 안보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공 일변도의 안보 교육에서 탈피하여 안보의식을 토대로 통일 의지를 함양하는 균형 잡힌 교육을 지향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통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통일교육 역시 남북 간 화해와 북한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강조하였습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한반도 정세 역시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통일교육원은 또 한 차례 변화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용정부의 통일 정책은 우선 남북 관계를 정상적 토대 위에 올려놓는데서 출발했습니다.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상생공영, 나아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것으로 정책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관계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높은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한반도 정세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단 관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시대 상황과 정책 기초를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교육입니다. 그간의 통일 교육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행동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일 교육이 필요합니다. 분단 관리를 넘어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통일 교육이 실천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대통령께서 직접 강연자로 나섰던 ‘통일 정책 최고위 과정’은 바로 이러한 목표 의식 하에 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통일 준비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결속과 화합을 이끌어가는 통일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특정 정파와 이념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통일 교육 역시 일관되고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국민적인 동의의 기반 위에서 의지가 결집될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통일 교육이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이를 확장하고 남북 관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을 통일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

영하고자 합니다. 통일 한국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합리주의와 관용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발현하고, 세계를 향해 이를 발신하는 선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통일 교육에도 필요합니다. 이는 주입과 강요가 아니라, 개방된 자세로 창의적으로 발상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토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확신과 진정한 지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통일 한국이 진정한 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물질·제도적 통합을 넘어 정신적·내면적 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 교육원이 새롭게 발걸음을 떼는 일은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결집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 온 가치와 신념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관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일교육원은 통일 교육의 진정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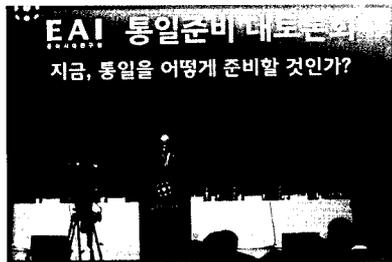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발자취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통일교육원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난 40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향합니다. 실천과 화합, 확고한 가치와 신념을 토대로 통일 준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거듭, 그동안 안팎에서 정성을 기울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할 분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나서는 통일교육원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준비 대토론회 축사

일시 : 2012. 5. 3(목) 13: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아시아연구원 이홍구 이사장님과 전재성 소장님, 그리고 민화협 김덕룡 의장님을 비롯한 각계의 민간단체 대표·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민주당과 국회를 대표하여 축하말씀을 해주시고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통일 정책의 미더운 후임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가 분단된 지 올해로 67년이 지났습니다. 남북한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이러한 분단 상태가 오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며,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지만 우리의 활동 공간과 정신적 지평은 여전히 분단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고 시베리아를 건너고 우랄 산맥을 넘어 유럽에 이를 수 있다는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제약은 곧 정신의 제약이며,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는 족쇄인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불편하지 않다’, ‘통일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우려와 회피가 냉철하고 합리적인 인식인 양 자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제에 순응하고 충성할 것을 주장한 지식인들을 역사는 친일파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들, 분단으로 인해 치르고 있는 비용들, 분단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제약과 부담들, 그리고 그 아픔들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단 이재민들.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역사가 친일파로 기록한 나약한 지식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과연 얼마나 다른 것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들은 그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단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족쇄입니다. 이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일은 시대정신입니다. 단절된 국토를 통일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 속에 분단이 고착화되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현실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무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문명사적 전환기, 지정학적 변화의 현장에서 남북 관계의 엄중한 현실에서 정부는 이제 분단 관리를 넘어 실질적 통일 준비에 나서고자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대비하며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통일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행동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년 후에 통일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초 1년간에 최소 55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

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일 비용이 크다 하더라도 분단 비용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 비용이 크다 하더라도 통일의 혜택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 비용은 한번 내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대부분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통일 준비의 기본 사업으로 통일 비용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 성금을 넣을 통일 향아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법제화하고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와 야를 가릴 일이 아니므로 국회가 뜻을 모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남 고흥 시골 마을의 김갑수 할아버지와 주민들께서는 용돈을 모으고, 커피 값을 아끼고, 채소를 팔아 모은 푼돈을 한푼 두푼 아껴서 2,200여 만 원을 통일 비용으로 모으셨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을 다녀갔던 재외 동포 언론인들도 조국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사업에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비를 아껴 통일 기금을 내놓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께서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이달치 월급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밖에도 경향 각지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통일 성금을 모으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통일 향아리에 모아질 돈의 액수보다도 이를 통해 온 국민의 통일 의지가 모아지는 데에 참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국민의 통일 의지가 결집되고 확산되어 나가면 그 열기가 또 다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통일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만 한국인들의 마음이 모이고 의지가 결집된다면 국제 사회 역시, 우리의 진정한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통일을 거둬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역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온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통일 염원과 의지가 통일 향아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수천만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로 꽉 채워진 통일 향아리는 통일 세대가 통일의 길을 열고 달려가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 한

국사회를 통합해낼 이 보람 있는 일에 국민 통합과 통일을 위해 애써온 민간단체와 전문가 여러분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하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통일 준비 대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분들의 통찰과 지혜가 우리 국민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혼란이지만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라는 R. 폰 바이체크 통일 독일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남북 교류 10년 평가 국제회의 축사

일시 : 2012. 5. 9(수) 11:00

장소 : 일산 킨텍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기도 남북 교류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가다듬는 의미 있는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에 나선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자체들은 특히 대북 지원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걸어온 길은 남북 지자체 교류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 개풍 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 방역, 평양 남북 친선 유소년 축구대회 등 지자체 남북 교류사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역대 단체장들의 확고한 비전과 도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우리 지자체의 남북 교류가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 얽매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는 남북 교류의 확대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 관계 역시 발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남북 교류는 북한의 전술적 태도 변화에 따라 계속 부침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활발했던 교류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변화의 시기, 주무장관으로서 우리 지자체의 남북 교류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내놓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회의 창을 열어 둡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좋은 선택'을 통해 변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역시 북한이 용기를 내서 '기회의 창'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단순한 물적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립과 개방을 돕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식량과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오가고 노하우와 마인드가 오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교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둘째,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조화롭게 추진합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남북한 간의 교류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은 인정되어야겠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관되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별 지자체는 사고의 틀을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넓혀가야 합니다.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종합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됨으로써만이 남북 교류는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성장을 거듭, 진정한 남북 관계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일이라는 목표를 확고하게 지향해야 합니다. 통일 준비는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은 물론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는 남북 교류의 확대를 통한 분단 관리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일정부분 남북 관계의 안정에 기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류의 확대는 목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통일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남북 교류에 나설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을 여는 진정한 남북 교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 관계의 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자체의 남북 교류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진통일 것입니다. 비록 잠시 힘들지만 남북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통일을 위해 참고 견뎌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연한 동의를 바탕으로 북한이 '바른 길', '이로운 길'로 나서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승적 입장에서 자제하면서 북한에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차분히 과거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이미 지자체 남북 교류의 모범을 이루어냈던 경기도가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통해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둠이 짙어도 새벽은 분명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간의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그 비전이 구현될 여건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CSIS 포럼 오찬사

Winds of Political Change in Asia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일시 : 2012. 5. 24(목) 12:00

장소 : 신라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제2회 중앙일보-CSIS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예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님, 존 햄리 CSIS 소장님, 스티븐 해들리 前 안보 보좌관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마도 '변화'일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전례 없는 폭과 깊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가 미래를 향한 시계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한반도 주변국들에서의 연쇄적인 리더십 교체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더욱 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는 또한 선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에 동아시아 각국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부상해온 중국은 국내 정치적인 난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시기 중국의 위상에 걸맞게 인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사려 깊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립 역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최고 통치자의 사망으로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도발과 위협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비핵화와 민생 해결의 온당한 길로 나올지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 역시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북한의 도발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져 온 남북 관계 악순환의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변화의 시기, 우리는 어제까지 작동했던 원리와 원칙들이 그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념적 논의를 넘어서 사물과 현상의 실질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길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길이라면 과감하게 뛰어들어 선택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 정부는 분단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을 통해 국민들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통일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범국민적인 모금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해낼 것입니다. 셋째, 북한 이탈 주민 등 분단 이주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곧, 통일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통합 과정을 원만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의 노력은 동아시아 각국의 선택과 조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향한 북한의 진정한 용기와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북한 자체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방의 흐름을 타고 변화의 시기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시대의 의미를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둘 것입니다. 남북 관계의

높은 굴곡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의지를 보인다면 국제 사회와 힘을 모아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진정한 자립을 도울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잘못되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와 더불어 나가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 함께 평화통일의 길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이 용기를 내어 '좋은 선택'의 길로 나오고, 우리 정부의 통일 준비 노력이 본궤도에 오를 때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도 극복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중국과 미국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향하는 일본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동아시아는 대결과 긴장의 틀을 타파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반도는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경협 활성화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 축사

일시 : 2012. 6. 1(금)

장소 : 국회도서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오늘 아주 뜻 깊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함께 자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박 대표님께서 하신 축사는 남북 관계를 위해서 충심에서 우리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보고 듣기에 거북할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거북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꺼이 듣고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다른 정부 내 미팅이 있어 가지고 차관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원혜영 의원님께서 남북 관계, 통일 정책을 위해서 평소에 성심껏 일하시고 특별히 통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혜와 의견을 주신 점을 고려하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제가 가야되지 않겠냐 해서 회의를 미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중한 축사를 차관이 준비를 했는데, 그건 차관이 하기로 한 거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말씀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24조치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경협 기업인 여러분들께 정부를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5·24 조치가 왜 취해질 수밖에 없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천안함 폭침으로 해서 우리 제복 입은 병사들이 꽃다운 나이에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공격을 받고 부당하게 목숨을 버렸는데요. 정부가 모른다고 할 수 없었고, 이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임을 이해해 주신 국민과 또 경협 기업인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뎌내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사안 같았으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찾아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안보의 문제 같으면 국민이 아픔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교류경협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남과 북이 상생공영하고 그 길에서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가기를 모든 국민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교류와 경협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의 위해에 놓이는 것을 무시하고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세간의 유연화로 알려진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나갔습니다. 남북 교류에서 정치·군사부문을 제외하고는 하나씩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국내 민간단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다시 다 재개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정비와 건설도 다 허용했습니다. 나아가서 공단과 개성시에 있는 도로의 확포장도 허용을 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24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나간 것은 존경하는 박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관계 발전의 중요성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는 경험의 문까지 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전단계로 북한의 소나무 병충해를 방제하는 문제 나아가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제안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포함해서 금강산, 개성문제와 경험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대화를 갖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전제조건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것부터 풀어가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제안 또는 정부의 제안에 회답이 있기 전에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그 뒤에 이 문제는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러한 급작스런 지도자의 사망 후에 남북 관계가 부득이 시간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설로 비방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을 검열해서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24 2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더라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회의 창을 닫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북한의 주민들을 곤궁에서 이끌어 내고 북한이 고립된 국제 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북에게 좋고 남북 관계 발전에 이롭고 그리고 지역과 세계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면 왜 못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왕 왔으니까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8대 국회 때 초년병 장관으로 가서 정책 질의를 받을 때 장관은 뭐하느냐, 남북대화도 안되는데 월급은 왜 받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화도 이루어지고 교류와 경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북측이 좋은 길로 나온다면 그래서 경험을 열 수 있다면 정부는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 말씀하신 금강산뿐만 아니라 개성뿐만 아니라 더 큰 돈도 국제 사회와 협력에서 내밀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부침하더라도 통일준비는 꾸준히 해나가야겠다고 해서 통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마침 존경하는 박 대표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19대 국회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에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통일과 평화를 내다보면서 함께 발의를 하고 함께 통과시켜 주신다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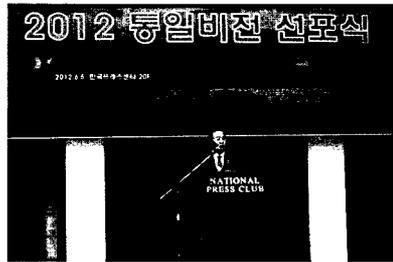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폰 바이체커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혼란이고 재앙이다. 나는 한국 국민이 독일 보다 통일준비를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국민에게 꼭 전해 달라.' 지난 2월에 제가 뵈었을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남북경협 활성화와 원혜영 의원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발제자, 토론자들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내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해주신 의원님과 참석하신 존경하는 박 대표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뵈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이 모임이 반드시 생산적인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비전과 통일」 통일 비전 선포식 축하

일시 : 2012. 6. 5(화) 15:00

장소 : 프레스 센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한반도 비전과 통일’ 봉두완 이사장님, 존경하는 정원식 전 총리님, 남경필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 설훈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반도 비전과 통일’이 비전을 선포하고 통일 준비의 장도에 나서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어느덧 건국 64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께서 1,300년간 통일 국가로 물려준 이 땅은 여전히 분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수 백 년 전에 달성한 민족 국가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우리는 여전히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분단은 발전의 족쇄이자 우리의 아픈 상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분단된 상황에서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안주하는 의식이 상당히 폭넓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통일이 꼭 돼야 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아주 큰 걱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아시아와 세계 질서의 큰 변혁을 맞이하면서 지

금은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일 염원과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통일 준비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통일 의지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하고, 통일 재원을 마련하고, 인접 국가에 우리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비전을 알려주는 통일 외교를 펼치고, 그리고 탈북민을 감싸 안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일, 나아가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통합 과정을 원만히 할 제도적 준비를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모두 통일 준비에 해당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계십니다. 전남 고흥 시골 마을의 김갑수 용은 이웃 친구들과 커피 한 잔 값을 아끼고 채소 판 돈 중에 잔돈을 모아 서 십여 년 간 통일 기금을 모았습니다. 지금 그 돈이 2,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쪽 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재일 동포 민단 대표부가 와서 대통령께 통일 현금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달 월급을 통일 향아리에 내놓으셨고, 장관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월급을 다 통일 향아리에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뜻을 모으는 일, 그래서 국민이 통일을 향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조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크게 헌신하고 큰 발자취를 남겨온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짐을 내려 놓고 쉴 때가 아닙니다. 분단된 국토를 하나로 이어서 마지막 남은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는 데 힘을 보태셔야 합니다.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뜻과 의지를 결집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이 길에 나서주신 봉두완 이사장님과 이계학 전 의원님, 그리고 뜻을 함께한 여러 분들께 주무장관으로써 크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통일 준비의 핵심과제인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 재원이란 말이 딱딱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답아낸 ‘항아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통일 항아리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사명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지역도, 세대도 없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과 화합은 축복된 통일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초당적 협력을 향한 여러 어른들의 결단과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한반도 비전과 통일’의 앞날에 큰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통일 TV 방송’ 역시 통일의 길에 크게 기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통일을 향한 여정에 큰 결실로 돌아올 그날까지 통일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제12차 한·중 지도자 포럼 만찬사

일시 : 2012. 6. 5(화) 18:00

장소 : 힐튼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입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한중 양국이 변함없는 우의를 다지는 이 특별한 자리에 서게 돼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특별히 쉬지아루(許嘉王路) 前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수성 고문님과 김한규 회장님,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노성민 회장님과 장 대사님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대사로서 봉직했던 사람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지구상의 한국과 중국만큼 가까운 나라도 없지만 한국과 중국만큼 빠르게 국가 관계를 회복하고, 크고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낸 나라들도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날의 한중 관계는 큰 자산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한국의 통일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향 각지와 해외 교민들이 통일 재원 마련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중국 정부와 인민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대열에 중국 인민들도 함께 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지정학적 화해요, 역사적인 회복의 커다란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동아시아는 비로소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20년,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동아시아의 상생공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시대를 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된 두 나라 인민이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그 맨 앞줄에 여러분이 서 계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 대표단 여러분이 체류하는 동안 유쾌한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수성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이북 도민 청년 하계캠프 축사

일시 : 2012. 8. 10(금)

장소 : 강원 속초

※ 팜플렛에 게재

‘애향·참여·통일 2012년 이북도민청년 하계 캠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북 도민들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누구보다 통일을 소망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와 아픔을 함께 하며, 통일에 대한 큰 바람을 키워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꿈이 더욱 알차게 영글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20% 이상이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족쇄’이자 ‘비용’입니다. 핵·테러 등 안보 위협, 막대한 국방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가 발전의 장애,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의 운신의 제약 등이 모두 분단으로 인해 치르는 비용입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우리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나날이 깊어지는 현실은 무엇보다 큰 아픔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조상들이 1,300여 년을 이어온 통일 국가를 복원하여, 당당한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항구적인 평화 구도의 정착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정부는 통일 준비를 위

한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신념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둘째,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통일 외교'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북한 이탈 주민·이산가족·납북자와 그 가족 등 '분단 이재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통일과 통합에 대비한 새로운 법·제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 중 통일 자원 마련은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입니다. 통일 이후 남북간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소요 재원의 일부를 사전에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장관이 직접 40여일 간 문경에 드나들며 정성을 다해 '통일 향아리'를 구웠습니다. 이 향아리에는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나가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지에서 통일 향아리에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도 끝 전남 고흥에서부터 미국·중국·일본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통일 준비를 위한 의지가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소망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에 나설 때 통일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할머니께서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모진 핍박에 태어난 땅을 등지고 가족과 헤어져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그리움과 낯설음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깊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캠프가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를 가다듬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연합 캠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통일 준비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와 호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통일 백일장 전국대회 격려사

일시 : 2012. 8. 7(화)

※ 통일 백일장 전국대회 작품 모음집에 게재

‘제11회 청소년 통일 백일장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진지한 열정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분단 현실과 통일 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작품들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통일의 과정을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과정에 비유한 심효선(최고대상) 학생의 작품, 남북한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통일의 날이 머지않으리라는 소망을 담은 이현서·김민수(대상) 학생의 작품들에서 우리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통일 문제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학생이 통일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전한 최시현(최고대상) 학생의 편지, 남북한이 자주 만나 이질감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바람을 담은 노환준(종합대상) 학생의 편지, 평생을 헤어진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온 외할아버지에 대한 애뜻함을 전하는 정성윤(대상) 학생의 편지에서는 분단 현실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간절한 통일의 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부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백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 만들어갈 미래는 지금과 같아서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발신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통일 준비를 통해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통일 항아리’에 국민들의 통일 성금을 모으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하여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 한국의 기초를 다져나가 고자 합니다.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을 꿈꾸고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특히, 통일의 꿈을 실현시키고 통일 국가의 주역이 될 여러분, ‘통일 세대’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된 미래를 꿈꿔 나갈 때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일 준비 노력에 힘과 뜻을 보태주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 한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영어 프로그램 후원의 글

일시 : 2012. 8. 13.(월)

※ 프로그램 안내문에 게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이 어느덧 2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이들에게 교육과 취업은 현실에서 부딪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가족과 헤어져, 누구보다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주한 영국 대사관과 영국 문화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뜻 있는 기업들과 협조하여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용기를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통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면 이미 통일은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성은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의 여정에도 의미 있는 기여로 기억될 것입니다.

「남북 경협 24년 현안과 전망」 토론회 축사

일시 : 2012. 8. 30(목) 10:00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 남북 경협 관계자 여러분 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남북 간에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여 경제협력이 시작된 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남북이 협력의 길을 열어간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경협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자원 개발 등 저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의 확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 도발은 남북 경협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피살됨으로써 금강산길이 막히고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 간 경협이 사실상 중단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협력 틀을 구축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양적 교류 확대에 매진해 왔던 지난 20여 년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정상적인 남북 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경협 기업인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바램직한 남북 관계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사태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신 경협 기업인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새로운 남북 관계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토대로 남북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진정한 남북 경제협력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역시 우리가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낸 북한이 우리와 힘을 합치고 뜻을 모을 수 있다면 통일 역시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남북 경협을 위한 새로운 틀을 그려나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¹⁾ 축사

일시 : 2012. 9. 21.

※ 영화제 메인 카탈로그에 수록

영화의 한 장르로서 다큐멘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자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제4회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출품된 600여 편의 작품들 역시 전쟁과 혁명에서부터, 종교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들입니다. 역사에 대한 통찰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동력이 되듯, 다큐멘터리 영화 역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과 상영 기반이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 작품성 있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영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북한, 다큐로 만나다’(‘09년), ‘독일 통일 20주년·한국전쟁 60주년 특별전’(10년) 등 분단과 통일에 관한 다양한 영화를 소개해온 점 역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쟁과 분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DMZ는 전쟁과 분단, 갈등과 대립이 그 깊은 상흔을 남겨놓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DMZ는 생태계의 평화로운 질서가 보존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1) 경기도 파주시 주최로 2012.9.21(금)부터 9.27(목)까지 도라산역 등지에서 열림

자리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그 의지를 모아 나간다면, 미래의 DMZ는 갈등과 전쟁의 땅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4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한 초창기의 우려를 지금의 기대와 찬사로 바꾸어낸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인간에 대한 애정, 축제의 열기가 함께 하는 장으로 무한히 발전해갈 것을 확신합니다. 도라산역을 축제의 열기로 물들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산가족 자유 상봉 기원 행사²⁾ 축사

일시 : 2012. 9. 21.

※ 팜플렛에 게재

분단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지들을 지척에 두고도 애절한 그리움과 비탄만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여전히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산(離散)의 비극 역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해와 굶주림을 피해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이 땅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느덧 2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헤어진 혈육 간의 만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 간의 모든 현안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의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북한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고통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자유 상봉 기원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겨레 하나되기 운동 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가 이산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최: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행사기간: 2012.2.22(수)~11.30(금)

통일 향아리 국토 대장정³⁾ 피날레 기념사

일시 : 2012. 9. 20.(목) 17:20

장소 : 광화문 광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아침에 만나고 또 만나니 훨씬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문무홍 통일생각 대표와 김일주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 홍보대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일 향아리 국토 대장정’을 자랑스럽게 완주한 드림팀과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7박 8일 동안 우리 드림팀은 비바람을 뚫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통일 향아리’를 은륜에 신고 통일의 꿈을 전 국민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페달을 밟을 때의 그 힘이 통일을 이루는 원동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추동력이 되어서 통일 준비의 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진각 앞에서 되돌아와야 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머지않은 장래에 곧장 북으로 달릴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 청년들과 합세하여 백두산에 이를 것을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본래 일체성을 갖는 하나의 땅입니다. 반드시 온전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한반도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제대로 열립니다.

3) 주최 : 통일부·(사)통일생각

우리는 통일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것을 널리 알립니다. 미국에, 중국에, 일본과 러시아에, 그리고 세계에. 한반도 통일에 이웃 사람들도 함께 하도록 초청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돕고 나설 것이고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통일 항아리'에 담긴 뜻입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통일 항아리'에 통일 의지를 모읍시다. 통일 한국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통일 항아리 국토 대장정'을 시작했고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의 그날까지 앞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2주년 독일 통일의 날⁴⁾ 축하

일시 : 2012. 10. 9.(화) 18:30

장소 : 독일대사관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입니다. 볼프 마파엘 대사님, 폴커스 부피어 헤센 州 총리님, 크리스티안 블프 前 대통령님, 슈테판 물러 韓獨 의원친선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독일 통일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독일의 통일은 20세기의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동서독의 시민들이 벽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던 감격적인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2년 전 많은 이들은 신생 통일 독일의 장래를 우려의 눈으로 주시하였습니다. 급작스런 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사회적 혼란으로 통일 독일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독일은 그동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

4) 주한 독일 대사관·독일 헤센 州 공동 주최

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개척하는 지도적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유럽 경제의 핵심축으로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선도해 나가는 독일 국민들 앞에 더 큰 번영과 영광이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독일의 성취는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21세기의 가장 극적인 사건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에게 지혜와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준비된 통일만이 축복일 수 있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 향아리’ 사업을 힘 있게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통합을 촉진하고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 나아가 세계 문명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인류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과 독일은 분단의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 양국은 분단 극복과 통일의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독일 땅에서도 ‘한국 통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독일 정부와 독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가장 든든한 협조자로서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길에 동반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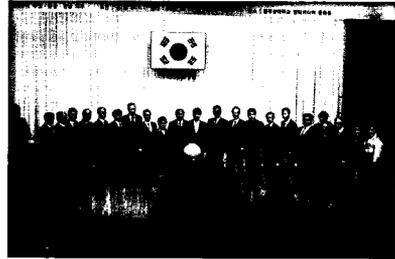
통일 독일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독일 통일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생각」 부산·울산·경남 지부 발대식 축하

일시 : 2012. 10. 11.(목) 11:00

장소 : 동부산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통일 생각’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준비를 해 주신 ‘통일 생각’ 임원 여러분, 그리고 동부산대학교 총장님과 직원·학생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류경화 교수님과 대표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민간단체로 ‘통일 생각’이 출범한 후에 이제 몇 달 만에 그 첫 번째 지부가 부산에서 결성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과 영광을 함께 지닌 도시입니다. 멀리는 개항부터 6·25까지 이 땅의 사람들의 아픔을 가장 절실하게 받아내고 가깝게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틀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은 또 우리 세계화의 전진 거점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지금도 ‘남해안 시대’에 새로운 국가 비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산이 통일 준비의 중심으로 다시 섰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나서면 된다, 나라를 여는 일도 6·25를 견뎌내는 일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일도 이 남동권이 앞장서서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 통일 준비도 그 첫 지부가 이곳 부산·울산·경

남에서 시작되는 길로 봐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날그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그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만 하고 있으면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갖고 싶어하는가 하는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꿈만 가지고 있으면 남가일몽이라, 대개 게으른 사람들이 꿈은 많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통일을 염원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해 왔습니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 왔습니다, 67년 동안. 그러나 말하고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 통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늦게나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그 통일된 미래를 내다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통일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통일이 오까?’ 이걸 점쟁이예요. ‘통일이 오면 좋겠는데’, 이걸 헛꿈만 꾸는 게으름꾼이예요. 통일을 진실로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 주기를 원한다면 무언가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통일 준비를 이끌어 가는 민간단체의 이름이 ‘통일 생각’입니다.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통일 생각’으로 지었다고 하길래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행동할거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깨워 주는 것, 이것도 행동입니다.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통일하길 원한다, 통일 기필코 할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우리 옆에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통일의 전위부대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 온 탈북민들을 감싸 안고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통일을 위한 행동입니다. 통일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법·제도를 만드는 일도 행동입니다.

그런 모든 행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있습

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 ‘통일 항아리’입니다. 장관이 집무실을 벗어나서 ‘통일 항아리’를 빚고 ‘통일 항아리’를 짚어지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이웃 나라에 내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통일하겠다, 우리 힘으로 우리 뜻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통일하겠다라는 것을, 그 뜻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모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미래, 통일된 한국의 미래를 여러분들 가슴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가슴에 심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줄에 앉은 분들이 머리가 희끗하고,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시고, 이제 사회의 원로들이지만 굳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국민에게 꿈을 주고 우리 국민의 뜻을 모으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신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 것이 ‘통일 생각’입니다. 오늘 동부산대학에서 이 행사가 조촐하게 치러지지만, 이웃 대학, 이웃 마을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우리 산업화, 우리 세계화를 이끌었던 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통일의 기운을 일으키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일에 떨쳐 일어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창한 날 실내에 와서 자리를 지켜준 우리 동부산대학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영어 프로그램 론칭 행사 축하

일시 : 2012.10.16(화) 11:30

장소 : 주한 영국 대사관저

휴고 스와이어(Hugo Swire) 부장관
님, 스콧 와이트먼(Scott Wightman)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
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
한민국 통일부 장관 류우익입니다. 지
난해에 이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English for the Future'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땅을 밟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느덧 24,000
여 명에 이릅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 우리 사회 일각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 등으로 힘겹게 새로운 삶을
꾸려갑니다. 특히 인생의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안고 살아
가야 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추석을 맞아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희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라, 자신감을 갖고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역시 꿈과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사회에서 활동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영어권, 나아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나가기 바랍니다. 영국 대사관과 영국 문화원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도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길러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성공할 때 통일은 이미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English for the Future'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꿈을 품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과 영국 문화원, 그리고 후원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은 한반도 통일의 여정에 의미 있는 기여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1주년 기념 - 2012년 민족 통일 전국대회 격려사

일시 : 2012.10.18.(목) 14:00

장소 : 수원 체육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재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님, 정기석 경기도협의회장님, 그리고 민통 가족 여러분,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통 가족 여러분, 민족통일협의회가 창립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민통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민간 통일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중요한 계기마다 민통은 국론 결집과 국민 통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굳건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든든한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그간 헌신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통일의 한길을 걸어온 민통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통 가족 여러분, 현재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우리의 노력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수해 지원을 위한 우리 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으로 함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통 가족 여러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자 오랜 염원입니다. 그러

나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날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통일 의지 약화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와 안일한 인식이 많은 이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태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일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통일 재원 마련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 향아리’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낼 것입니다. ‘통일 향아리’를 통해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널리 펼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민통 가족 여러분! 남북관계는 때로 기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한 태도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통일 준비는 우리가 꾸준히 가야 할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할 주역입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노력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한반도 국제 포럼 리셉션 만찬사

일시 : 2012. 11. 12.(월) 18:30

장소 : 신라호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류우익입니다. 기꺼이 강연 요청을 수락해 주신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 맥스웰 스쿨 학장님, 이번 포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현인택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각국 대표단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소위 ‘한반도 문제’는 복잡한 연원과 양상으로 얽혀 있습니다.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가 부딪치기도 하고 핵과 미사일 등 안보 문제도 사안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장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해결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국제 포럼’은 그러한 노력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바람입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평화와 안정 속에서 번영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아시아,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 결실은 한반도 통일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었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 평화 번영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원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원리를 모색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무일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공교롭게도 올해를 전후로 남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의 리더십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리더십의 교체는 각국이 과거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對 한반도 정책 역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이 기회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생각」 대구·경북 지부 발대식 축사

일시 : 2012. 11. 7.(수)

장소 : 대구 계명대학교

요즘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가 고향에 오니까 박수도 자꾸 쳐주고 좋은 어른들도 뵈고 해서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전에 대구·경북에 오면은 대구·경북이 나라를 이끄는 동네인데, 발전이 잘 안된다고 늘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타향에 나가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돈은 많이 못 벌고 호화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향 어른들이 나라 생각을 많이 하신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대의를 쫓고 공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또 그 후손이고 그 이웃이라는 데서 늘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라는 정책 아젠다를 통일부의 새로운 정책 트랙으로 제시하면서, 더 이상 우리 통일정책이 분단 관리 정책에 머물러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단을 평화롭게 관리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분단 고착을 피할 수가 없다. 상대가 대화에 응해주고 교류협력에 응해줄 때만, 그런 선의와 호의로만 나올 때만 통일부가 일을 한다고 해서야 통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이나 중국이 대신 해 줄 일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분단 관리만 하고 있다가 언제 통일이 되겠는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60년도 쉽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와 함께 스스로 통일을 준비하고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각을 행동으로 보이고 그것을 나라 안팎에 과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통일 준비라는 것을 통일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상징할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좋지 않은 머리로 여러 날 생각한 끝에 향아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통일 향아리, 제가 이름 붙이고 제가 선택했지요. 또 제가 도와가며 만들었습니다.

향아리가 원래 뭐하던 거냐면, 제가 어릴때 본 기억으로는, 부엌에서 향아리를 놓고 어머니나 할머니나 또는 숙모가 밥 지으러 나가면 바가지에 든 쌀을 들여다보고는 한줌 떠서 향아리에 넣습니다. 어린 생각에 참 이상했지요. 쌀밥도 안 해먹고 거의 보리밥을 주면서 쌀을 왜 그렇게 털어내는가,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덜 퍼서 나오지 퍼가지고 나와서 꼭 거기다 털어놓는 단 말인지, 참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요, ‘안에 쌀 독에 두면 되는데 왜 퍼내 와서 또 그걸 거기다 도로 털어놓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 이중으로 하십니까?’ 하니까 ‘너도 크면 안다’ 이러셨어요. 너도 크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객지를 떠돌다가 환갑을 넘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쌀이 당장 밥 지어서 식구들 배불리게 먹이기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덜어냈다가 그것을 모아서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을 비울 날이 온다는 것을,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 백모, 숙모는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비록 팍팍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쌀을 한줌 덜어서 향아리에 넣는 그 심정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나라가 이러네 저러네 정치적인 논쟁이 많고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국운이 이만큼 융성했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재정위기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신용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GGGI를 발족했습니다. 세계은행, IMF와 함께 세계 3대 펀드로 기대되는 GCF를 대한민국이 독일,

스위스 등을 제치고 유치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5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싸이가 온 세계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그저 살만하다고, 아무 일도 안하고 앉아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구·경북의 정신적 유산을 한번 상기한다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북한의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 또 분단의 족쇄를 차고 가야 하는 우리 후손들 또 저 세상에 가계시는 그래도 통일을 국가를 유지했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배부르다고 통일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향아리를 만들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통일이 앞당겨집니다.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 통일이 원만한 것이 됩니다.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이웃나라 사람들도 각성하고 돕고 나섭니다.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우리 젊은이들도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고민을 다 이해해주지 못해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괴로워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는 아스팔트 위에서 최루탄을 맞으면서 민주화를 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해서 근대화했다, 산업화했다. 그러느라고 너희들이 잠든 새 출근했고 잠든 다음에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너희들이랑 못 놀아줬다. 미안하다. 그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없는 돈이지만 모아서 너희들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한다. 그러니 제발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라. 할수 있다. 우리가 돕겠다, 기성세대가, 너희가 무시하는 기성세대가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오늘 계명대학 특강으로써 50번째 했습니다.

준비하는,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이런 일에,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존경해 마지않는 대구·경북의 각계의 어른들이 나서주신 것에 대

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본고장입니다. 없어도, 살림이 없어도 나라빚 우리가 갚아보겠다고 나섰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구·경북 지부가 우리 통일 준비를 이끌어가는 메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정성, 나라를 위하고, 역사의 고비를 잡아주던 그 정신이, 이 통일 준비를, 정말 요원의 불길처럼 우리 한반도를 뒤엎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서, 마침내 통일을 이루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오늘 나와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한반도 국제포럼 개최식 환영사

일시 : 2012. 11. 13.(화)

장소 : 신라호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류우익입니다. 오늘 이틀간의 '2012년 한반도 국제 포럼'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참석해 주신 각국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 국제 포럼'을 이끌고 계신 한승주 의장님과 기꺼이 강연 요청을 수락해 주신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 맥스웰 스퀴 학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6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동양식으로 말해 1주갑이 지난 지금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세계 9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힘이 약했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분단, 그리고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통일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통일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이 구현되는 민주 국가를 지향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비핵화를 이루고 군사적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조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이어 동아시아의 번영을 이루고 세계 문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고자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고양시키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의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고 통일에 대비한 법과 제도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를 전후로 남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의 리더십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는 각국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국의 對 한반도 정책 역시 새롭게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은 역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현상 유지 차원에서 분단 관리에 급급하는 소극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야 합니다.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는 '보편적 가치의 보편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 존중의 원리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근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들이 현실에 구현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는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문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화를 촉구하는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비핵화와 민생 경제 개혁은 더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제재와 고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성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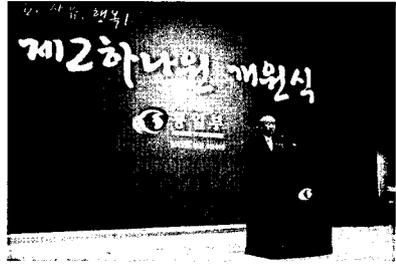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새로운 질서는 당사자 간 진지한 논의와 특
정한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뢰를 기초로 서로의 생각을 터놓
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조정하고 같은 것을 키워나가는 공
론의 장을 넓혀갈 때입니다. 이번 포럼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통일, 그리
고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하나원 개원식 기념사

일시 : 2012.12.5(수) 11:00

장소 : 제2하나원(강원 화천)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작년 여름 착공에 들어간 「제2하나원」이 오늘 드디어 문을 엽니다. 그간 정감철 군수님을 비롯한 화천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성숙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을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한 데 모여서 오늘이 우리 역사에 기록되는 경사가 되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2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벽찬 도전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자율과 경쟁은 너무도 생경한 말들입니다. 교육과 취업은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편견과 왜곡된 시선,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시름을 더욱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우리의 따뜻한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탈북민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자 한 동포이며 무엇보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

께 생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시련에 꺾이지 않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은 곧 통일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들 탈북민들의 행렬은 통일의 길을 여는 선발대가 되어 통일의 물꼬를 터 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때 통일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북한 주민들도 비로소 풍요로운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의 삶은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의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2만 4천 명의 탈북민도 제대로 감싸 안지 못하고서 2천 4백만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 있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은 다시 한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실용 위성임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핵무기 운반 수단의 개발을 노리는 북한의 집요한 시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고 민생 개선을 바라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여행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와 같이 민심을 외면하고 대세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것은 민심이자 천심일 것입니다.

북한은 결국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발적 방식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중단하는 ‘좋은 선택’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 도울 것입니다.

추운 날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오셔서 하나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곳 「제2하나원」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꾸고 그 싹을 틔워서 통일을 이루어내는 뜻 깊은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2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과 우리 정부가 함께 노력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군정위·중감위 송년행사 만찬사

일시 : 2012.12.6(목) 18:00

장소 :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경욱 소장(小將)님을 비롯한 군사정전위 대표단 여러분, 앤더스 그랜스타드 소장(小將)님을 비롯한 중감위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국제연합 참전국 대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 한 채 분단과 냉전의 한 가운데를 지켜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전쟁은 때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어집니다. 30여개국에 관여한 대규모의 국제전이었지만 6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대였던 냉전적 세계 질서가 이미 오래 전에 그 역사적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냉전의 흔적이 분단으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과 냉전의 현장에서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형인 20세기 역사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냉전적 틀과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와 대결하는 길로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매우 착잡한 심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위협과 도발로는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생은 더 피폐해지고 스스로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順天者存하고 逆天者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 빨리 좋은 선택을 통해 올바른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분단에서 기인한 이러한 악순환과 비극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통일입니다. 독일의 분단이 유럽을 ‘철의 장막’으로 가르고 동서독의 통일이 동서 진영의 대립을 종식시켰듯이 이곳 동아시아의 갈등과 대립의 역시 결국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한국 전쟁은 진정으로 ‘잊혀진 전쟁’이 될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체크 포인트 찰리」가 그랬듯이 판문각과 자유의 집,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담장도 지나간 역사에 대한 기념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통일 성금을 모으면서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은 우리가 실질적 통일 준비를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분단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은 통일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 한 해도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실에 이르는 길은 아마도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북한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승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함께 건배할 것을 제의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2013년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

일시 : 2013.1.2(수)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통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한 여러분의 노고에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엄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제 위기, 민주화의 물결, 주변국들의 전면적인 정치 리더십 교체로 국제 정세 역시 어느 때보다 유동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엄중했던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원칙을 굳건히 하고 지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직면해서도 인내와 노력으로 대화와 지원을 제의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비록 남북관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지금의 진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를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12년은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통일 준비를 실질적으로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솔직히 알리고 지지와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차근차근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통일 준비는 이제 국가 어젠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새로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특히 통일에 무관심했거나 회의적이었던 젊은이들이 적지 않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값진 성과일 것입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세계 질서는 요동치고 있고 한반도는 그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냉전적 틀에 얽매어 있습니다. 개혁개방에 대한 내외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와 역사 인식을 둘러싼 괴리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위협을 내포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운은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국민적인 기대를 안고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이러한 격랑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달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계층과 지역, 세대 간 차이를 조화시켜 온 국민이 하나 된 뜻으로 새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또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의 기반 위에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계는 극복하고자 노력하되 성과는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

키면서 행동 공간을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통일 준비에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 항아리」에 더 많은 국민들의 통일 염원과 의지가 결집되기를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이 법제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통해서 한반도는 분단과 대립의 질서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더 가까워지고 그 과정은 더 원만해질 것입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올해도 갖가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막중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기 바랍니다. 도전은 곧 기회이고 한반도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힘쓰고, 이웃 나라들과 협력해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2013년을 성취의 해로 만들어 갑시다. 새해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생각」 LA 지부 발대식 축사

일시 : 2013.1.17(목) 11:00

장소 : L.A. Oxford Palace Hotel

존경하는 미주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남 상임대표님, 배무한 한인회장님을 비롯하여 동포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오늘 「통일 생각 LA 지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피지배에 이어 분단과 전쟁, 그리고 가난으로 조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 역시 이곳에서 눈물겹게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조국의 발전상과 달라진 위상을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0년간 한결같이 함께 해준 안보와 번영의 동반자 미국의 우의와 여러분들의 애국애족적 헌신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융성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루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 역사

적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과 동포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야 합니다. 통일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과 함께 여러분들도 한민족으로서 더 큰 자부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북한 동포들의 시련과 한반도의 긴장 등 분단으로 불거지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이제는 통일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 생각 LA 지부」의 출범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통일 준비를 본격화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다가올 통일의 그날을 위한 역사적 쾌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민적인 여망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자유와 민주의 바람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존의 한계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국내외에서 힘을 합쳐 통일 준비에 나설 때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인접국에 통일 외교를 강화하고 「통일 향아리」에 통일 재원을 모을 때입니다. 통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내외에서 통일을 향한 의지를 행동으로 결집할 때 통일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원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가서 우리의 통일 준비와 그 보람찬 여정에 많은 미국 국민이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일 생각 LA 지부」 결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생각」 시카고 지부 발대식 축하

일시 : 2013.1.22(화) 18:00

장소 : 시카고 아리랑 가든

시카고 한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부 상임대표를 맡아 주신 김종갑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동포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오늘 「통일 생각 시카고 지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격동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경제 부문의 위기, 혁명과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등 세계사적인 규모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주변국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고 변화에 대처하고자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상이한 인식은 갈등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주변국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내보이고 있으며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좋은 선택’을 희망하는 내외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처럼 쉽지 않은 여건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갈 임무를 띠고 곧 출범하게 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기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운은 상승일로에 있

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온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낱알이 번영하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북은 여전히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통일을 미래에 이루어야 할 숙제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융성하는 국운을 발판 삼아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민들께 통일을 위한 행동을 요청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통일 향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아리에 통일을 향한 정성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반도 끝 전라도 고흥에서부터 이곳 미국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지를 하나로 모아 격동의 시기에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을 향한 그 길 한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한인 이민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 지역 동포 여러분의 합류로 대한민국의 통일 준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동포들은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을 새롭게 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도 우리의 통일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북한과 더불어 통일의 길을 열어가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노력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6 트위터 멘션 99

2012년 멘션

1월 19일

안녕하세요? 통일부장관 류우익입니다. 저도 트위터를 시작합니다. 올 한해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4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는 이산가족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올해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29일

저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일일이 다 답변해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월 1일

오늘 민화협 조찬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어젯밤 폭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 현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자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궁금함 등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나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의 강연에 대해 뜨거운 호응을 느낄 수 있는 인상 깊은 자리였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으나, 시간 제약이 있어 답변해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트위터로나마 답변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①북한의 비난에도 유연화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정책 선택의 시간과 공간을 넓혀주고,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화 정책을 지속하려 합니다.

질문 ②통일항아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현재 통일항아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③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소나무숲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은 물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적인 유적지인 왕릉 주변 삼림에 대한 병충해 방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시금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출퇴근 도로보수 공사에 착수하였고, 소방서·응급의료시설건립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남과 북의 장점을 결합시킨 개성공단의 성장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정부의 노력을 다짐해봅니다.!!

2월 8일

'통일 향아리' 깨뜨리지 마세요! 국회 앞 1인 시위중인 나도균님, 제 정성이 모자랐습니다. 나도균님의 진심은 전달되었고 날씨가 추우니 이제 그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2월 9일

통일향아리 깨질까봐 걱정하고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회가 남은 회기 동안에 아름답고 튼튼한 향아리로 구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2월 15일

이산가족은 죄없이 고통받는 분단 이재민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분단 이재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바랍니다.

2월 17일

행복하세요! 수행비서가 결혼했는데 내가 주례를 했습니다. 제자이고 조교였고 직원이었거든요 11년간 사귀었다니 참 무던한 커플이지요. 세상의 꿈많은 신혼부부들 모두 행복하세요!

2월 27일

저는 2.23부터 분단과 통일의 현장 독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일 내무장관, 한독의원친선협회장, 하원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을 설명하고 탈북자문제 및 통일준비 관련 독일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월 27일

독일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한독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한독간에는 8시간의 시차가 있지만 상호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월 29일

2.28 독일외교협회 조찬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통일로가는길이 어렵지만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길올간 독일이 우리옆에 있을것이라는 희망도가질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의 긴박수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들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2월 29일

독일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바이체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이체커 대통령은 동아시아 여행을 여러차례 하였고 그때마다 출발점은 서울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4월 15일이 대통령의 92회 생신이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웃고 축하했습니다.

2월 29일

독일과 EU에서 많은 정치인들은 한반도정세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언론의 많은 관심에 대해 유럽 정치권에서도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럽출장을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3월 4일

지금 우리는 통일준비에 나서야합니다. - 지난 2일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제1기 제1강의 주제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거구요.

3월 6일

방금 통일교육원에서 역대 대통령 통일취호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통일최선”부터 이명박대통령의 “상생공영 평화통일”까지 모두 여덟분의 취호가 한자리에 전시되었습니다.

각기 시대상과 통치철학을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통일의지가 진작되고 결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월 8일

분단관리를 넘어 통일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족쇄에 묶여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됩니다. 식민치하에서 부자유를 편해했던 사람들 같이요 제가 아침에 매경 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3월 9일

오늘 낮에는 헌정회 초청강연을 했습니다. 북한경제 회생 잘 도울 수 있고 그럴 의지 있는 나라 한국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시다.

3월 9일

텃밭 귀통이에 덮어둔 시금치가 겨울을 났네요. 강변 버들가지에 푸른 색이 돌아서 보니 마른 갈대숲 아래 얼음 녹음 물이 흐르네요.

3월 12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통일준비는 지금부터라고 말하셨습니다. 까다로운 주제의 대화를 편안히 이끌어준 김미화씨에게 감사드립니다.

3월 12일

탈북여성 황효민씨가 첫 월급을 모두 기부했다는 기사를 보고 통일부 직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효민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부산/경남]“남한 식당서 번 첫월급, 불우이웃 위해 써 주세요”

탈북자 강제복송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0대 북한이탈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며 받은 첫 월급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놨다. 주인공은 2003년 북한을 탈출해 6년간 중국을 전전한 뒤 2009년 여름 부산에 정착한 황효민(가명·44) 씨. 부산 금정구는 “새터민 황 씨가 첫 월급으로 받은 13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11일 밝혔다.

3월 14일

“분단관리를 넘어 통일준비로” 대전평통자문회의 특강주제였습니다. 통일항아리 열렬히 지지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14일

“청년은 도전한다!” 청주대 명사초대특강 마치고 귀경하는 중입니다. 분단축쇄에 묶여 살아가는 데에 순응하면 안됩니다. 강당바닥에 앉고 선채 경청하던 학생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확인하고 돌아 갑니다.



3월 16일

해외동포언론인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통일정책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일외교의 동반자임을 확인한 귀한 자리였습니다. 동포언론인 여러분 통일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힘냅시다!



3월 20일

조명철 통일교육원장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군요. 더 오래 같이 일하고 싶기도 했지만 어디서든 잘해나가리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한국정치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큰업적 이루기를 바랍니다.



3월 22일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통일기금을 내었습니다. 지난16일 제 강연을 듣고 즉석 모금을 했습니다. 해외 통일항아리 모금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 뜨거운 정성에 꼭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3월 22일

울산대 통일특강 마치고 부산으로 가고있습니다. 평통부산지역협의회 초청 통일공감 강연과 한민족한마음운동 한마당 축사하고 귀경할 예정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통일 향한 축복처럼.

3월 27일

전북대에 통일정책 특강하러 가고있습니다. KTX 차창 밖으로 봄이 오는 들녘이 포근해 보입니다. 청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4월 6일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전세계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중지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이하
여 오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비서관이
인증샷을 찍어줬는데 약
간 어색하네요^^.

4월 20일
어제 저녁에 대통령께서 통일정책최고위과정에 나오셔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통일철학이 특유의
경험과 논리적 연역에 실려 물흐르듯 이어졌습니다.

4월 20일
강연후 막걸리가 곁들여진 설렁탕 만찬에서는 세상살이 얘기가 진솔
하게 오갔습니다. 봄꽃들이 한꺼번에 만개한 것을 길조라고 하시고
통일항아리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5일
오랫만에 서울대에 다녀왔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 창립6주년기념
학술회의에 축사를 했습니다. 지금 변화의 파도가 높더라도 우리는
뜻과 지혜를 모아 헤쳐가야 합니다. 파도가 가라앉은 후에 맞이하게
될 항구적 평화를 내다봅시다.

5월 3일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사업에 2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아가도록 돕는 일은 통일준비의 출발입니다. 재단의 아름다운 뜻을 잘 살려나가겠습니다.

5월 12일

통일항아리를 빚었습니다. 문경 영남요에서 명장 김정옥선생의 손길을 받고 제가 글씨를 썼습니다. 크고 환한 달항아리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았는데 잘 구워져 온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게 되길 기원합니다.

5월 15일

교수 시절의 제자들이 '스승의 날' 잔치를 차리고 초대해 주었습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서른 여 명이 모두 일어서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쪽은 오히려 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같이 귀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 사랑합니다.

5월 19일

광능수목원 숲길을 걸었습니다. 전나무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삼백과 편백이 우거진 숲속을 걸으면서 오랫동안 좋은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쓰러진 서어나무와 황금빛 주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상쾌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23일

재일민단에서 성금을 모아 통일항아리에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에 가슴이 찡합니다. 20세기 전반 아픈 한일역사와 이분들이 거기 살게된 사연을 기억하면 이걸 역사적 승리로 기록될 일대사건입니다. 재일동포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5월 24일

‘통일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SETEC에서 열린 청소년박람회에서 토크쇼를 했는데 학생들 질문이 재미있었습니다. 꿈을 키워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꿈말입니다. 기차 타고 평양지나 시베리아 횡단하고 모스크바 베를린으로 가는 통일의 꿈은 어떨까요?

5월 25일

순천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순천만 늪지생태계는 세계적입니다. 내년에는 세계정원박람회가 여기서 열린답니다. 갈대숲과 갯골 그리고 철새들이 함께 어우러진 세계의 정원들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순천서 민통 초청 통일항아리 강연 마치고 여수로 가고 있습니다.

5월 25일

여수엑스포에 다녀갑니다. 아쿠아리움 한국관과 중국관을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꿈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여수의 바다문화도 만끽하고요.

5월 31일

지금은 보편적 가치가 보편화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아침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제가 한 말인데 말이 좀 께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6월 1일

임진왜란 7갑(420주년)을 맞아 서애선생 공덕을 기리는 제례가 하회 충효당에서 치러졌습니다. 헌관은 대통령님 대신 문화부장관이 맡았고 안동시장 서애류성룡합장 등 많은분들과 함께 저는 자손으로 참사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이어받아 조국통일에 헌신하겠습니다.

6월 2일

작년에 텃밭가에 감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봄이 되어도 잎이 나오지 않아 지난 겨울 추위에 얼어 죽은 줄 알았더니 늦게야 밑동에서 새순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물을 흠뻑 주었는데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6월 11일

70년대 초 육사교관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어제는 근 40년만에 화랑대에서 강단에 섰습니다. 통일준비를 중심으로 문답식 강의를 하는 8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통일항아리에 큰 관심 보여주신 장군님, 감사합니다.

6월 12일

강원대 통일강연 마치고 고성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태백산맥을 넘고 있는데 안개가 산허리를 감고 있네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한 강원대 학생들이 미덥습니다.

6월 18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분단현실에 안주하면 안됩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도전하십시오. 꿈꾸고 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습니다. 영남대 강연하러 가는 길입니다.

6월 20일

20세기 초 대구에서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백년 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신을 다시 살려 통일준비에 나설 때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통일항아리 운동에 나서주십시오.

6월 21일

가마 속의 불빛은 빨갈다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1300도의 열기 속에서 우리의 통일항아리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불을 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월 23일

통일항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평화통일이라고 쓰여진 흰출한 백자 달항아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당당합니다. 이제 통일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통일의지를 모아 답읍시다.

6월 28일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국가 민족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모두 통일 한국을 꿈꿉시다. 그리고 통일항아리를 채워갑시다. 어제 세계한인회장대회 특강에서

6월 30일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농작물이 생기를 얻어 푸르롭니다. 바라보는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7월 4일

통일항아리가 TV출연을 위해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갔거든요. 방송국에서는 통일항아리가 장관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통일항아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오늘 저녁에 최효종씨와 통일항아리 토크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통일고민 애정남 역할을?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긴장도 돼요. 통일항아리 성금운동 이끌 민간단체 '통일생각'에게 통일항아리 한 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7월 16일

대통령님께서 오늘 한달치 월급을 통일항아리에 내셨습니다. '통일생각'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셔서 다과를 베풀어 주시면서 통일준비에 앞장서 일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감사! 이 자리에서 지난번 빛은 통일항아리 한 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7월 18일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도 통일항아리 성금을 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님을 찾아뵙고 통일항아리 한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민의의 전당에 놓아 두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장님은 국회가 통일준비의 중심에 서겠다고 하셨습니다.

7월 23일

제주도에 왔습니다. 통일항아리와 동행해서 통일준비 특강, 호응이 뜨거웠답니다. 풍광이 아름다운 그러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아픔으로 겪은 이 섬에서 통일준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박물관 일본군/징용한국인이 만든 동굴 속 체험 권장합니다.

7월 26일

한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비가 오면 결국 봄이 옵니다. 오늘 아침 인천경영포럼 강연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어디 한번 지켜보십시오.

8월 12일

지난 금요일 하나원 교육생들이 월 4만원의 생활비를 아껴서 모아준 통일성금을 받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세대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귀한 정성은 온 국민이 통일준비에 동참하는 마중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8월 17일

엿저녁 '통일생각' 후원의 밤 행사에 전국각지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통일향아리 성금을 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아가면 통일은 가까워집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한반도 통일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14일

어제부터 통일향아리가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전주-광주 구간을 달립니다. 많이 나오셔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채워지면 통일향아리는 더 신나게 달립니다.

9월 15일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3일차 창원 부산 구간 자전거 달리기가 빗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통일준비는 온 국민의 참여와 응원 속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9월 17일

태풍이 또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 다 함께 힘냅시다. 북한주민들도 힘내기 바랍니다.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은 오늘은 실내행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물론 다시 계속됩니다.

9월 20일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마지막 구간 서울-파주 자전거 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종착점이 북녘 땅을 지나 백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전거 탈 때마다 통일을 기원하고 통일준비를 다짐하겠습니다. 자전거동호인 여러분도 함께하십시오.

9월 25일

당신은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훗날 이런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서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 민주평통해외지역회의에서

10월 11일

대한민국 세계화 전진기지 부산·울산·경남지역 통일생각 지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동부산대학에서 그 발대식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한반도 남단에서 시작된 이 통일준비의 기운이 북으로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0월 11일

탈북민 다섯 쌍 합동결혼식에 주례를 섰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은 이들이 사랑까지 얻었으니 부디 행복한 가정 이루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이들 신혼부부를 축하해 주시고 좋은 이웃으로 따뜻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오늘 이화여대에서 '유니셔티브'라는 용어를 가지고 통일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유니셔티브'는 unification과 initiative를 합성한 것인데 통일준비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연천 합수머리에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남북의 통일세대가 한데 어울려 서로 화합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릴 날을 고대합니다.

12월 7일

류통준 56회 특강하러 공군사관학교에 가는 길인데 눈이 많이 오네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엉금엉금 기는 게 딱해 보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건 역시 자연이네요. 그 다음은 아마 '시대의 흐름'쯤 될까요?



12월 14일

오늘 광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인 '통일생각'의 광주·전남지부 발대식이 열립니다. 한반도정세가 엄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속가능한 평화, 선진민주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통일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12월 22일

성벽을 끼고 눈덮힌 북악을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제자들과 지인 동지들이 동행하여 행복했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진경산수를 가슴에 담아 왔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입니다 이웃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입니다. 주위에 탈북민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웃으로 감싸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나눠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멘션

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밤 한시, 정회 중인데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네요. 새해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되고 나면 아침에 현충원 참배하는 맘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만.

1월 3일

서울 기온 영하 16.4도, 무지 춥습니다. 북녘은 얼마나 더 추울까요?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1월 9일

내가 방송통신대생들에게 통일정책 강연을 했는데, 오늘 저녁 10시 TV방송대학채널(OUN)에서 방송됩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라는 내 지론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통일문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월 22일
대한(1/20)을 지나니 입춘(2/4)이 또한 머지 않네요. 춥지만 힘을 내서 새봄을 준비합니다.

1월 30일
나로호 발사 성공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꿈이 우주까지 날아올랐네요. 대한민국의 전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2월 3일
'류우익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특강(류통준)'이 60회를 채웠습니다. 오늘 중앙경찰학교 특강에서는 씩씩한 젊은 경찰관들과 북핵불용 & 통일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는 통일준비 대열의 맨 앞줄에 서있는 그 대들이 미덥고 자랑스럽습니다.

2월 7일
통일부 장관으로서 나의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류통준'이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오늘 진해에서 마침내 피날레를 고했습니다. 일년여 동안 모두 61회였네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일의 꿈과 의지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 주고싶었습니다. 여러분, 통일항아리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2월 11일
계사년 설을 남해안에서 맞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예비된 땅, 한반도 선벨트 그 빛이 눈부시고 그 기운이 싱그럽습니다. 올 한해도 이 땅에 좋은 일이 많길 기원합니다.

2월 14일
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북한의 3차 핵실험 규탄 결의문이 채택되어 뜻 깊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과 북한인권법도 곧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대통령님께서 국리민복 증진과 국위 선양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이임하십니다. 퇴임 후에도 건강하시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날, 날씨가 청명하니 마음도 가볍습니다. 한강 물빛이 봄을 머금었네요. 관악도 남산도 좋은 봄을 맞기 바랍니다.



66 남북관계 주요 일지 99

2011년(9.19~)

9.19	• 류우익, 36대 통일부장관 취임
9.21	• 이명박 대통령 제6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 •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북한 이용호 외무성 부상 등
9.30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 개성공단 현장 시찰 및 애로사항 청취
10.1	• 북한 체신성 대변인 담화, 반(反)북한 TV방송 등 규탄(조선중앙통신)
10.4	• 일본 표류(9.13) 탈북자 9명, 인천공항 통해 입국 • 북한 주민 2명, 동해상으로 월선, 귀순의사 표명
10.6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동해 월선 북한 주민 2명 및 일본 표류자 9명 송환 요구
10.8	•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통지문, 삐라 살포 등 비난
10.11	• 통일부 대변인,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기업에 대한 공사재개 허용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조치 발표
10.17~20	• 남·북·미 3자 민간 학술회의(조지아대)
10.18~20	• 미·북, 미군유해 발굴 회담(방콕)

일련번호	내용
10.2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비난
10.24~25	• 미·북 제네바 협의(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미국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11.7, 9~15	• 현대아산, 금강산 현지 시설물 동파 방지작업 관련 방북(금강산)
11.8	•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재개 ※2009년 정부가 WHO에 지원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산 중 보류되었던 기초의약품·의료장비 지원과 의료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예산 700만 달러 집행 허용
11.22	•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착공 • 조계종 중앙신도회, 약탈 문화재 환수 실무협의 관련 방북(개성)
11.24	•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 연평도 도발 1주년 남측 군사합동 훈련 관련 비난
11.30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저농축우라늄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
12.7~11	• 데이비스(Davies)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하트 6자회담 특사 방한
12.15~16	• 미·북, 영양 지원 관련 협의(중국 베이징)
12.19.	•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12.20.	• 통일부장관,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정부담화 발표
12.26.	•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등 김정일 조문차 방북
12.30.	•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 - “리○○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숙히 선포”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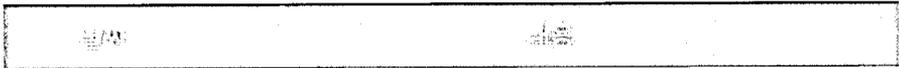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신년공동사설 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을 “김정일 동지의 정신적 영도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라고 주장- 2012년을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로 규정하면서, 분야별 과제 제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음.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임.”• 통일부장관 신년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새 지도부는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람.”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통신 평양지국 개설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인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1.31~2.3 중국 쿤밍) 불참 통보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청장, 북한 국토보호상 앞으로 '고구려 고분군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남북관계특별위원회 의원 개성공단 방문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군 서부지구사령부 공개통고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군 서해지역 해상사격 훈련(2.20) 관련 “대응 타격 및 민간인 안전지대 대피” 위협

연월	내용
2.23~24	• 제3차 미·북 대화(중국 베이징)
2.25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관련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 등 위협
2.27	• 국회,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 중국 외교부 푸잉 부부장 방북(2.20~24), 식량원조 문제 협의 확인
2.29	• 미·북 간 「2·29 합의」 발표(워싱턴, 평양 동시) - △비핵화 사전조치(장거리 미사일·핵실험·우라늄 농축활동 등 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영양식 24만 톤 지원, △미·북관계 개선 등 합의
3.2	•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우리 군부대 내무반에 부착된 구호 관련 비난 - "물리적 타격을 기본으로 한 우리식 성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준엄'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리○○역도와 군부 호전광들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규탄 군중대회, 국방위 기자회견 등이 이어짐.
3.7~8	• 대북 영양지원 관련 미·북 실무협약(중국 베이징)
3.14	• 정명훈, 북한 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 공연 지휘(프랑스 파리)
3.16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실용위성」 발사 계획 발표
3.16~4.13	• 북한조선중앙통신-AP 뉴욕 공동사진전
3.19	•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우리 정부입장 발표 -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미·중·일·러·EU 등 관련국 정상들과 협의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

3.19~4.2	• 남북 종교단체 협의(중국 베이징, 선양)
3.21	•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발사 계획 등으로 유해발굴작업 유보' 발표
3.26~27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미·중·러·일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 촉구
3.27	• 통일부장관,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 - 북한의 평화와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과 남북대화 호응 촉구
4.10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고
4.11	• 북한 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은을 '당 제1비서'·'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
4.13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규탄성명 발표(외교통상부장관)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 개최, 김정은을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
4.16	• 유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 "북한이 살 길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 임을 강조
4.17	• 북한 외무성 성명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배격하며 「2·29 조·미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
4.18	•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채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통일교육원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강연(삼청동 회담장) - “국민들이 통일을 생각해야 함.”, “통일항아리를 만든 자체가 의미”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곧 개시”,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도발근원 초토화”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대남위협·비난 즉각 중단 촉구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 청송연합 등 북한 3개 단체 추가제재 결정(총11개 단체)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기일(6.7) 통보(수출입은행 → 북한 조선무역은행)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공동 성명 배격 및 우주 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 추진 주장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장관, 통일항아리 제작 행사(경북 문경)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남북협력기금 목적 확대, 통일계정 설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근거 마련 등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체신성 대변인 회견 - 우리 측의 ‘북한의 전파교란’ 주장을 “새로운 모략·날조극”으로 비난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8 정상회담 공동성명 - △북한 도발에 깊은 우려, △추가도발 시 상응하는 조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의지 확인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 “우리 언론사 좌표를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위협 • 통일부 대변인, 협박행위 즉각 중단 촉구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식량차관 상환촉구 대북 통지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개질문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측의 전직, 현직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음.”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기인 총회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항아리 제작 완료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국회개원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준비의 핵심 중 하나는 통일재원 마련”,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 “북한 인권 문제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민 박민숙 재입북 관련 “우리 주민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비열한 유인, 랍치책동과 인권유린만행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주장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체포 관련 “남조선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이라고 강변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대식 및 통일항아리 토크쇼 개최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문제 관련국은 어떠한 추가 도발을 해서도 안 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함.”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의 진행(7.16 조선중앙통신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영호를 신병관계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 일본 민주당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 통일부장관 예방 및 통일준비 성금 전달• 통일부 대변인 논평<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식량차관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괴뢰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적발, 체포되었음.”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7.18, ‘중대발표’로 보도)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부장관,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통일항아리 전달<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창희 국회의장,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 통일부장관과 차관 및 고위공무원단, 통일항아리에 성금 기부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재입북자 ‘전영철’의 국내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특대형 테러행위 가담자’라고 날조(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영철 사건’ 관련 “특대형 음모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우리(北)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 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 없게 될 것”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영철 사건’ 관련 “실제적인 초강경 대응”, “강한 물리적 대응공세” 등 대(對)미국 위협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영철 사건’ 관련 “특대형 국가정치테로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책임 있는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김성민·박상학·조명철·김영환 실명 거론)

연월	주요내용
8.7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8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8.9	• 북한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5·24 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실로 우리 측 제의(8.8) 사실상 거부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
8.19	•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 대남단체, 「UFG훈련」 비난 합동성명 발표
8.20	•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연맹(IFRC)을 통해 북한에 수해 복구 관련 10만 달러 지원 발표
8.24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 수해지원 협의 관련 방북 (개성)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8·25 경축연회」 김정은 연설 -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 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
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2009년 남북 간 합의대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통보할 것을 촉구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비망록 -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핵 억제력을 현대화·확장”
9.3	• 대한적십자사,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9.12	• 북한, 수해지원 관련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원 거부 통보

연월일	주요내용
9.13~9.20	•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9.22	• 북한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군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북한 어선 경고사격' 비난
9.25	• 북한 최고인민회의(제12기 제6차) 개최 -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법령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2명의 보선과 예산위원회 위원장 교체
9.27	• 북한 식량차관 상환 촉구 대북 통지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관련 "새누리당의 술수에 속지 말아야 하며 제2의 유신 독재 부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
9.28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어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우리 내부의 대선과 관련한 명시적 언 급을 한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고 하여 즉각 중단 촉구
9.29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 "NLL은 미군이 일방 설정한 유령선,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연평도 불바다를 재 현하겠다는 대결선언"이라고 비난
10.9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일본과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라고 위협
10.1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미제와 결탁한 대북선제공격선 포"로 규정하고, "우리(北)도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위협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적대시정책의 새로운 산 증거"라며, "우리(北)가 침략의 본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
10.13	• 금강산 신계사 복원 5돌 기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개최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통신 후 복귀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서해 연평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서부전선사령부 공개통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전단살포(10.22) 관련, 임진각과 그 주변 조준격파사격 대상, 움직임 포착 시 경고 없이 타격, 해당 지역 남한 주민 미리 대피할 것” 등 위협 •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서북방 북방한계선(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통신 후 복귀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北)와의 협의도 없이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정전협정에 전면 배치되는 유령선”이라고 주장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문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연평도 방문(10.18.) 발언 관련, “북방한계선(NLL)은 유령선·비법적인 선, 북한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 등 주장
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민간단체의 행동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단체도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한의 위협 등을 감안하여 전단살포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문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발언(“북한 위협적 행동 중단” 등) 관련, “9.19 공동성명 이행 의무를 미국은 하지 않고 북한에게만 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침범, 우리 군의 경고 사격 후 복귀

연월일	주요 내용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권 교체를 기어이 실현해야 할 것”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신설 결정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북한 대선 개입 시도 철저히 대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의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입북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내외신 기자회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혁(2008.3. 탈북)·고정남(2008.9. 탈북) 부부는 “남한에서 비참한 생활을 겪으며, 더 있어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 9월 12일 조국으로 돌아왔다.”라고 선전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북·일 정부 간 회담계획 발표(11.15~16, 울란바토르)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김정은, 중국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 • 개성 영통사 낙성 7주년 및 의천 다례재 합동법회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외국인 대상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해서 북한의 보다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람.”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 조선인민군 신문사 문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의 「연평도 포격 도발(11.23) 2주기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문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의 외국인 대상 금강산 관광 중단 촉구 관련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며, 관광 재개를 위해서도 대결광신자들의 재집권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북·일 회담 개최계획 발표(12.5~6, 베이징)
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리젠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일행 방북(11.29~30)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김정은, 중국 공산당 대표단 면담 및 시진핑 친서 접수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동지의 유훈”,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힘 있게 고무”, “지난 4월에 진행한 위성 발사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여 위성과 운반로케트의 정밀도를 개선” • 외교통상부 대변인,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선거공약 관련 공개질문 문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10·4 선언 이행,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하의 통일, △선 핵포기, △한·미 동맹 강화, △북한인권법 제정, △「5·24 조치 해제」, △현 정부 대북 정책 승계 여부 등 • 일본 정부, 북·일 회담(12.5~6, 베이징) 연기 발표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매우 우려한다”라는 입장 표명 • 중국 외교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큰 틀에서 출발해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라는 입장 표명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하나원 개원식(강원도 화천)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진상공개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 파탄의 장본인”이라고 왜곡, “어떤 구실 없이 반드시 재개” 주장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 조절 가능성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사를 위한 준비사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 “그 과정에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발사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 -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위성발사 예정일을 12월 29일까지 연장”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대통령 주재) • 정부성명 발표(외교통상부장관) -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 한 도전이며 위협”, “북한이 국제사 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및 대북 규탄 성명 후 대북제재 논의 착수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대답에서 ‘합법적 위성 발사 권리’ 주장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평화적 사업, △미사일 발 사를 도발, 정세 긴장요인으로 보려는 것은 대북 적대시 관점”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대 대통령 선거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특별한 논평 없이 제18대 대통령 당선 사실만 간략 보도 - “남한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 이로 당선”
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국방백서》 -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규정 • 북한, 미국인 배준호씨 억류 사실 발표 - △반공화국적 대범죄를 감행하여 해당기관 억류, △본인의 범 죄행위 인정 등 언급
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애기봉 등탑 점등(2012.12.22~2013.1.2) 비난 및 도발 위협 - “△국방부의 종교단체 요청 구실은 여론 비난 모면용 술책,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심리전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

1.1

• **대통령 신년사**

-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시작된 조용한 변화의 움직임이 통일의 큰 물결로 넘쳐 흐르길 소망”

• **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 발표**

- “12년은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담보를 마련한 해”로 평가, 위성발사 성공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
- ’13년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는 창조와 변혁의 해”라며, ‘경제강국 건설’을 핵심과제로 제시

1.2

• **통일부장관 신년사**

-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확대,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 △통일 준비에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노력 계속”

• **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 “오늘 남북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나 대화와 평화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

1.3

•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 △‘동족대결에 매달리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민족끼리 기치밑에 반통일 대결세력 반대투쟁에 나설 것’ 등

1.7~10

• **美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방북**

1.14

• **北 외무성 비망록**

- ‘유엔사령부 해체’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조선신보, 핵 관련 최후통첩 전달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을시 조선의 핵보유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비핵화 논의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핵관련 최후통첩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음.”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0 UN 안보리 결의 채택(현지 시각 1.22 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12.12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 • 北 외무성 성명(06:52, 중통·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UN 안보리 대북결의 배경 ②평화적 위성발사권리 계속 행사 ③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 ④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中 외교부 안보리 결의 관련 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리 결의 2087호는 전체적으로 신중하고 적절하며, 균형이 잡히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 -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함.”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국방위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켓,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 -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으나 조선반도 비핵화를 상정한 대화는 없음.” • 美 국무부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거부할 경우 계속 고립에 직면할 것” • 美 백악관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성명은 불필요하게 도발적이며, 추가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임.”

1.24

• 中 외교부 정례브리핑

-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6자 회담 틀안에서 당사국들이 접촉하고 관계를 개선’ 등

• 1.24 탈북 재입북자 김광호 부부·고경희(女) 국내외 기자회견 진행

1.25

• 北 조평통 성명

- △남북간 비핵화 논의 중단(‘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무효화) △反北적대정책 추구하는자와 불상증 △‘南이 유엔 제재에 직접가담시 물리적 대응조치’ 위협

1.26

• 김정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주관 중통 보도

- △‘세계의 비핵화 실현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도 없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강도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 해당부문에 구체적 과업 제시’

1.28

• 北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개최

• 美 국무부, ‘北 핵실험 시 중대한 조치 취할 것’ 경고

-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가 명시하듯이, 추가 도발시 우리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

류우익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인 쇄 일 2013년 3월 4일
발 행 일 2013년 3월 8일
발 행 처 통일부
주 소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 화 02-2100-5733
팩 스 02-2100-5739

편집·제작 (주)다해미디어 02-722-7123
